



7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7 호

(루계 453)



◆◆◆◆◆◆◆◆◆◆ 차 례 ◆◆◆◆◆◆◆◆◆◆

위대한 손길	4
승리의 봄향기 (외 1 편)	5
인 골 천	5
수령님 웃으시여라 (외 1 편)	6
아, 이 밤	6
자주적인민의 주도적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여온 주체적시문학의 40 년	7
김정일 동지는 세계인민들의 행복	16
김정일 동지 그이는 위대한분	16
삶의 은인	17
인 생 의 빛	18
파도와 기슭	18
한 걸 음	19
영원한 기억속에	19
당에 드리는 노래	20
대담한 공격정신 내려치는 바다기슭에서	21
태 품	24
10 월 에 로!	32
조국의 숨결 (외 1 편)	32
기 발	32
우리 식으로! (외 1 편)	33

꿈.....	34
나의 중대 (외 1 편).....	34
전사와 위훈	35
아,물보라 (외 1 편).....	36
먼 후날.....	36
봄 향 기	37
출 생 증 (외 1 편).....	47
물은 인간의 창조물이였다.....	47
올 때마다.....	48
형제의 나라 소련에서	49
쫓박무이 꽃방석	52
하나의 모습	53
소설은 왜 과녁을 잃고 빗나갔는가?.....	54
봉 화 산.....	59
더는 묻지 못했다 (외 1 편).....	60
우리는 오늘에 산다	60
궁 지 (외 1 편).....	61
철길건설자의 집	61
그날의 궤도를 달리며 (외 1 편).....	62
차창가에서	63
언제나 그날에	64
노을비낀 새벽에 (외 1 편).....	64
불 빛	65
아, 검덕아.....	66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하자.....	67
바 다.....	72
거꾸로 선 아메리카 (외 1 편).....	72

발작하는 워싱턴	73
기쁨이 피어나는곳	74
소나무는 서있다	76
내 손에 넘겨다오	80

위대한 손길

김준익

터져 오르는 축포
열광의 환호성...

전승광장의 단상우에서
우리의 수령님
축복의 손길을 흔들어주시여라
그 손길아래
미제야만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한
영웅들의 대오가 굽이쳐 흐르고
우리러 목메이는 인민의 환호성은
누리를 진감하며 메아리쳐라

오, 6월의 그 아침
조선의 결심을 단호히 선포하시며
높이 드시던 그 손길
자각한 인민의 힘을 한데 모아
남으로-
반격의 폭풍을 밀어가시던
령장의 손길이어 !

그 손길 가리키는 지점마다
헤어날길 없는 조선의 《함정골》이
미제의 《정예》사단들을 통채로 삼켰고
그 손길 짊어가는 이름없는 봉우리
그 어느 산협의 우회로도
영웅의 고지,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혁명전쟁사에 찬란히 새겨졌더라

불뽕은 화점을 몸으로 막은 전사도
한품에 안아일으킨 어버이사랑-
이렇게 손을 대면 아프지 않는가고
따뜻이 만져주시던 그 손길에 받들려
영광의 대오는 달려왔더라
전승의 광장으로

보탑을 진 너인들과 함께
수령님 걸으시던 이 땅의 들길-
손수 봄씨앗도 고르시며
가을날엔 도리깨도 함께 잡으시며
인민을 이끌어주시던 그 손길에 받들려

이 나라의 후방도 발맞춰왔더라
전승의 광장으로

진정, 최고사령부의 작전대로부터
최전선의 그 어느 전호턱에 이르기까지
그 손길 아니 닿은곳 있었는가
불타는 화선천리길
그이께서 짊으셨던
폭풍에 흔들리는 도하선의 란간이어
그이께서 잡고오르셨던
전선고지의 못잇을 가둬나무숲이어

잠시라도 쉬셔야 할
달밝은 최고사령부의 그 밤에도
언제 한번 그 손길 멈추신적 있었는가
그 어느 습격조의 작은 위훈도 찬양하시여
친히 사랑의 축하문을 쓰시며,
부모 잃은 아이들을 따뜻이 안아줄
내각결정도 몸소 작성하시며...

오오, 싸우는 조선의 억만가지 일이
그이의 손에서 시작되고 열매맺었거니
오만하게 덤벼든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세계의 면전에서 꺾어놓은 손길이어 !
항일전의 위대한 승리에 이어
또다시 빛나는 전승국으로
조선을 받들어올린 수령님의 손길이어 !

터져 오르는 축포
환호성의 메아리...

이 시각 누리를 향해 높이 드신 그 손길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의 힘은 불패이라는
불멸의 진리를 선언하시는가
격동과 환희의 꽃바다우에
태양같이 빛나는 수령님의 영상은
전승의 그날에 세계가 눈이 시도록 바라보았고
다가올 년대기우에 찬란히 빛날
영원한 조선의 모습이였다 !

승리의 봄향기 외 1편

심봉원

전선으로 떠나던 날
한시루 가득히
내 집 아래목에 앉았던
그 콩나물 아닌가
고지의 대피호엔
콩나물 콩나물

전투의 실참 그 향기 말해보면
분여지의 논두렁에 달밤에도 나와앉아
터질듯 잘 여문 콩꼬투리
아무리 봐도 또 보고만싶던
꿈만 같던 그 나날
못잊을 추억으로 가슴 부풀고

가렬한 전투의 밤에도
불타는 고지의 전호가에 이 향기 피워주신
장군님 그 은정 뜨거워서
소중한 그 추억이 귀중해서
총창에 번개치는 용맹이여

아, 1211고지
싸움의 그 낮과 밤
이 가슴에 흘러든 사랑의 향기
승리의 봄향기여
폭풍도 흐리울수 없었던
조국애의 불길이여

인 골 천

인골천기슭에
들꽃 하얗게 피여도
뜨거운 가슴속엔
그날의 눈석이물소리

후더운 눈길 들어
바라보는 저기
오늘도 어버이수령님
문득 오실것만 같아

최고사령관동지! -
가슴뜨거이 그 이름 불러보면
전화의 그날 장화까지 벗으시고
강건너 오시던 그 영상 어려와서

가슴뜨거워라
언제나 그 언제나
우리 전사들을 찾아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최전선으로 싸우는 고지로
불길 천리 폭우 천리
승리의 봄빛 안고 헤쳐가신
그 자욱 어려와서

아, 포화속 그 새벽길
그날에 오셨던 그 영상 못잊어
언제나 그 언제나 가슴속에 못잊는
그날의 눈석이물소리

수령님 웃으시여라 외 1 편

전찬기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단 한번도 청드린적 없는 친위전사
진달래꽃 한아름 안고
이렇게 웃으며 맞아주니

5호물동가의 그 봄날도
여기 다시금 웃는듯...
생각도 많으시리
회령땅 몸소 찾아오신 수령님

회령은 어디쯤 되는가고
그리움 함뿔 담아 물으시던 마음도
한품에 다시금 안아보실
수령님의 심정-

바다같으신 가슴속에
오늘의 락원을 건설하리라던
그 뜨겁던 열망도
하많은 사연도 함께 안아보시나니

그리도 간절하던 친위전사의 념원을
세상 제일 좋은 락원으로 꽃피우셨기에
환히 웃으시며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시는
우리 수령님

마음도 산천도 밝히시며
수령님 환히 웃으시여라
아,우리 가슴속에
친위전사의 기쁨 뜨겁게 안겨와라

아, 이 밤

귀뜩귀뜩
귀뚜람아
너는 왜 잠 못드느냐
은실금실 드리우며
백살구나무아지 부여잡고
한밤을 지새는 보름달아
너도 잠 못드는구나

승고한 충성의 생애를 더듬으며
자옥자옥 따라
망양나무 쪽배에도 이 몸을 실어보고
박달나무도 얼어붙는 밀림의 겨울아침의
그 젖은 군복도 가슴에 품어보는

이 밤

아 이 밤이 깊어갈수록
너투사의 높은 마음 내 다 안아보는가
수령님 우러름 뜨겁고
우리 당을 받드는 가슴 높뛰어
너투사께서도 잠 못드시고
나도 잠 못들어

그날의 사령부뜨락도 함께 걸어보고
불밝은 당중앙 정문가에도 함께 서는
이 밤
아, 회령의 밤...

자주적인민의 주도적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여온 주체적시문학의 40년

현종호

한나라 한민족의 문학력사에서 40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그러나 력사는 인민대중의 정신적 양양의 시기에 문학예술이 높이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해방후 40년동안의 우리 시문학의 력사도 그런 실례로 될수 있다. 그러나 해방된후 이 땅우에 펼쳐진 시문학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과거 문학의 력사에서 말하던 그런 실례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높은 발전을 가져온 자랑스런 시문학의 력사이다.

1

조국강산에 해방의 종소리가 메아리쳤을 때 그 누구보다 못지않게 흥분한것은 우리 시인들이였다. 그러나 우리 시인들에게 있어 이때 더없이 기쁜것은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해방된 조국땅에서 맞이하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 시인들에게 창작의 자유로운 길을 열어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시문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이 땅우에 주체적시문학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흥분된 우리 작가, 시인들에게 준엄한 항일의 나날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진행한 그런 혁명적문예활동을 본받아 자기의 창작사업을 적극 진행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해방후 우리 시인들이 그의 첫 출발부터 곧 바른 승리의 한길을 걸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곳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오.》

한편의 시와 노래가 전사들이 틀어쥔 총창과 같은 역할을 놀아야 하며 천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무기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해방후 우리 시문학에 일관하게 된 새로운 시정신으로 되였다.

해방후 우리 시인들은 이 시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창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의 초기부터 반동적인 문예사상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으며 자기의 력사를 주름잡아나아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 놓인 우리 시문학은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의 환희와 기쁨,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함으로써 새조선건설에 펼쳐나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정을 고무해주는 힘있는 무기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평화적민주건설시기의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흘러넘친 환희와 기쁨,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가장 크고 본질적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해방된 조국땅에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 한없는 기쁨이며 장군님의 은덕으로 땅의 주인,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환희와 긍지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40년동안의 주체적시문학의 력사는 자기의 첫 발자국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부터 떼기 시작하였다.

만민의 념원을 안고 탄생한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리찬)를 비롯한 서사시 **《백두산》**(조기찬) 등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해방직후 우리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 신뢰와 충성의 감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성과작이다.

원래 수령에 대한 송가는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을 끝없이 경모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충성과 경모의 감정은 수령에 대한 송가의 본질적속성이다.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시이자신이 다함없는 충성의 열정과 뜨거운 흠모의 감정으로 하여 혁명송가로서의 사상에술적풍격을 훌륭하게 갖추고 해방후 줄기차게 발전한 송가와 송시 문학의 본보기로 되였다.

참으로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주체혁명위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나라와 민족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담아 혁명시인 김혁이 창작한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 흘러넘친 그 흠모와 충성심의 계승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이 시기 우리 인민의 존경과 흠모, 신뢰와 충성의 감정은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에서 또한 감명깊게 노래되었다.

서사시 《백두산》의 사상예술적성과도 역시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와 혁명업적에 대한 시인의 뚫어넘친 흠모와 존경에 의한것이다.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에 대한 격동된 심정으로 하여 백두산의 바위와 골짜기, 눈보라와 안개, 그 모든것을 분방한 형상적비유속에 의인화하여 노래하면서 어떻게 하여 칠성관에 올랐던 조선이 그 무서운 세월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며 오늘은 해방을 맞이하여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었는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서사시는 민족과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이렇듯 큰 의의를 가지는 사상을 밝히면서 시형상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부각하는데로 집중시키고 복중시킴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감정을 빛나게 구현하였다.

서사시 《백두산》의 작가 조기천은 열정의 시인이었으며 세련된 시적언어와 힘있는 형상적비유와 거침없는 시적운물에 능한 개성적인 시인이었다.

서사시 《백두산》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장편서사시형태가 로동계급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에서와 같은 영웅적사변을 뜨거운 혁명적열정으로 노래할 때만이 창조될수 있으며 우리 시문학의 역사에서

참다운 서사시창작의 길은 해방후 시문학에 와서야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준 창조물이다.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우리 인민들의 주도적사상감정에서 당과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된 인민들의 기쁨과 환희를 노래한 작품은 이 시기 시문학에서 매우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력사적인 민주개혁에 의하여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기쁨과 환희를 담은 더 많은 생동한

시편들을 남기였다. 그것은 우리 시인들이 이 시기 인민들의 생활에서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룬 농민들의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이 얼마나 컸으며 따라서 민주개혁가운데서도 토지개혁이 차지하는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은데 기인한것이다.

김우철의 서정시 《농촌위원회의 밤》, 리호남의 서정시 《지경돌》, 김광섭의 서정시 《감자현물세》 등 토지개혁주제에 바쳐진 대표작들은 그 시적생활세부의 생동성과 서정적주인공들의 정서세계의 꾸밈없는 진실성에 그 특징이 있다.

눈오는 봄도 3월달
약수터를 에워싼 농촌위원회의 밤
산 사람들의 새로운 꿈을 견고
밤을 밝혀 심지를 돋우며
호박꽃처럼 빨강게 익있다

이제 첫닭이 해를 치면
산발을 타고 초막에 돌아가
어메 아베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꿈같은 소식을 전하리라

《농촌위원회의 밤》을 비롯한 땅의 주인 된 농민들의 기쁨을 노래한 이 시들은 한결같이 지주의 등쌀에 한평생을 마소같이 살아온 서정적주인공들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밝고 명랑한 생활락천적서정속에 노래하고있다.

해방후 40년동안 창작된 우리의 주제적시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이 시작품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어떤 사상주제에 바쳐진 시작품일지라도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충성의 뜨거운 감정이 안반침되어있는것이다.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시문학은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분연히 일떠선 영웅적조선인민의 멸적의 기상을 노래한 싸우는 인민의 영웅적시문학으로 되여야 하였으며 전쟁승리를 위한 힘있는 무기로 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시기 우리 문학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예술에서는 사상이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진실하게 표현되여야 하며 따라서 추상성은 예술에서 죽음으로 된다는 심오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

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작품에 표현된 애국심이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게 됩니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형상하는것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원칙적요구이다. 그러므로 전쟁시기문학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강령적교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당적이며 혁명적인 시문학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되었을뿐아니라 그후 시문학발전을 위해서도 항구적지침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시문학이 견지해야 할 원칙적요구를 명확히 밝혀주신데 기초하시여 그 문학이 묘사해야 할 주제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으로써 전시 우리 시문학이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다양한 생활감정을 노래한 사랑과 광만의 애국주의시문학으로,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교활하고 야수적인 비인간적본성을 날카롭게 규탄한 증오와 분노의 전투적시문학으로 되게 하시였다.

전호숙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올라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러 총을 멘지 삼년석달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도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네
공세우라 하신 말씀 명심하여 싸웠노라

심봉원의 가사 《전호숙의 나의 노래》는 전시문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의 구현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포연이 흐르는 전호가에서 원썩을 무찔러 용맹을 떨친 전화의 나날에 전사의 가슴에 뜨겁게 고동친 가장 아름답고 숭엄한 감정은 정다운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었다. 하기에 가사의 서정적주인공은 고향의 부모들이 자기를 전선에 바래면서 당부하던 그 말씀을 명심하고 적탄알이 비발치는 격렬한 싸움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울수 있었으며 전호가에 기대어 부르는 자기들의 노래가 고향으로 올라가기를 그토록 념원한것이다.

박세영의 서정시 《나팔수》, 안룡만의 서정시 《나의 따발총》, 조기천의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 석광희의 가사 《결전의 길로》, 조기천의 가사 《문경고개》 등 전시시작품들도 모두 고향산천과 자기의 정다운 사람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흘러나온 구체적인 애국적열정의 산물로서 시인들의 뜨거운 종군체험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물이다.

이 작품들의 창작적성과는 시작품의 전투적서정이란 결코 추상적인 구호의 라렬이나 격조높은 시어의 배열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상한 사상의 뜨겁고도 구체적인 정서와의 결합에 있으며 문학작품의 생명의 항구적의의가 초력사적인것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도적사상감정의 진실하고도 웅심깊은 표현에서 온다는 교훈을 남겨줌으로써 그후 주체적시문학발전의 귀중한 디딤돌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낸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적극 밀고나가야 할 무겁고도 벅찬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면서 작가, 예술인들을 자연주의와 예술지상주의 표현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였으며 현실속에 깊이 파고들어 혁신과 창조적로동의 앞장에서 싸우는 이 시대 전형적인간들의 모습을 옹게 포착하여 형상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다시한번 조선인민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시기 우리의 주체적시문학은 이 시기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사회경제적변혁에 바쳐진 생동한 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끊임없는 질적발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문학의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 김철의 서정시 《기뻐하노라》, 전초민의 서정시 《건설의 나날》, 리용악의 시초 《평남관개시초》 등 작품들만 가지고도 능히 알수 있다.

얼마만이냐! 원썩의 포화에
불에 탄 바다가의 숲에서
습기찬 용광로의 부서진 철탑에 의지하여
싸움속에 살아온 새들아!

다시 일어선 열풍로의
훈훈한 방부제냄새
녹썩었던 철판에
다시 흐르는 증기소리-

아 모든것을 다시 추켜세운 구내우로
새들이 난다
그 모진 싸움속에서도 가슴 드눌지 않던
제철공들의 무쇠의 가슴을 치며, 가슴을
흔들며-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는 어찌하여 엄혹한 싸움의 불길속에서도 드눌지 않던 우리 영웅적로동계급의 무쇠의 가슴들이 숲을 찾아 떠나가는

작은 새를 보고서도 것처럼 세차게 고동치게 되었는데 생동한 시적세부를 통하여 여운있게 표현함으로써 이 시기 시인들의 사상예술적장성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시인들의 장성은 우리 당 수리화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10편의 서정시초로 감격적으로 노래한 《평남관개시초》에서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시초에 들어있는 이 서정시들은 물에 대한 열두 삼천리별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실현되었다는것을 자랑차게 노래하면서 수리화에 의하여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 농민들의 환희와 랑만, 감격과 기쁨을 깊은 향토적서정과 생활공정의 열정속에 표현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개성적이고 정서가 깊은 노래를 창작하려면 시인들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형상적인 세부를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와 더불어 농업협동화의 출현을 어린 애기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결부시켜 노래한 이 시기의 작품인 《기뻐하노라》(김철)는 시인들이 개성적이고 정서가 깊은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색을 거듭하여 자기의 형상적인 시적세부를 탐구하기에 노력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주체적시문학이 사회주의혁명시기에 창조적으로동과 사회경제적변혁을 노래한 시작품을 창작하면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있는 잊을수 없는 영웅적사변들을 반영한 서사시를 창조한것은 결코 자주적인민의 주도적인 시대적감정과 무관계하게 나온 창작적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못다 형상한 전쟁시기 우리 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더 더듬어보고싶어하는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의 념원의 반영이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신상호의 《련대의 기수》, 민병균의 《어려리별》, 김학연의 《소년빨찌산 서강령》과 같은 우수한 서사시가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의 창조에 의하여 해방후에 비로소 개척된 참다운 장편서사시형태의 시문학은 우리 문학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기쁨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한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다시한번 세인을 경탄시키는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 올렸다.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주의현실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새롭고도 무거운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천리마운동의 시대정신을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야 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눈부신 속도로 내달리는 천리마의 시대정신을 미처 따라서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실발전과 문학예술창조사이에 나타난 이 차이를 심오히 통찰하시고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의 강령적교시를 주시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현실주체작품 창작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보다도 현실에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작품이 더욱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시인들은 천리마시대에 맞는 현실주체창작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천리마현실이 낳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노래한 감동적인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정서촌의 서정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 오영재의 서정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 집체창작가사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와 같은 작품들은 문학이 자기 민족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할수도 있으나 오늘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직접 노래하는 때 얼마나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 시인들은 바로 자기 시대의 인간성격과 자기 시대 사상감정의 아름다움을 적극 탐구하여 전형화하는 현실주체작품창작을 통하여 현실보다 과거에 더 낮을 돌리는 낮은 창작태도를 없애고 시대를 선도하는 작가로서의 자기들의 자세를 똑바로 취할수 있게 되었다.

만일 그의 목에 붉은넥타이를 매여준다면
소년단원포래와도 흠없이 섞일수 있는
어리고 작은 그 가슴에
안아일으킨 땅이 너무도 넓습니다

...열아홉해, 조국의 흙을 밟고 자랐지만
다시금 처녀는 곰곰히 생각했더랍니다
수령님 주신 씨앗을 남김없이 묻기 위해선

그 많은 땅이 아직 너럭치 못한것임을...

서정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의 이 서정적주인공은 누가 과업을 주었거나 점수를 따져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른새벽마다 들판에 나와 땅을 일쿠고 씨앗을 묻는것이 아니다. 오직 새벽하늘의 별들만이 알고있는 이 처녀의 작은 가슴에 안아 일으킨 땅은 너무나 넓은것이였으나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기에는 그 많은 땅이 아직 너럭치 못하였던것이다.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시기 우리 시인들의 현실 체험과 거기서 받아안은 시대적정서는 다양하고 폭이 넓었다. 그것은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주는 넓고깊은 감흥과 관련된다.

김순식의 서정시 《벽동계선장》, 오영환의 서정시 《패청한 날》, 최승철의 담시 《기쁨의 담시》 등 작품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주제창작에서 우리 시문학이 새로운 자기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인 전쟁책동을 추구함으로써 세계도처에 새 전쟁의 어두운 구름이 떠돌기 시작한 정세의 변화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수립에 도움을 줄수 있는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밝혀주시었다.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의 작품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특히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이다. 그것은 이 주제의 작품들에 항일의 혁명선열들이 지니였던 그런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이 빛나게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해방후 우리 시문학은 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하여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넣어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정신으로 무장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조성된 정세는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의 작품창작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정서촌의 서정시 《날이 밝는다》, 김재화의 가사 《눈이 내린다》, 석광희의 가사 《오, 눈보라 눈보라》 등 작품들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빛나는 해답을 준 대표적시가 작품들이다.

1.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빨찌산이야기로 이 밤도 깊어가는데

불밝은 창문가에 흰눈이 내린다

2.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밀림의 지나긴 밤을 못잊어 차마 못잊어
함박눈 송이송이 고요히 내린다

3.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녀원 꽃핀 강산에
이 밤이 지새도록 흰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눈내리는 보통날 저녁의 평범한 생활적계기를 깊은 사색속에 시의 형상적세부로 훌륭히 시화한 가사의 정서는 오늘의 행복과 항일의 그날을 예술적인 함축으로 빛나게 결합시켜 사람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준다. 빨찌산의 이야기로 깊어가는 밤 송이송이 내리는 흰눈은 항일의 그날에 수많이 지새운 밀림의 긴긴밤을 차마 못잊어 내리는 눈송이이다. 하여 가사의 정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고도 조용한 철학적명상속에서 항일의 그날을 그려보게 하며 숭고한 혁명적서정의 세계에도 이끌어간다.

이 시기 우리 주체적시문학에서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참을수 없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끝장내고 조국을 기어이 통일할데 대한 뜨거운 녀원을 담은 박산운의 서정시 《청계천에 부치여》, 오영재의 서정시 《복수자의 선언》과 같은 반미투쟁정신이 깃든 조국통일주제작품들도 창작되었다.

우리의 해방후 시문학의 40년 력사에는 또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높은 정치적자각을 안고 당과 수령과 조국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높은 흠모와 충성, 민족적궁지를 감동적으로 노래한 시가작품의 의의있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재일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해외교포운동방침과 은혜로운 햇빛아래 재일동포들속에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며 조국의 통일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투쟁을 고무하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직접 이바지하는 자랑찬 창작의 길을 걸어왔다.

한덕수의장의 가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 《아들자랑 딸자랑》, 허남기의 서정시 《찬가》, 남시우의 서정시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시가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재일시인들이 자기들의 창작활동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작들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끊임없이 개화발전하여온 그동안의 우리의 시문

학은 인민대중의 정신적양양의 시기에 놓인 시문학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들 때 과거문학의 력사에서 흔히 말하던 그런 발전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높은 개화발전을 가져온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발전해온 우리의 주체적시문학의 력사는 그를 낳은 현실이 그리하였던것과 같이 시가사의 견지에서 보아도 몇세기를 주름잡아 걸어온 자랑스런 시문학의 력사이다.

2

해방후 주체적시문학의 40년의 력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시기 위하여 전당, 전군, 전민을 3대혁명수행으로 힘차게 불러주시고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사상전선의 영예로운 초병으로 내세워주신 그때로부터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왔으며 자기 발전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주체가 더욱 튼튼히 선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봉우리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사업을 직접 손잡아 이끌어주신 때로부터 이 땅우에는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를 위한 우리 식의 문학예술리론을 확립하고 실천에 구현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나갈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문학예술의 사명과 의의에 대한 높은 평가에 기초하시여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통하여 우리 식의 문학예술리론을 확립하시고 그를 실천에 구현하심으로써 주체적시문학의 력사에서 일대 양양기를 가져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어 인간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더욱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는 오늘 우리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

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관에서 행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며 사람들에게 혁명관이 옳게 켜는가 안켜는가 하는것은 특히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다하는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줄 아는 사람이 주체의 혁명관이 바로 선 참다운 혁명가라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오는 시기 주체적시문학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한 혁명적 수령관의 시가작품을 새로운 높이에서 창조함으로써 송시, 송가 문학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첫째가는 원칙적요구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인간학은 자기 형상의 중심에 사람일반이 아니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자주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내세우며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혁명적수령관을 그릴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시문학이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된다는것은 무엇보다 그 서정적주인공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고 격조높이 노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시대의 새로운 송시, 송가 창작에 대한 우리 식 문예리론을 확립하시고 시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시, 송가 창조의 빛나는 리론실천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노래와 시는 허공에 띄우지 말고 폭이 있으면서도 생활이 있고 정서가 있게 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신다는 사상을 관통시켜 작품이 소박하면서도 친근하게 안겨오게 해야 한다.

우리 시인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과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본보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축원의 노래인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창조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가 없는것이 제일 가슴아픈 일이었던 우리 인민들의 숙원을 빛나게 해결한것으로

서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충성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것이다.

가사 《충성의 노래》, 《수령님 밤이 펴 깊었습니 다》, 서정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장 시 《설레여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 등 작품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안아오는 시기 송시, 송가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작품들이다.

아, 찬비속에 안고오신 사랑이여서
받아안은 사랑이 이렇듯 뜨거웁고
찬눈을 맞으시며 안겨주신 행복이여서
우리는 행복이 이렇듯 눈물겨운가

그래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수령님 생각
행복한 순간이면
행복에 겨워 수령님 생각

서정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는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낮과 밤을 이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하여 우리는 우리모두의 행복이 크면클수록 더욱 잊을수 없는 수령님 생각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을 친근한 정서와 세련된 시적운물속에 감동적으로 노래하였다.

서정서사시 《아, 우리 수령님》의 시인은 언제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들을 잘 이끌어주시어 모든 일이 잘되니 진감도 넘으신 수령님께서 농장걱정이랑 더는 하지 마시고 쉬셔달라는 한 녀성관리위원장-서정적주인공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흠모의 정을 노래함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감정을 반영한 우리 시문학의 경지를 새로운 높이로 발전풍부화시켰다.

이렇듯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부터 자기의 참다운 주체적시문학의 발자국을 떼기 시작한 우리 시문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송시, 송가 창조의 높은 시기를 맞이한것은 극히 웅대한 일이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정중히 모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를 우리러 우리 시인들이 오늘의 벽찬 현실을 더욱 깊이 체험함으로써 그들에게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마를줄 모르는 신뢰와 흠모의 샘이 생기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 김철은 서정시 《만수대》에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모셔진 조선의 만수대야말로 곡절 많고 갈길 몰라 모대기던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과거를 총화짓고 정치적삶의 참된 새

출발을 안겨주는 인간송가의 거룩한 령마루로 된다고 소리높이 노래하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시기 주체의 혁명관의 시문학으로서의 우리의 당적이며 혁명적인 시문학은 그의 핵을 이루는 혁명적수령관 형상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을뿐만아니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당과 수령을 따라 충성의 한길로 변함없이 걸어나갈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사상감정을 노래한 빛나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바로 리정술의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리덕조의 가사 《당중앙의 불빛》, 전동우의 가사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김철의 서정시 《어머니》 등 작품들은 당과 수령을 변함없이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의 길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일 인민들의 뜨거운 신념을 깊이있는 시형상속에 노래하고있다.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당을 사람이면 그 누구도 영원히 따르며 그 자애에 안겨사는 다심한 어머니라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당을 어머니라 노래한 시들은 우리 시문학에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시인이 어떻게 비유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는가에 따라 그와 같은 매개 시편들의 가치가 규정된다. 시 《어머니》의 작가는 그 사색적이면서도 정다운 목소리로 친근하게 노래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사람의 감정론리에 맞게 그 흠모심을 터뜨림으로써 당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더 감명깊게 표현할수 있었다.

2. 북만원정을 헤쳐온 투사도
힘한 락동강 넘어온 전사도
당중앙을 받들어나가는 길
걸음마다 승리로 빛내가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

가는 앞길엔 노을이 불타고
천만심장엔 충성이 불타네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대를 이어 따라갈 천만리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는 북만원정의 길을 헤쳐온 로투사도,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을 헤쳐온 전사도 모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의 새벽길을 헤쳐왔던 그 정신, 그 자세로 오늘은 당과 수령님을 영원토록 높이 모시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 우리 시대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 신념을 깊은 철학적사색속에 노래하고 있다.

당을 영원히 따르려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시대적감정은 시집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1~8)를 비롯하여 이 시기에 창작된 수많은 가사들에서 여실히 표현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방침과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감동적으로 노래한 송시, 송가 작품들과 당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감정을 노래한 시가작품들은 시정신의 철학적심오성과 형상의 장중한 양상으로 하여 오늘의 우리 사람들을 숭고한 공산주의혁명정신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자기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다.

시문학은 생활과 인간성격을 묘사하는 문학이 아니라 생활에 의하여 환기된 서정적주인공-시인의 감동적인 시대정신을 토로하는 문학, 다시말하여 주정토로의 문학이다. 때문에 시창작에서 서정성과 운율을 강화하는것은 시문학의 존재자체와 관련된 본질적문제이며 시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를 조건짓는 관건적고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미학적요구와 사상혁명수행에서 시문학이 높아야 할 중요한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초하시어 주체적시문학의 사상에술성을 높이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으로써 그의 질적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주체적시문학의 질적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서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들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을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작품의 사명은 생활을 서정적방식으로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서적체험세계를 풍부화해주고 그를 통하여 우리 시대 인민들의 념원과 의지, 신념을 비롯한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서정을 통하여 받아안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현실을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작품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는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며 묘사가 아니라 운물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학이므로 그의 풍부한 정서도 운물을 강화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시문학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서 그의 서정성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운물을 살리고 산문화를 극복하는것이 현시대 시문학앞에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제로 된다는데 대하여 심오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어작업에서는 시어를 잘 골라내는것과 함께 음악적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시에 운물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명철하게 밝혀주신 주체적시문학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인의 현실에 대한 정서적체험을 강화하여 그의 서정성을 풍부화하며 운물을 살림으로써 산문화를 극복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시인들의 창작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불멸의 리론적 재부로 된다.

서정과 운물-이것은 우리 시문학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자기 창작에서의 기본고리이며 우리 시문학이 점령해야 할 중요고지이다.

김상오의 서정시 《나의 조국》, 김우협 of 서정시 《언제나 조국과 함께》, 리택의 서정시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 백인준의 서정시 《조국에 대한 생각》을 비롯한 최근년간에 창작된 당과 조국에 바쳐진 작품들만 들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서정과 운물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이 우리 시문학의 질적발전에서 얼마나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동구밖 오리나무술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출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볼에 덩굴던 어릴적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서정시 《나의 조국》은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어찌하여 그토록 어머니같이 정답고 귀중한 것이며 살아도 그 품속에 살고싶고 죽어도 그 품에 묻히고싶은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인가를 자기의 생활적이며 사색적인 풍부한 서정성과 순탄한 운률적 시문장속에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조국애의 감정을 가슴뜨겁게 안겨주었으며 서정시문학의 매력을 과시하였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의 철학적깊이와 우리 현대 자유시의 품위있는 운률적미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시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중요한 요구로서 다양하고 짧은 생활적인 시를 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시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부화하시고 그의 질적발전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불멸의 기여를 하시었다.

시는 인간들의 시대적감정의 정수를 집약화하여 노래함으로써 짧은 형식속에 큰 사상을 표현하는데 그의 본성적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의 가치는그 길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서정에 담긴 사상과 감정의 크기에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발전풍부화된 우리 근로자들의 정서생활의 요구에 맞게 시를 다양하고 짧게 생활적인것으로 쓸데 대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의 실현을 위한 길로 우리 시인들을 따 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사회주의현실을 다양한 측면에 걸쳐 집약화하여 노래한 새로운 생활적인 시작품들은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정서생활에서 사랑받는 길동무로 되고있으며 주체적시문학의 새로운 비약을 약속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나게 밝혀주신 시창작에서의 풍부한 서정성과 세련된 운률, 짧고 생활적인 시양식의 다양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시대 주체적시문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새로운 날개를 돋혀준 불멸의 기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시대가 노래-가사문학앞에 제기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일찌기 명가사, 명곡 창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우리 가사문학의 발전을 현명하게 령도 하심으로써 이 땅우에 명곡풍년의 새시대를 안아오 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창작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거대한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명가사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를 밝혀 주신 그때로부터 우리 시문학에서는 수많은 명가사가 창작되였으며 명곡풍년이 도래하였다.

가사는 그의 기능으로 하여 시적으로, 형상적으로 되여야 하는 동시에 알기 쉽고 부르기 험해야 하며 시기성과 향구성이 통일되여야 한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명가사창작의 리론에 기초하여 우리 시인들은 수많은 새로운 송가작품들과 주체의 혁명관을 노래한 향구적의의를 가지는 가사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었으며 전병구의 《잊지 못할 삼일포의 메아리》, 최희건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박운의 《내 삶이 꽃피난곳》 등과 같은 빛나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당, 전군, 전민을 3대혁명수행으로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시인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감정을 노래한 시가작품의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었는바 주체적시문학의 사상예술성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서정시와 가사의 다양한 창작성과들은 우리 시대 자주적 인민의 주도적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한 주체적 시문학의 40년 력사가운데서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해방후 40년동안의 주체적시문학의 력사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신뢰와 충성의 감정을 가슴뜨겁게 노래한 공산주의시문학의 자랑찬 력사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류사가사의 력사를 주름잡아온 참다운 인민적이고 사실주의적인 시문학의 력사이다.

이 시문학의 귀중한 창조물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앞으로의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도 자기의 시대성과 향구적의의로 하여 힘있는 사상정신적무기로 복무할것이며 민족문화의 보고 속에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김정일동지는 세계인민들의 행복

이디 애스. 카지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조선인민의 행복
세계인민들의 행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였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백두산에서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였어라

위대한 태양의 주체의 빛발을 받아
2월의 향도성은 전세계를 환히 비치며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가시나니
아 해와 별 빛나는 나라
세계 혁명적인민들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조선이여 그대는 그 찬란한 빛발아래
얼마나 행복한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수억 수천만 인민들을 이끌어가고계시나니
세계의 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은
또 얼마나 행복한가

세계혁명의 승리 세계의 자주화는
오직 그이께 달려있노라
그이의 만수무강은 인류의 행복이거늘
우리 탄자니아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그이께 만수축원의 인사 삼가 드리노라

(필자는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도서관 직원임)

김정일동지 그이는 위대한분

오마리 엠. 하싸니

찬란히 빛나는 별
온 누리를 밝게 비치고있거늘
그 별은 가장 귀중한 별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성이여라

그 별 조선에 비치여
온 나라가 밝아졌거늘
정녕 그 별은 위대한 향도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라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분
그이는 경애하는 주석의 영명한 후계자
인민의 존경을 받으시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나니
진정 친애하는 그이는 탁월한 지도자이시여라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으로 미래를 밝혀주시고

인민들에겐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조선을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일떠세우
시였어라

친애하는 그이를 높이 모신
조선의 기쁨
세계의 기쁨 끝없어라

세계인민들은
그이를 희망의 태양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우러르나니
공산주의 새날을 위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여라

(필자는 탄자니아사람임)

삶의 은인

리정술

소원

이른봄 붉게 피는 진달래야
네 먼저 피여주렴 당중앙 정원에...
만리향의 그윽한 꽃향기야
네 먼저 풍겨주렴 당중앙 창가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잠시라도 널 보시며 기뻐하시게

금강산의 구룡연 폭포수야
향산천의 정갈한 물소리야
절묘하고 아름다운 네 모습
남먼저 펼쳐주렴, 그 창가에...
그이께서 일을 보시다가
잠시라도 널 보시며 피로를 푸시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 창가에 다 펼치고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노래를
그 창가에 다 울리어
친애하는 그이께서
늘 기쁨속에 계실수만 있다면...

아, 아침에도
한밤중에도
언제나 간절한 우리의 이 마음
하늘에 넘쳐 만리에 끝없고
땅우에 꽃피 만리에 설레는구나

사랑의 친필

쿵 쿵...
내 심장의 박동소리
벽시계의 초침처럼
정숙한 방안에 차넘치고...

눈에는
물안개 뿌얹게 서려
나는 선뜻 읽지 못한다
위대한 사랑의 친필을...

그러자 한없이 인자하신 영상
나를 굽어 미소하시고
그이의 활달하신 필체가
온 방안에 가득차는듯...

-우리가 고친 가사를
작가와 합의해보시오

아, 이 땅의 모래알같은
한 평범한 작가가

대관절 무엇이기에
의견을 물으시는것일가

그 승엄한 뜻과
그 위대한 진리의 글발을
이름도 없는 나에게
보여주시다니 ...

인민을 위한
천품을 타고나신 그이 아니시고야
어찌 이처럼 겹쳐하시랴
어찌 이처럼 인자하시랴

그사랑 그 인품에 이끌리어
한자 또 한자...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읽을 때
나에겐 무수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 건축가를 부르시여선
이렇게 설계를 고치면 어떤가고...

한 작곡가를 만나시여선
이렇게 악보를 고치면 어떤가고...

공장에 가시여서도
농촌에 가시여서도
허물없이 의견을 물으시며

인민의 새세상을 꽃피우시는

아, 그이는
정녕 위대한 어버이
그이는 인민을 위해
천품을 타고나신 절세의 위인이시여라

인 생 의 빛

화원속에 아름다운 꽃송이
가꾸는 손길이 있어 향기풍기듯
인생의 빛도
이끌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은인의 손길이 있어 빛나도다

조각가의 섬세한 색깔도
과학자의 놀라운 발명도
세상에 소문난 명인들의 이름도
저 홀로 스스로 빛나는것 아니여라

당에서 주는 믿음이 있고
당에서 내세워주는 손길이 있어
남모르던 그 이름 그 명예도
누리에 혜성처럼 빛나는것이니

만약 그 손길 밟는다면
순간에 불꺼진 암야와 같이
그 색깔은 빛을 잃고
그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지리라

파도와 기슭

해당화 붉게 타는
조국의 기슭을 못잊어
하루에도 수백번
파도는 밀려오고 밀려가누나

구슬같은 흰 물방울 날리며
잔조로운 목소리로 청얼거리며
기슭을 어루만지다가는
해당화 꽃잎안고 밀려가누나

파도야, 파도야
너를 보니 내 모습 떠올라
때없이 자주
너를 찾아오나니

무엇이 다르랴
어머니당의 품 찾아가
말 못할 사연도 아뢰고 돌아가고
또다시 그리워 찾아가 안기는

파도는 나
그 기슭은 당의 품
순간도 서로 떨어져 못사는
어머니와 아들

그래서 오늘도
기슭은 파도를 부르고
파도는 그 품을 못잊어
찾아가 안기고 또 찾아가누나

한 걸음

평범한 날엔 다 몰라도
준엄한 날엔 다 알게 되리
인간의 한걸음이
그 얼마나 값높은가를...

폭탄이 튀는 전쟁마당도
평범한 날에 행진해가듯
동요없이 곧바로 걸을수 있는
그 한걸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설한풍 몰아치는 백두산야에
눈깔고 누워잔 항일투사들
그리운 집이 없고 반기는이 없어
스스로 고행의 길 택하였던가

탄우가 비발치는 고지를 향해
열걸음... 백걸음... 달려간 리수복영웅
그에게 청춘이 귀중치 않아
불뽕는 적의 화구 몸으로 막았던가

옆으로 걸으면 살수도 있고
뒤로 걸으면 부귀영화도 있지만
어찌하여 사람들은
곧추 한길로만 가는가

오, 한걸음
인생의 한걸음
그 한걸음에 영원한 수치도 있고
그 한걸음에 영원한 영광도 있어라

영원한 기억속에

불밝은 당중앙청사에
이따금 걸려오는 전화종소리
그러면 그이께선
기억속에 불러주신다
그 일은 그 동무에게 맡기라고
그러면 해낼거라고...

파도높은 간석지
백리 제방을 걸으시면서도
철의 기지 붉은 노를 바라보시면서도
그이께선 말씀하신다
그 일은 그 동무들에게 맡기라고
그러면 해낼거라고...

아, 언제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여
위대한 령도자의 믿음속에
빛나는 삶이여

전사로 살아
가장 값높은 삶은
그이의 기억속에 사는것이고
가장 값높은 칭호는
그이의 믿음을 받는것이니

전사의 한생
오래 살아 빛나는것 아니여라
순간을 살아도
그이의 기억속에 살 때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비내리는 진펄길 걸어갈 때
그이께서 먼저 불러줄수 있는 사람
침침 산밭을 넘어야 할 때
그이께서 대오앞에 세워줄수 있는 사람

한걸음 걸어가도
그이의 의도대로 살고
천걸음 걸어가도
그이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 언제나 그이께서
자신처럼 믿어주시고
어데서나 그이께서
기억속에 내세워주시는
충직한 전사가 될 때

오늘도... 래일도...
그이께선 다정히 불러주시리라
그 일은 그 동무에게 맡기라고
그러면 해낼거라고...

당에 드리는 노래

리효운

당이어, 그대 은혜로운 품에서
다시 태어난것은
해방된 조국땅에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던
화창한 첫봄이었어라

머슴살이 고역의 멍에 벗어던지고
오랜 세월 피눈물로 얼룩진 땅
분여받은 그 땅을
새삶의 보습으로 갈아엎으며
나는 온 뉘으로 느꼈더라
아버이장군님의 은덕을 당의 사랑을...

희뵈히 밝아오는 새벽길을 걸으며
이 나라 낡은 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당의 결정을 가슴속에 새겨가는 그 나날에
나는 계급의 심장으로 알았노라
당이란 무엇인가를...

담이어
어려운 투쟁의 험난한 길에서
그대는 주인된 삶의 참뜻을 심어주고
새로운 인생의 큰 날개를 돋쳐주며
수백만 동지들의 대오에 세워주었노라

그대 자애로운 품이 아니었더라면
이 몸은 굴러떨어졌으리
길가의 막돌처럼
협악한 세상의 진탕속에

그대 손길 몰랐다면
생의 참뜻도 투쟁의 노래도 모르고
고민과 절망의 캄캄한 나락에서
운명의 노예로 허덕이고있으리

위대한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조국도 인민도 혁명도 안중에 없이
목숨은 불었어도 가련한 존재로
값없는 한생을 끝맺었으리

오, 영광스러운 당
그대는 나의 심장에
티없이 맑은 피가 넘치게 하여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대의 아들로 키워주었노라 !

조국 위해 산도 떠옮기고
인민 위해 바다도 가르는
크나큰 지혜와 신념
끝없는 슬기와 용맹을 주었노라 !

나에게 청춘이 약속하니
그것은 그대가 준것
그대는 나의 귀중한 모든것
나에게 붉은 심장이 뿜이니
그것은 그대가 준것
그대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 어머니당이어
그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자애넘친 그대 품에 아들딸로 안겼기에
불타는 전선에서 결사대가 되었노라
주체시대 기념비 세우는 돌격대로
언제나 돌파구를 열어왔노라

영광스러운 당이어
그대 우리앞에 주체의 기치를
영원히 휘날려 향도하며
풍만한 주체의 자양분을
어머니 젖줄기로 부어주고있노라 !

그대에게 운명을 의탁한 이 몸
언제면 전사된 도리를 다하랴
천번 다시 태어난대도 그대에게
고스란히 바치리라
그대 또다시 원쑤 치는
준엄한 불비속을 뚫고나가라면
이 뜨거운 심장도 깨끗한 량심도 !
그대 부르는 주체위업 성스러운 한길에

대담한 공격정신 나래치는 바다기슭에서

안병모

나라의 현대적인 대형집배무이기로 이름난 청진조선소는 동해의 맑은 물이 쉬임없이 밀려와 처절쩍이는 청진항의 한복판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펼쳐져있었다.

여기 배무이공들의 뚫어번지는 혁신적기상은 아침출근길에서부터 느껴졌다.

넓게 트인 큰길이 꼭 메이게 끝없이 흘러드는 자연거대렬이며 출퇴근용빠스들, 복을 올리고 나팔을 불어대며 혁신자들과 배무이공들을 축하하는 청년기동예술선전대원들, 대담한 공격정신을 안고 요즘 새로운 위훈을 떨치고있는 배무이공들의 기적적인 소식을 알리며 구내를 돌고있는 방송차 방송원의 야무진 목소리...

공장정문으로 끝없이 흘러드는 대오속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빛나는 위훈을 새겨왔고 펼쳐가는 나이 지숙한 배무이공들과 재능있는 기술자들, 젊은 제대군인들의 모습도 볼수 있다.

우리는 그들속에서 이곳 조선소의 현대화실장 김동운동무를 만나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 그와 함께 조선소구내로 발걸음을 옮겼다.

구내에 들어서니 길양옆으로 대형속보판들이 주련이 서있다. 힘찬 글발로 씌여진 속보들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이곳 조선소를 찾아주셨던 실무지도 한뼉을 맞은 이곳 로동계급이 그이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배무이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현대적인 대형집배들을 련이어 무어내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이 소개되어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제나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기백있게 일할수 있으며 대중이 왕성한 의욕과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투쟁해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여 선체제관직장에 이른 김동운동무는 지난해 영광스럽게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이야기부터 들려주었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나라의 조선공업의 실패와 그 발전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꿰뚫어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형집배무이에서 보다 큰 비약을 이룩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이곳 조선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조선소안의 여러 직장들과 배무이현장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현지교시 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여기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일 먼저 들리셨던곳입니다. 이 선체제관직장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드넓은 직장안을 단번에 훑 둘러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자동철관절단기운전공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고 겨울에 춥지 않는가, 자동절단기불빛에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가고 다정히 묻기도 하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우리 배무이공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듯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조선소치고는 아주 규모가 째이고 공장이 깨끗하다고 못내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청진조선소는 멋있는 공장이라고 과분한 치하까지 주시였습니다.》

뜻임을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오는듯 뜨거운 격정이 어린 그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다.

달아오르는 마음을 안고 둘러보니 주체공업의 위용이 가슴뿌듯이 안겨오는 직장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저절로 시원해지고 가슴이 탁 트이게 바다처럼 펼쳐진 제관장, 머리를 들면 육중한 배무이제관물토막들을 들고 여기저기서 우르렁거리며 오가는 천정기중기들, 두터운 철관을 자르고 구부리느라고 용을 쓰며 돌아가는 철관절단기들과 벤징그로라들의 웅글은 동음... 기계들의 숲을 이룬 무산광산의 제2선광장이며 김책제철소의 압연장들을 이미 돌아본 우리들이지만 눈썹리 아득히 펼쳐진 이 《기계바다》앞에서 감동과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선체제관직장을 다 돌아보고난 우리는 배조립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곳 배무이조립장에 찾아오시여 몸소 이름을 지어주신 대형집배 《비류강》호를 완성하여 물에 띄우고 불과 석달남짓한 사이에 대형집배 《청년철산봉》호를 련이어 물에

떠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감사문까지 받은 이곳 배무이공들은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어 또하나의 새로운 대형집배를 조립하느라고 세찬 용접불꽃을 날리고있었다.

배조립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수백톤에 달하는 대형문형기중기였다.

힘장수마냥 어마어마한 두발을 뻗치고 거연히 서있는 《자력갱생》호대형문형기중기! 떠가던 구름도 허리에 감길듯 하늘을 치받아 높이 솟은 대형문형기중기의 웅장한 모습에 이끌리어 우리는 고개를 젖히고 가까이로 다가갔다.

마침 설비점검이 끝난 뒤여서 책임운전공 김봉조동무를 비롯한 운전공들이 기중기에서 내려와 작업준비를 하고있었다.

김봉조동무는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날렵한 사람이었다. 말을 할 때면 진한 눈섭아래 어질어보이는 큰 눈을 자주 습벅이군하였다.

《선체체관직장을 다 돌아보시고 저희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우리 운전공들을 대견히 바라보시면서 500톤 문형기중기를 한번 운전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오매에도 뵈고싶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우리들이 만든 대형문형기중기의 작업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으니 우리 운전공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세차게 울렁이였습니다. 보통때에는 두세번씩 쉬어서야 올라가던 근 70여미터의 높이에 있는 운전실에 단숨에 오른 우리들은 높뛰는 가슴을 애써 달래며 조종단추들을 눌렀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난 그는 그날의 흥분이 되살아오는듯 두눈을 습벅이며 숨을 몰아쉬더니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조종단추를 누르자 하늘을 떠이고 산악처럼 뻗디디고 서있던 육중한 대형문형기중기는 동체를 떨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지심을 구르며 궤도를 따라 움직이던 기중기는 멈추어서기도 하고 수백톤에 달하는 엄청난 배토막들을 마치 장난감다루듯 이리저리 들어옮기였다.

참으로 장쾌한 모습이었다.

허리에 손을 가볍게 올리신채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 광경을 이윽도록 보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 선물로 만든 대형문형기중기가 사진과 신문에서 보던것보다 더 멋있다고 하시며 이런 기중기를 자체로 만들어 대형집배를 몇대의 큰 토막으로 무어 조립할수 있게 한것은 배무이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치하하시며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저희들이 해놓은 일이야 별로 큰것이 아니지요. 당의 크나큰 배려속에서 대학을 졸업한 우리들에게 대담한 공격정신을 안겨주신분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설계를 완성하고 기중기를 만들도록 이끌어주신분도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십니다.》

별로 말수가 적고 자기 자랑이라고는 입밖에 내지 않을상싶던 김동운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대학을 나온 기술자들이 설계를 꽤잘게 했다고 높이 치하하신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는것이였다.

어찌 자랑하지 않을수 있으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기쁨은 인민의 기쁨인데 그이께서 그로록 만족해하시었으니 여기 기술자들과 배무이공들의 긍지와 자랑이 가슴가득 넘치는것은 응당한것이 아니겠는가.

소박한 마음이 담기고 충성심이 어린 운전공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청진조선소를 나라의 강력한 현대적인 대형집배무이기지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곳 배무이공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나날이 감회깊이 떠올랐다.

잊을수 없는 1954년 7월 1일,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전후 재더미를 헤치시며 처음으로 청진조선소를 찾아주셨던 그때는 나뭇배한척 변변히 못지 못하던 보잘것없는 일터였다.

하건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30년의 긴 세월이 흐른 오늘 현대적으로 훌륭히 꾸려진 조선소를 돌아보시면서 이곳 조선소를 처음 찾으셨던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전직후인 그때는 여기에 벽돌집 몇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이 많이 일떠서고 공장이 규모도 있고 환경정리도 잘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현명한 령도밑에 청진조선소는 얼마나 자랑찬 승리의 로정으로 줄기차게 달음쳐왔는가.

쑥대만 무성하고 다 허물어진 벽돌집 몇개만이 서있던 한산하기 그지없던 이 바다기슭에 선체체관직장, 기계가공공장, 단조프레스직장 등 현대적인 생산건물들이 숲처럼 일떠서고 1만톤이상의 대형배들을 진수할수 있는 횡진수대, 그 어디 가나 볼수 있는 대형기중기들과 권양설비들, 수백종의 기계설비를 갖춘 위력한 현대적인 집배무이기지, 나라의 본보기조선소가 튼튼히 꾸려졌다.

어찌 이뿐이랴.

조선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에서도

만들기 힘들어한다는 갑판기중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배의장품들을 자체로 만들고 칠갑과 용접봉생산기지, 배고무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컴퓨터에 의한 현도작업의 자동화와 철판절단작업의 자동화가 실현됨으로써 배무이공정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처음으로 이곳 조선소를 찾아주셨던 그때로부터 지난 30년동안 공업총생산액은 무려 61배, 기술자대렬은 40배나 늘어났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전변인가!

크나큰 감동에 휩싸인 우리들은 후더운 마음안고 멀지 않은 앞날에 완성되어 먼바다로 떠나갈 대형집배들이 가득 들어찬 바다기슭으로 나갔다. 6~7월이면 여기 북방에서도 무더운 계절이건만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녹록한 바다바람은 무등 시원한 감을 안겨준다.

우리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는데 작업복을 걸 옷처럼 걸친 나이 지숙한 사람이 다급한 걸음걸이로 마주향해 다가오고있었다.

김동운동무는 조선소 초급당비서동무라고 그를 우리에게 소개했다. 우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그는 방금 시에 회의를 갔다가 돌아와서 현장을 돌아보는길이라고 하면서 주인도 모르게 남의 집에 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절절한 목소리로 통을 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배우에 올라가서 시원히 바다바람이나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서 앞장서서 배우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를 따라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배우로 올라갔다.

배우에 올라서니 조선소구내가 손금처럼 한눈에 안겨오고 앞으로 환히 트인 아득한 동해바다가 수평선 저 멀리로 넓게 펼쳐졌다.

초급당비서동무는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에게는 래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바다기슭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편기슭에 한창 지붕공사를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는것이 배완성종합직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실무지도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편으로는 대형집배무이를 힘있게 다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소능력확장을 위한 건설을 벌리고있답니다. 이 두가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지난날에도 그러했던것처럼 당이 안겨준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련속 공격전을 들이대야 하지요...》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련속공격!

바로 이것이 오늘 이곳 조선소 로동계급이 지닌 만만한 투지이며 혁명적일본새이다.

우리는 이곳 로동계급의 그런 투지와 일본새를

가는곳마다에서 보고 느낄수 있었다.

주물직장에서는 현대적인 저주과유도로를 새로 창안제작하여 설치한데 이어 소형저주과유도로를 개조하여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었다.

이제 멀지않아 유색금속주조장이 완성되게 되면 현대적인 대형집배무이에 절실히 필요한 유색금속주조품들을 자체로 충족시키게 된다고 한다.

땃사슬직장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직장이 조업하면 환강절단으로부터 사슬용접완성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된 공정에 의하여 질높은 사슬을 생산하게 되면 이곳 조선소에서는 쓰고 남아 다른 조선소들에도 보내주게 된다고 한다.

조선소의 기계화에 필요한 설비제작을 맡은 직장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란을 벌리고있었다.

이들은 배완성종합직장과 추진기가공직장을 비롯한 조선소안의 여러곳에 놓아야 할 10여대의 천정기중기생산을 단번에 밀고나가면서도 여러종의 관도금설비, 칠감분공장설비들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완성해나가고있었다.

어찌 이들뿐이라.

《비류강》호와 《청년철산봉》호를 련이어 바다에 띄운 배무이공들은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받들고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얼마전에 새로 시작한 또 한척의 대형집배를 벌써 총조립에 들어서게 하였다.

배들의 완성작업을 맡은 직장들의 전투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체로 배완성에 필요한 부속품들과 부분품들을 해결하면서 짧은 시일안에 련속 4척의 대형집배를 완성하는 기적을 떨치였다.

가는곳마다에서 드세찬 공격전이 벌어지고 시간마다 혁신과 기적이 꼬리를 물고 창조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청진조선소의 로동계급, 바로 이 사람들이 조국의 이름난 산과 강들을 천리만리 대양에 떠옮기는 사람들이다!

《왕재산》호, 《창광산》호, 《문수산》호, 《령군봉》호, 《비류강》호, 《삼지연》호, 《염분진》호... 실로 얼마나 많은 대형집배들이 이름난 조국의 산과 강의 이름을 달고 이 바다기슭을 떠나갔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대담한 공격정신을 안고 련속공격전을 들이대며 만들어낸 현대적인 대형집배들이 대양을 넘나들며 주체조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칠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환히 안겨왔다.

래 풍

양익선

1

협의회가 일꾼들의 립장문제로 번져가자 회의는 자연 긴장한 분위기를 띠었다. 현장기사 보옥은 지배인의 피로하고 무숙한 눈시울이 기계화직장장인 남편쪽을 향해 들리우는것을 보았다.

《그래 지배인이란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가만 앉았은것은 아니잖소?》

림성우지배인은 못내 답답한듯 책상우에 두터운 손바닥을 펼쳐보이며 입을 열었다.

《나도 가능한 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소. 다름아닌 래일의 마감막이공사를 위해서말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침착하고 조용했던지 창밖 멀리에서 날아에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방안에까지 들려왔다.

정오의 태양아래 바다는 조으는듯 아득한 수평선 저 멀리까지 깊은 정적에 싸여있었다. 숨죽인 준첩선과 대형굴착기들, 바다로 뻗어간 길다란 동쪽… 간석지건설장정경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한쪽의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 정적속에 멀리서 날아에는 갈매기들의 흰 날개가 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해뜯거린다.

보옥은 이 고요가 가슴답답하게 느껴졌다. 아니 그보다는 이 협의회가 남편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고있는것이 못내 안타깝고 불안스러웠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래일부터 진행할 마감막이전투를 앞두고 온 사업소가 휴식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오늘아침 지배인은 방송에서 뜻밖의 태풍이 우리 나라 서해안을 향해 밀려오고있다는 예보를 듣고 마감막이전투를 다음 꺾이(바다에서 밀물이 제일 적어지기 시작할 때, 보름을 주기로 한번씩 온다.)때까지 미룰것을 간단히 협의하는것으로 모임을 끝내자고 했던것이다.

사실 마감막이공사는 방대한 간석지제방쌓기를 계속짓는 공사이기도 하거니와 공사전반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어렵고 간고한 공사이기도 하였다. 아득히 뻗어온 두개의 제방이 날바다 한복판 가장술고 깊은 물목에서 합쳐진다. 한개 군경지면적만한 구역안에 드나들던 몇십억톤의 방대한 물량이 집중된곳, 류속도 수압도 몇십배로 높아진 험한 개꺾에서 광란하는 바다의 명줄을 단번에 틀어쥐여야 하는것이다. 만약 여기서 한순간의 드림이 생겨 물꺾이 터지는 날이면 수백수천메터의 폭이 담벽처럼

무너지고 국가의 막대한 자금과 로력, 귀중한 설비들은 물론 때로는 피치 못할 인명사고조차 있게 된다. 자연의 거장인 거만한 바다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한치라도 오산한 인간들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하고 횡포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것이다. 하기에 바다와의 투쟁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은 공사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수 없는 의견을 절대로 내놓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기계화직장장인 남편이 지배인의 의견을 견결히 반대해나섰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된 궤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에서 부리부리한 눈을 번뜩이며 일어서군 하는 남편이었다. 어쩔수없는 그 성미때문에 보옥은 애가 타고 눈물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보옥은 지배인의 무거운 표정에서 지금 그가 얼마나 긴장하게 자체력을 발휘하고있는가를 읽을수 있었다.

《동무의 말이 옳소. <생활에서 안전한 굽을 찾는것은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의 소행> 이란말이지… 참 좋은 말이요.》

림성우지배인은 가슴속에 꿈틀 솟구치려는 그 어떤 격노를 쓰거운 미소로 눌러버리려는듯 두터운 입술을 이그러뜨렸다.

《하지만 철준동무, 책에서 따온것과 같은 그런 명구들을 아무데나 망탕 가져다붙이면 안되오.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예보앞에 낸들 어찌하겠나말요. 지배인이란 사람이 망탕 모험도 할수 없는 일이구… 그런 뜬소리만 말고 현실적인 대책안을 말해보우.》

《무슨 대책안이 더 필요하다고 그럼니까? 준비도 갖춰졌고 날자도 래일로 결정되어있는데…》 하고 철준은 책상모서리를 짚 움켜잡고 완강한 자세로 뻗치였다.

《다음 꺾이땐 장마철이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철준은 자기의 온몸과 심장을 감탕에 버무리 폭을 쌓더라도 당앞에 언약한 날자를 어길수 없다고 말하였다.

《태풍이 아니라 날바다가 통채로 밀려와 덮친다 해도 심장이야 뜨거운 본래대루 지니고있어야 할 우리들이 아닙니까.》

긴장한 침묵이 흘렀다. 지배인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몇몇 사람들도 헛기침을 짓거나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타를 필요이상으로 철켜거렸다. 지배인은

대책안을 물었는데 남편은 웬 똥판지같은 심장이 야기를 꺼내놓은것 이었다.

태풍은 수평선 멀리에서가 아니라 일요일 한낮의 정적속에 압축되어 이 방안에 가득찬듯싶었다. 보옥의 이마에선 진땀이 송골송골 돋았다.

더는 참고있을수가 없어서 그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 어섰다.

《저이는 말끝마다 심장 심장 하는데...》

앞가슴이 팽팽해지도록 몸을 앞으로 실리고 한껏 흥분해서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저르기 떨렸다.

《저는... 제 심장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사람은 공사의 운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뜨거운 본래대루 있자 해도 감탕속이 아니라 산 사람의 가슴속에...》

촉은해하는 눈길들이 보옥이한테로 쏠리었다. 흥분을 눅눅히듯 천천히 오르내리는 가슴, 글썽해진 보옥의 눈길에서 사람들은 그 어떤 벽찬 흥분과 녀성다운 심란한 마음을 읽었던것이다.

《마감막이공사가 사고없이 되자면 보름후 다음 꺾이때까지 미뤄야 합니다. 전 전적으로 지배인동지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는 서둘러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일어설 때처럼 상큼 주저않았다.

보옥은 자기를 마뜩지 않은 눈길로 쏘아보는 남편의 시선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별로 그것을 개의치않았다. 그보다는 긴장했던 방안에 한줄금의 소낙비라도 지나간 뒤처럼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회의분위기가 이쯤 되면 남편이 더는 엇서지 못할것이다.

허나 지배인이 회의를 결속지으려 할무렵에 철준은 병곳 웃으며 일어서는것이였다. 남편의 그 병곳 웃는 표정속에 담긴 지꼴은 성미를 잘 아는 보옥은 또다시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저런 웃음뒤에 어떤 엉큼한 행동이 뒤따를지 모르기때문이였다.

철준은 다짜고짜로 안해의 자기보신과 개심할줄 모르는 소심성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판쪽하달만큼 거치른 말투속에 그는 자기 할말을 다 걸어 넣었다. 잘 타산된 날자, 잘 타산된 정황... 오늘이 미타하면 또 후날로- 그래 바람 한점 없고 조금도 위험이 없는 날자에 가져다놓자는것이 과연 공사의 운명인가, 자신의 운명인가? 하고 그는 안해를 향해 따져물었다. 집요하게 눈길을 안해쪽으로 주고 나서 그는 당신이야말로 입으로는 공사의 운명을 운운하면서 결국 자기 운명의 안전성만 찾는 협애하고 소심한 기술일꾼이라고 비판하는것이였다.

《자기 운명이 튼튼히 담보된 날자, 그것만이 당신의 공사날자일게요.》

싫건좋건 협의회는 치열한 론쟁속에 휘말려들어가고있었다.

론쟁은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철준은 까치섬쪽에서 대형블록 수천매를 오늘밤중으로 실어오자는 통이 큰 안을 내놓았다.

《2백리밖에걸 어떻게 하루밤에 운반한다고 그러우?》

누군가 아연해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자주호〉 서른대를 몰고 내 당장 떠나겠소, 선박직장장동문 배들을 몽땅 동원시켜만주요.》

협의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역시 기계화직장장이 장훈을 부를줄 알거던, 합시다. 내가 직접 선단을 지휘해가지고 갔다오겠소.》 하고 선박직장장이 호응해나섰다.

그러나 지배인만은 물밑에 잠긴 배처럼 우울한 얼굴로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없었다.

(음- 자네한테 그런 능청스러운 수완도 있었군?... 자기 녀편네를 치는척하며 이 지배인의 뺨을 치구, 잔뜩 론쟁의 불길을 일으켜서는 협의회를 제의도대로 끌고가구...)

보옥은 지배인의 그 무거운 눈길이 남편을 향해 이렇게 비웃는듯싶어 얼굴을 붉히였다.

《선동사업은 그만하면 충분하오.》 하고 지배인은 눈시울을 내리깔며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아- 협의회를 이만 끝냅시다. 철준동무의 의견대루 마감막이공사를 원래계획대로 내밀자는 동무들?...》

절대다수 동무들이 찬성이요, 그럼 일찍들 돌아가서 눈들을 붙이시오. 힘겨운 전투를 위해서 쯤 쉬기도 해야 하오.》

사람들은 말없이 조심조심 흩어져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옥은 인차 자리를 뜰수 없었다. 그는 방의 구석에 서서 구원을 바라듯 글썽한 눈길로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허나 지배인은 앞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담배를 묵묵히 피워물고있었다. 창밖에선 다가오는 태풍에 대한 불안한 예감때문인지 보금자리에 들지 못한 갈매기들이 바다가를 날아며며 소란스럽게 울어대고있었다. 병곳 피어나는 담배불에 걸려버진 지배인의 폭 꺼진 안광이 눈에 띄였다. 그의 상념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보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채 조용히 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뒤에서 지배인의 궁글은 목소리가 운명의 선고처럼 그의 심장을 울렸다.

《보옥동무, 이제 다른 생각을 말아야 하오. 일은 이미 결정된것이요.》

태풍은 며칠후 마감막이전투가 거의 마감고비에 이르렀을 때에 들이닥쳤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지 않은 새벽녘이었다. 남서풍의 강한 바람이 산악같은 파도들을 방파제에 밀어왔다. 먹장구름장들이 걸핏걸핏 머리우를 스쳐 지나갔다.

보옥은 지배인과 함께 현장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광란하는 바다를 내다보고있었다.

온몸이 건뚫 들리우는듯한 공포 비슷한 전율이 보옥의 연약한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 공포의 한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서 녀인은 두눈을 지그시 내려감았다. 의지할데없는 똑우이지만 두발을 잘 번디디고 질풍의 첫순간만 극복하면 몸의 안정이 돌아온다는것을 보옥은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지배인이 옆에 서있는데서 그는 태동하는 새벽하늘의 음산한 공간을 침착하게 보려고 애쓰며 지그시 감았던 눈을 떴다. 허나 마음의 안정만은 되찾을 수 없었다. 형용할수 없이 엄엄한,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불안과 걱정이 이 질풍에 대한 감각과 함께 녀인의 가슴에 휘몰아쳤다.

갈가리 흩어진 구름발을 배경으로 갈매기 한마리가 섬쪽 어디론가 총알처럼 밀려가는것이 보였다. 어린 갈매기는 질풍에 날개를 뒤집히지 않으려 창공에서 몸부림치며 아츠르롭게 울어댔다.

《흥, 저 갈매기가 일을 치겠군. 제 보금자리에 가만 처박혀있을게지 이런 태풍에 어리석게 공중 날아보겠대구...》

지배인은 비난하는 눈길로 하늘을 훑어보더니 먼저 간다는 말도 없이 보옥이 옆을 떠났다.

보옥은 심장이 굳어진 사람처럼 그자리에 서서 공포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간석지건설장은 온통 침울하고 육중한 파도와 흰물갈기로 끓어번졌다. 대형준첩선과 굴착선, 자동부림배들이 서로 선체를 부딪치지 않으려 애쓰며 마감막이전투장에서 만들고있었다. 높이 들린 파도가 쇠붙이마냥 배전들을 때렸다. 물에 젖은 갑판들이 흔들리며 번쩍거렸다. 그 불안스러운 번쩍거림이 보옥이한테는 소리도 형체도 없이 연연한 자기 가슴을 이릿치는 채찍처럼 느껴졌다.

광란하는 하늘과 바다사이를 치달아오르듯이 아득히 뻗어간 제방쪽길은 그저 길이 아니라 인생의 도약대처럼 보였다.

남편이 주장하고 내디딘 길이였다. 그너머 험한 질풍과 노도가 울부짖고있었다. 오늘뿐아니라 언제나 남편이 택한 길에는 안정같은것은 없었다. 보옥

은 인연으로 맺어진 이 불안과 걱정으로 하여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았다.

웁-하고 귀뿌리가 울었다. 미친듯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의 몸에서 얇은 옷자락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갈듯 몸부림쳤다. 보옥은 저도 몰래 몸을 떨며 안정을 잃은 마음때문에 바다물에 당장 처박힐것만같아 두눈을 지그시 내려감았다.

때마침 《자주호》 한대가 옆에 와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질풍을 이겨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거물급의 푸른 차체가 담벽처럼 옆에 와 서며 연기와 후더운 디젤유냄새로 보옥을 휘감아 안았다.

운전실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보옥이 앞에 성큼 뛰어내렸다. 철준은 목을 길게 빼고 불룩한 옷센안에서 갈매기 한마리를 꺼내어 내밀었다.

《여보, 이 가련한 새를 좀 봐주오. 벼랑에 부딪쳐 날개를 상한것 같구려. 젠장, 그 주제에 갈매기라구... 채석장에 벌어져 푸드덕거리는걸 불쌍해서 주어왔소.》

주둥이가 말랑말랑해보이고 털이 눈부시게 하얀 나 어린 갈매기였다. 웬만한 바람세에도 깃털이 부시시 일어섰다.

질풍에 어지간히 혼이 난 모양인지 그 어린것은 밖에 나오자 동그랗게 뜬 눈을 도릿도릿 굴리더니 보옥이의 품에 황급히 주둥이를 틀어박았다.

《바람이 끝내 일을 치는군요...》

보옥은 젖가슴에 미치는 부리의 연연한 감각에 속이 다 찢릿해져서 말하였다.

《주둥이가 말랑말랑한게...》 하고 철준은 안해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보내며 놀리듯 말하였다.

《신통히 당신 비슷하오. 심장은 콩알만하게 줄아들고 두눈만 겁에 잔뜩 질려 울통해졌소...》

《여보! ...》

보옥은 억이 막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에는 걱정에 잠긴 자기를 위안은 못해줄 망정 그게 뭐냐는듯한 원망이 짙게 어려있었다.

철준의 얼굴에서 서글서글한 웃음기가 씻은듯 사라졌다. 그는 안해의 마음을 그대로 읽듯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위인은거녕...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줄 아오?》

눈확은 예없이 깊이 패워지고 얼굴엔 짙은 음영이 깃들었다. 목소리는 전혀 다른 남자의 목소리처럼 굳건해졌다.

《당신이 영문강기슭에서 내 팔에 매달려 가지 말라고 발을 구르며 때를 쓸 때 내가 왜 때려주지 않았던가 하고 생각하구있소. 어릴적에 그 버릇을 때렸으면 지금같은 꼴을 보지 않았을거라구말요.

여보, 나는 뭐 모든게 쉽고 마음이 편해서 헉헉 있는줄 아오?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위안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줘야 한단말요.》

철준은 보옥의 품에 안겨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갈매기를 멀리서 찬 눈으로 훑어보며 노여웁웁 참지 못하였다.

《흥, 날씨가 일을 친다구? 어리석지. 날개가 종이상같이 연약한타에 떨어져가지구서는! ... 여보, 그 어리석은 새를 어서 내 눈앞에서 멀찍이 가져가오!》

보옥은 이렇게 성이 난 남편을 처음 보았다. 물론 남편은 회의장이나 작업장,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놀려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자기를 귀해하는 즐거운 애무의 감정을 느낄수 있어서 별로 가슴아프게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엄격하고 냉혹한 질책만이 그의 목소리에 채찍처럼 비껴있었다.

그러나 보옥이가 갈매기를 현상치료실에 맡기고 오는동안 남편은 차문을 열어제끼채 기다리고있었다. 어느때 같으면 보옥은 거침없이 상큼 남편곁에 올라왔을것이다. 보옥은 남들의 눈이 없을 때 어린아이처럼 남편의 운전칸에 타고다니기를 좋아 했다.

그러나 오늘 남편이 기다린것은 그때문만이 아닌 것 같았다. 보옥이가 운전칸에 오르자 철준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집이 나오?》

보옥은 눈물이 글썽해져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쩐지 남편의 그 물음속에서 자기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리라는 무조건적인 신뢰감이 느껴지던것이다.

철준이도 갑자기 후더워지는 감정을 억제 못하듯 한팔을 뻗쳐 보옥의 어깨를 억세게 끌어당겼다.

《너무 걱정을 마오. 모든 일이 다 잘될테니까... 그리구 여보, 당신은 내가 너무 타산할줄 모르는 남편이라고 탓하지 마오. 물론 일군들이란 사업에서 타산이 밝아야지. 하지만 그 타산속에 자기 운명의 몫, 만약의 경우 언제나 자기 한몸 피해설 자리를 남겨놓고 행동하는 그런 인간으로는 되고 싶지 않단말요.》

철준은 걱정을 누르지 못해 말을 계속하였다.

《지금 우리 일부 일군들이 타산속에 자기 운명의 몫을 앞세우고있소. 그 타산이 귀중한 사람들의 심장을 녹녹하고 소심하게 만들고있단말요!》

《...》

《여보, 당신도 생각하겠구려...》 이윽해서 다시 울린 남편의 웅글은 목소리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영문강개끓에 오신 때 난 열한살적이었지. 당신은 여덟살이었구... 노을비긴 간석지구에 찍혀졌던 수령님의 발자욱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오. 우린 그 자욱을 밀물로부터 지켜내보겠다구 가슴밀이로 감탕을 그러모아 보잘것없는 뚝을 쌓았더랬지...》

《네, 네 알겠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뜻을...》

잊을수 없는 추억이 가슴사무치게 안겨와 보옥은 흥분한 얼굴로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는 어리광치는 마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해 남편의 가슴에 뜨거운 뺨을 부비다가 문득 숨을 죽이였다.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렸다. 옷섶을 뚫고 남편의 가슴에서 귀뿌리를 톡톡치는 억센 심장의 고동소리... 그것은 온 세상의 모든 음향을 가리우고 깊은 정적의 심연속에서 오직 보옥의 뱃속으로만 흘러드는 소리였다.

그 심장의 맥박을 타고 먼 유년시절의 영문강기슭이 떠올랐다. 감탕투성이 소년의 모습이 보옥의 가슴속에서 추억의 발을 구르며 일어서는것이였다.

그러자 그의 마음을 틀어잡고있던 공포의 감정은 씻은듯이 사라지고 눈물겹도록 행복한 감정이 녀인의 온몸을 휩싸안아주었다.

3

...이 나라 서해북변의 자그마한 섬에서 그들은 살았다. 덕배(철준의 아명)의 어린시절은 감탕판우에서 흘러갔다. 바깥노리까지 온통 감탕발림을 한 소년, 이것이 보옥이가 잘 아는 어린시절 덕배의 모습이였다.

소년은 남달리 주먹이 셋지만 제포래들속에서 뚝뚝쌓기놀음에 더 승벽을 부렸다. 뚝뚝쌓기놀음에서 이기면 소년은 너무 좋아 감탕발에 막 덩굴기도 하고 새까만 흙단지가 되어 경충경충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보옥이도 때로 자유분방한 사내애들의 놀음에 끼여들고싶은 생각에 그들결으로 가군하였다. 그때마다 제일 질통스럽게 구는것은 덕배였다.

《울보야, 넌 부엌에 가서 농어국이나 끓여!》

보옥의 어머니는 덕배를 아버지없이 자라는 불쌍한 자식이라 해서 조금이라도 빛다른 음식이 생기면 집에 데려다 푸짐히 먹이군하였다. 그중에도 보옥이 어머니가 끓여주는 농어국은 참 별맛이였다. 때로는 보옥이 자신이 김이 문문 나는 국그릇을 받쳐들고와서는

《덕배야, 농어국 참 맛있지 응? 그 농어국 내가 끓였다-아! ...》 하고 몸을 비비적꼬며 얼굴이 빨

개쳐서 말한적도 있었다.

질통스럽기 그지없는 덕배는 그런 일을 트집잡아 놀려대는 것이었다.

보옥은 새까만 눈으로 쏘아보며 웅얼거렸다.

《우리 집에 다시 오나봐!》

그러나 생활은 언제나 덕배한테 달려오는 것으로 운명지어져 있었다.

여름비가 축축히 휘뿌리는 류월중순 어느날 집으로 돌아오던 보옥은 희뿌연 물안개속 후미진 바다가에 기계배 한척이 정박해있는 것을 보았다. 흥떡이는 물결을 따라 배가 천천히 오르내리는데 비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갑판우에 가죽띠를 두른 위병대원 한명이 조용히 서있었다.

술은 감탕판이 유난히 겹겹 번들거리는 개굴쪽으로는 웬 발자국들이 점점이 찍혀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나?》

보옥은 비뿌리는 부두가에 나와있는 마을사람들 뒤로 다가가 어머니의 팔소매를 살그머니 잡아당기며 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저 영문강개굴을 건너가셨단다! ...》

눈곱에 맺혔다가 소리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조용하면서도 흐느낌섞인 목소리로 어머니는 대답했다.

《그게 정말이예요 엄마?!》 하고 보옥은 말하더니 다래끼를 벗어던지고 바다가를 향해 달려갔다.

《덕배야,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셨어! - 원수님께서 오셨어!》

환희와 기쁨, 까닭모를 초조함에 휩싸여 그는 멀리서부터 무릎굽을 들어 발을 동동 굴러댔다.

덕배는 감탕범벅을 한 얼굴로 우뚝 일어섰다. 두다리를 번디디고 두주먹을 짹 부르짖체 어쩐지 움쩍도 못하였다. 소년은 마치 자기앞에 보옥이가 아니라 번개와뢰성이라도 밀려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 모양이었다. 보옥이가 코앞에 들이닥쳤을 때에야 그의 손목을 비틀어잡고 두눈을 홉떴다.

《영? 너 무슨 소릴 하니?》

《아이참, 이런 멍청이 봐!》 보옥은 너무 안타까와 종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쳤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영문강개굴을 건너가셨대! -》

어느때라던 이런 말버릇, 이런 행동거지로 해서 어떤 보복인들 안받았으랴.

그러나 보옥은 두팔에 얼싸안겨 건넌들리웠다. 눈앞에서 하늘과 바다, 검은 대지가 빙빙 형클어져 돌이갔다. 보옥은 너무 부끄러워 발버둥치며 덕배의 머리와 어깨를 마구 두드려댔다. ...

먼 후날, 보옥은 소년시절의 때를 말쑥이 벗은 현

숙하고 압전한 녀인이 되어서도 그때의 일을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추억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성미 거칠고 자존심 강한 소년이 어떻게 자기를 얼싸안아 돌림을 시켜주는, 그 나이에 닿지 않는 엉뚱한 행동까지 하게 되였는가 하는것에 대해서도 놀랍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때의 그 정황에선 응당 있어야 할 생활의 화폭이었다. 몽클 솟구쳐오른 등그런 파도우에 흘날리는 눈부신 물갈기처럼 그들이 생애의 출발점에서 받아안았던 환희와 기쁨의 절정이었던것이다.

허나 보옥의 추억속에 이 환희와 기쁨의 절정은 뒤이어 들이닥친 안타까움이 덮쳐져있었다.

《덕배야 가지 마! -》

자기를 내려놓고 영문강쪽으로 달려가는 덕배를 향해 소녀는 부르짖었다. 한순간 보옥은 덕배의 어깨너머로 밀려드는 밀물의 흰 갈기를 보고 자기의 때늦은 소식이 가져다준 무서운 실책을 깨달았던것이다. 밀물이 들면 영문강개굴은 누구도 되건너올수 없는 바다속의 술은 강으로 되어버리고 그 건너진펄은 망망한 물결속에 흔적도 없이 잠겨버린다. 보옥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 덕배의 팔에 매달렸다.

《덕배야, 가지 마, 밀물이 들어와! -》

《와라! -》 하고 덕배는 소녀의 연약한 팔을 무자비하게 뿌리쳤다. 보옥은 감탕판우를 질질 끌러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옷자락을 붙들었다.

《밀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덕배의 얼굴도 험상스럽게 이그러졌다.

《너 정말 못놓겠니?!》

《덕배야 제발 가지 마! 내 농어국 끓여줄께 응? ...》

극도의 절망에 사로잡힌 소녀의 입에서 부지중 튀어나온 애원의 목소리였다. 밀에서 얼굴을 제치고 올려다보는 소녀의 얼굴엔 눈물이 비오듯하였다.

그러나 덕배는 막무가내였다. 안타까움에 젖는 눈물을 꺾뿌리며 그도 절망적으로 웨쳤다.

《싫어! 싫어, 싫어! -》

때마침 밀물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주지 않았던들 무슨 일을 저질렀을는지 몰랐다. 덕배는 주먹으로 감탕판을 치며 발자국옆에 펄쩍 주저앉았다.

서쪽하늘의 검은 구름장이 병긔 들리웠다. 망망한 수면이 번들거리며 밀려오고있었다. 동굴속같이 거무칙칙한 비구름속을 꿰치르며 황금해살이 곧장 그 거룩한 자옥에 쏟아져내렸다. 대지는 그 자옥을 받들어 부푸는 가슴처럼 우렷이 솟구치며 지열의 불그스레한 광택을 뽐고있었다. 수천수만년 짜디짠 바다물밑에서 질식되어가던 불모의 땅 간석지, 잠을 깨어 소생하는 첫 숨결의 벅찬 흥분이 지평선끝

까지 가득히 어리었다.

덕배는 황금빛광채속으로 사라져간 발자취를 바라보며 감탕관을 어루만졌다. 어쩐지 썩 부드럽고 연하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이 간석지에 나서 덩굴며 자라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상야릇한 감촉이었다. 그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어딘가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곳으로 흘러드는듯한 느낌에 소년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었다.

허나 차갑고 물인정한 밀물은 벌써 그의 주변으로 밀려들었다. 덕배는 거의 본능적으로 가슴밀이로 주변의 감탕들을 그러모아 발자국을 웅위하듯 짙을 쌓아나갔다. 자기 몸을 눕혀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심정이었던건만 밀물은 소년이 쌓은 보잘것없는 감탕무지를 너무도 쉽게 밀어던졌다. 흐릿한 물결이 덕배의 눈앞에서 살점을 에여가듯 그 소중한 자육 가까이로 한치한치 밀려들었다.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는 의분의 덩이가 몽클 솟구쳐올랐다. 그 어떤 항거와 격정의 충동에 못이겨 바다를 향해 맞받아나가며 두주먹을 머리에 흔들 어댔다.

《바다야 두고보자! 크고들랑 내 기어이 너를 막아버릴테다!》...

감탕발림의 별거숭이소년이 두주먹을 머리에 추켜들고 부르짖던 모습-이것이 보옥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진 남편의 모습이였다. 그의 팔소매에 매달려 절망에 발을 구르던 자신의 모습조차도 뜻을 기쁨과 걱정 속에 자기 인생이 영원히 받아안아 키워야 할 정신적태아와 같은것이였다.

그 녀의 태아가 자라서 오늘 광풍이는 제방쪽우에 서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어린시절처럼 팔소매에 매달려 가지 말라고 할수 없는 길, 제방이 뻗어간 저너머 멀리로 새벽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을 가리키며 보옥은 눈물이 글썽해져서 뜨겁게 속삭이였다.

《어서 가자요! 함께 저기로...》

그가 가리킨곳에선 온 건설장의 신념과 의지의 불길처럼 《속도전》의 붉은 기발이 힘있게 펴럭이고있었다.

4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격랑이는 바다와 마지막 격전을 벌리고있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찼던지 제방쪽우에 꽂아놓은 기발대들이 부러져나갔다.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쳐 사람들의 머리에 비발로 휘뿌려졌다. 호각소리, 웨침소리, 《결전의 길로》의 장중한 합창소리... 《자주호》 화물차들이 지축을 울리며 내닫고 여기저기서 굴착기바가지들이 이발

을 번뜩이며 익룡처럼 물속에 꺼꾸로 내리박혀 감탕흙을 물어올린다. 선전배머리에 올라선 방송원 처녀의 빨간 머리수건이 핵 벗겨져 불새처럼 날아나 이쪽 제방우에서 불로크조립을 하고있는 해병사 쓰바람인 청년의 떡판같은 가슴에 척 달라붙어 몸부림쳤다. 그는 방송배를 향해 그 머리수건을 흔들 어보이며 통쾌하게 웃어댔다.

《동문 뭘하는거요!-》 하고 지배인의 킁킁한 얼굴이 굴착기운전실시창으로 내다보며 거센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질풍속에서 갈기갈기 찢기였다.

《뭐라구요-지배인동지? -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청년은 손바닥으로 박쥐귀창을 해가지고 마주 소리친다.

(젠장 한마디두 통하지 않는군!)

지배인은 속이 타는듯 담배를 꺼내물었다가 불을 끌내 불어내지 못하고 바다물에 젖은 성냥갑을 쥔뿌렸다.

보옥은 둘러보았다. 쪽은 태풍속에서도 몸부림치며 전진하는 그 어떤 생명체로 변한듯싶었다. 대형 화물차, 준첩선, 수중굴착선, 자동부림배들이 무서운 쇠소리를 내며 바다를 밀고나갔다. 사람들의 의지와 신념에 받들려 제방은 물결을 가르며 전진하는 전함처럼 놀라운 속도로 나아가고있었다.

《당신은 뭘하고있소? 사석쌓기를 따라세우지 않구!》

남편의 벽력같은 목소리가 귀뿌리를 찼다. 철준은 《자주호》로 직접 대형블록들을 실어나르며 쪽길을 따라 길게 널려있는 기계화대부대를 지휘하고있었다.

보옥은 남편의 엄격한 얼굴을 선망에 넘치는 빛나는 눈길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석은 넘려 마세요! 이제 바람처럼 따라잡을테니-)

만조된 바다는 거대한 압력, 광포한 몸부림으로 마무리되어가는 제방을 터치려고 발광했다. 쪽이 한치 솟으면 물결도 한치 솟고 파도가 발돋움하면 바로 그자리에 쪽이 맞받아일어서고... 태풍은 보옥의 귀뿌리를 뽁뽁-울리고 날새처럼 건뚫 들어날려 보낼것만 같았다. 그러나 보옥의 귀에는 광란하는 자연의 폭음속에서도 담대한 사나이의 웨침같은 소리를 듣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웨침이 자동차의 질풍같은 속도가 되어 내닫고 굴착기바가지의 번뜩이는 이발이 되어 내려쬐히고 준첩선의 거대한 토관이 되어 내뿜었다. 사람들의 의지와 신념과 그 웨침이 쪽이 되어 내닫고 솟아났다. 꺼꾸로 일떠선 파도가 보옥의 머리에 비발을 뿌려댔다. 그는 태연

히 얼굴을 흠쳤다. 그리고는 이런속에서도 태연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금할수 없어서 방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때 귀청을 때리는듯한 이상한 부르짖음에 보옥은 우뚝 굳어졌다. 달리던 화물차도, 끌배도, 굴착기도 한순간 걸음을 딱 멈춘듯이 느껴졌다. 잉-고막을 울리는 이상한 정적속에 무섭게 이그러진 지배인의 얼굴이 보였다.

《뚝이 터진다-아!》

누군가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환각속의 정적을 폭풍처럼 휘저어놓았다. 사람들이 터지는 물목을 향해 와 밀려갔다.

《위험하오!》

지배인이 그들앞을 막아나섰다.

《블로크로 막아봅시다. 지배인동지!》

하고 남편이 말하였다.

《인젠 그것도 늦었소!》

일단 뚝이 터지기 시작하면 건잡을수 없다는것을 보옥은 잘 알고있었다. 터지는 물목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후면 제방뚝이 담벽처럼 무너질것이다.

(끝내 지배인이 걱정했던대로 댕단말인가? ...)

일순간 남편의 얼굴에 비장한 결심이 어리었다. 보옥은 차에 오르려는 그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요...》

(우리는 달리는 살수 없잖소?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방을 구원해야 하오.)

남편의 비장한 결심을 보옥은 그의 눈길에서 읽을수 있었다.

보옥은 팔을 벌리고 막아설수도 있었다. 그러나 보옥은 남편이 자기의 그런 행동을 평생을 두고 용서치 않으리라는것을 알았다. 그것은 인간의 참된 삶과 신념의 영원한 배반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천번 죽으면죽었지 사랑하는 남편과 그 의지와 신념을 배반할수 없었다.

보옥은 절망감에 휩싸여 얼굴을 싸쥐고 주저앉았다.

남편은 차에 올랐다. 블로크를 만재한 《자주호》는 차체를 떨더니 불길과 연기를 토하며 내달았다. 누군가가 차앞으로 뛰쳐나오려 할 때 철준은 시창을 팔굽으로 내쳐 깨뜨리고 험상궂은 얼굴로 웨쳤다.

《저리 비켜!》

순간 남편을 태운 《자주호》는 흙무지를 도약하듯 타고넘어 푸른 철함처럼 짙 버그러져가는 뚝의 아가리로 날아들었다.

...광막한 간석지에 어둠이 비졌다. 뚝의 아가리를 가로타고앉은 《자주호》 문은 열려져있었다. 누군가는 《자주호》가 날아드는 순간에 운전실을 빠

져나오는 철준이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아직 그를 찾지 못했다.

수백개의 해불이 그를 찾아 바다기슭을 헤매고 있었다. 온 사업소가 떨쳐나 벌써 몇시간채 찾고 있는 철준이었으나 물이 켜 개바닥만 음산하게 누워 있을뿐 그 종적을 알길 없었다. 수평선은 소리없이 꿈틀거리고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심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혁명동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철준동무!-》

《직장장동무!-》

애타게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고 멀리서는 밀려가는 썰물소리만 속절없이 처절씩 들려왔다.

보옥은 제방뚝을 남편의 육신처럼 그리안고 몸부림쳤다. 뚝은 구원되였다. 그러나 남편의 모습은 찾을길 없다. 보옥은 이것을 좀처럼 믿을수 없었다. 오늘아침까지만해도 그는 어리광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뺨을 부벼대지 않았는가,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렸었다. 귀뿌리를 툭툭 치는 억센 심장의 고동소리! ...

보옥은 남편의 가슴에 과고들듯이 제방뚝에 달라 붙었다. 그 뚝을 부르며 악몽을 깨일려는 어린 아이처럼 몸부림치며... 허나 남편이 심장을 바쳐 구원한 제방도 제품에 안겨 몸부림치는 너인의 정상을 묵묵히 굽어볼뿐 그 심장의 고동소리만은 들려줄수 없었다. 심장과 온몸을 통채로 감탕에 내몰려썰더라도 뚝을 쌓아야 한다고 하더니 끝내 그렇게 가고 말았던말인가!

그러나 무엇인가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그것이 아득히 먼 유년시절 머리우에 두주먹을 추켜들고 부르짖던 감탕투성이소년의 목소리같기도 하고 덕배의 옷자락에 매달려 가지 말라 애타게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같기도 했다.

갑자기 환각을 헤집고 지배인의 흥분된 목소리가 어둠속에서 들려왔다.

《동무들, 여기 해병출신이 누가 있소? 저기 곱섬쪽에서 보내오는 해불신호가 뭔가말요!》

누군가 며칠전 무인도인 곱섬에 해저탐사대동무들이 몇명 왔다고 대답했다.

《아마 그 동무들이 태풍피해때문에...》

지배인이 왈각 성을 내었다.

《무슨 허튼소릴 하오? 무조건 알아보란말요! 해불신호를 하는게 누군가를!》

바다기슭은 흥분과 격정으로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저마다 곱섬쪽을 향해 웨치기도 하고 불뿔치를 휘둘러대는통에 사람들의 머리우에서 불씨들이 튀고 연기가 자욱하니 회오리쳤다.

《좀 조용들 하시오. 이렇게 소란해서야 뭐가 뵈

지 알겠소? 저리들 비키란말요!》

해병사썩를 입은 청년이 사람들을 밀치고 나섰다.

《혹시 구조선을 빨리 보내라는…》

누군가 입빠르게 놀다가 그의 부라린 눈총에 맞
아 목을 움츠러뜨렸다.

《구조선은 무슨 구조선! 직장장동무가 틀림없
소. 철준동무가… 직장장동문 지금 제방이 무사한
가 묻고있소. 똑이 무사한가 묻고있단말요!》

바다기슭은 온통 환희로 들끓었다.

철준은 차문을 차고 용케도 운전실을 뛰쳐나온
모양이었다. 회류하는 물결에 실려 정신없이 바다
가 멀리 밀려났다가 섬쪽으로 헤엄쳐간것이 분명했
다. 역센 의지와 투쟁의 신념이 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것이다.

보옥은 사람들을 해집고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갔
다. 곱섬쪽을 향해 제방끝 공간을 내짚으려는 보옥
을 지배인이 붙들어주었다. 보옥의 눈엔 지금 캄캄
한 밤바다에서 활활타는 저 한점의 해불밖에 보이
지 않았던것이다.

지배인이 시키면 눈을 슴뻑이며 해병을 향해
《철준동무한테 물어보우. 몸은 상한데 없는가
구…》 하고 지시했다.

청년은 열정적인 동작으로 지배인의 물음을 보냈
다.

《제-길! 제방꼭이 무사-한가!》

곱섬에서 성난듯이 거세게 휘두르며 보내오는 신
호였다.

알지 못할 격류가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고지나갔
다. 수백의 해불이 활활 타오르는 앞바다기슭에 갑
자기 송엄한 정적이 깃들었다. 보옥은 솟구치는 감
격과 편정을 못이겨 섬을 향해 마음속으로 (여보!
…) 하고 소리높이 부르짖었다.

지배인의 안광에도 물기가 번쩍거렸다.

《철준동무, 장하오. 그러구 고맙소!》

간석지건설장에서 갓은 풍파를 다 겪으며 일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처럼 깊은 충격을 받기는 처
음이었다. 저 해불은 반백이 되어가는 생의 언덕에
서 그가 잃을뻔한 삶을 되찾아준 불이었다. 공사의
안전성을 운운하면서 자기 운명의 안전성만을 생각
하던 심장에 천백도의 열을 되찾아준 해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굳세졌다.

《해병동무, 동문 뵈하는가? 어서 신호를 보내지
않구…》

이어 그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제결에 성이 나서
청년을 향해 소리쳤다.

《신호를 하시오-〈제방은 끄떡없다, 온 사업소
가 동무걱정뿐이다.〉 라고말요!》

해병의 어글어글한 눈에도 눈물이 번쩍거렸다.
그러나 병사의 자세를 허물지 않고 마치 송고한 의
식이나 집행하듯 절도있고 힘있게 해불을 휘둘렀다.
불에 끄슬리고 눈물에 젖은 그의 모습을 방송원처
녀가 훌쩍 반한 눈으로 바라보고있었다.

《가만- 저건 또 무슨 신호야?》

자기를 누가 지켜보고있는줄도 모르고 그는 표정
을 휘딱 뒤집었다. 영문을 몰라 입을 벌리고 주위를
두릿두릿 살폈다.

《〈울보〉라니… 도대체 누구 찾는 소리야?》

보옥은 얼굴을 활짝 붉혔다. 남편은 지금 온 사업
소가 다 보는 앞에서 소꿉시절 자기를 놀릴 때 부
르던 그 지곳은 별명으로 자기를 찾고있는것이였다.
형용할수 없는 행복의 물결이 추억과 사랑과 애무
를 싣고 해일처럼 밀려와 보옥의 가슴에 가득차 설
레였다.

《여보세요, 동무…》

보옥은 얼굴이 빨개져서 해병옆에 다가가 살그머
니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기었다.

《저… 이렇게 신호해줘요! -〈덕배야, 기다
려〉…》

이 격동적인 순간에 보옥은 자기 입에서 어떻게
이런 청이 흘러나왔는지 몰랐다. 창망한 밤바다기
슭에 호탕한 웃음이 터져올랐다. 허나 보옥은 얼굴
이 빨강게 달아오르면서도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은 남편에 대한 자랑과 희열의
감정으로 부풀었다.

어찌 사람들이 우습게만 들리는 이 말속에 그들
어린시절의 잊을수 없는 추억이 담겨져있는줄 짐작
이나 하랴, 더우기 영문강기슭에서 자기를 뿌리치
며 아버지수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내닫던 그때의
남편의 모습을 보옥이가 지금 행복에 겨워 그렷보
고있음을 누가 알랴.

곱섬쪽에서는 그 어떤 생기와 활력을 얻은듯 더
큰 공간을 밝히며 해불이 확- 불타올랐다. 보옥은
저 해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노래, 뜨
거운 사랑과 포옹처럼 느껴져 핑그르 도는 눈물속
에 방그레 웃음지었다. 이 순간 사람들은 태풍속에
피어난듯한 보옥의 꽃같은 웃음속에서 또 한번 인
생의 참된 성장의 고비를 넘어서 몰라보게 아름다
와진 녀인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행복과 성장에 삶의 영원한 불길을 안겨주려는
듯 곱섬쪽에서는 해불이 밤새도록 꺼질줄 몰랐다.

이쪽에서도 날썰녇까지 바다기슭을 떠나지 않고
수백의 해불이 불타고있었다.

꺼질줄 모르는 이들의 심장들처럼! …

시조

10 월에로!

조국의 숨결 외 1 편

정하천

창문에는 바다가 비낀 듯
파도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탁상우에는 갑문설계도
수령님께서 배를 타시고 잡아주신 자리에
긴 언젠머 큰 갑실들이 그려져 있다

탁상앞에서 허리 펴신 **김정일** 동지
어둠이 짙어가는 바다풍경 바라보시더니
갑문에 대하여 잊기나 하신 듯
앞에 서있는 장령에게 물으신다
요새 건강은 어떠한지
혈압이 높다더니 좀 나은지

창문에 비낀 바다
일렁이며 더욱 넓어진 듯
아무일도 없고
매우 건강하다는 대답을 들으시자
기쁘신 듯 온 얼굴에 웃음을 담으신 그이
설계도면 다시 짚으시며 말씀하신다
-수령님께서 결심하셨으니
우리 큰 심장으로 해봅시다

순간 장령의 가슴엔 안겨왔다
창문에 비낀 바다와 함께
땅을 주름잡고 강을 날아넘는
축지법과 가랑이에 대한 전설을 낳은
수령님의 크나큰 담력이
그 담력으로 조국을 이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심장이

지금 내앞에는
일렁이며 숨쉬는 바다
바다가운데 가물막이둑이
성시를 둘러친 성벽처럼 진을 치고
성벽안에서 큰 갑실들이 솟아오르고

먼 바다 기슭에서부터
물안개 날리며 언젠가 뻗어나오고
그를 바라보는 나 역시
온 가슴에 받아안은 듯싶구나
기적의 전설을 낳은 그 담력
바다처럼 넓고 큰 심장
사랑과 의리의 그 뜨거운 숨결속에

아직은 세상 그 어느곳에도 없는
이런 갑문, 이런 언제를 두고
-이젠 자신이 있습니다
이곳의 일꾼이라면 전투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런 대답 들으며
바다처럼 넓어진 것 같구나
내 가슴 역시

온 가슴에
끝없이 넓은 바다 일렁이는 것 같구나
위대한 수령님 계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여
거인의 숨결로 숨을 쉬는 조국의 모습이

기 발

폭풍이 덮쳐들고
집채같은 파도가 덮쳐들고
폭우가 덮쳐드는 언젠
태풍에도 끄떡없는 언젠 우에
우리의 기발이 나뭇기고 있다
-우리의 신념은 하나
일편단심 당과 운명 함께 하리 !

조선혁명의 려명기
죽어도

한별, 그이의 품을 떠나지 않으리라
맹세다지며 영생의 삶을 빛내인
그날의 그 젊은이들과 같이
순간을 숨쉬여도 한생을 살라도
향도의 별 따르는 한길에서
삶을 빛내여가자고
달바다에 달려온 우리가 아닌가

당의 믿음과 사랑에 목메여하며
영광의 전투장에서

가슴 불태우고있는 우리가 아닌가
 어찌 언제우에만 기발이 나뭇긴다 하라
 불타는 가슴에도 기발은 나뭇긴다
 -우리의 신념은 하나
 일편단심 당과 운명 함께 하리

기발은 언제나
 투쟁으로 우리를 떠밀어주어
 감사나운 언덕 넘어왔거니
 이 기발 휘날리며 산을 뿌리뽑아
 태풍속에 날바다를 막았거니

이 기발 휘날리며
 바위를 들어올려
 대사리의 소용돌이속에서
 피도의 림당수를 메우고
 대홍수의 물너울속에서
 무쇠기둥 박은 우리다

비바람과 파도 사납다 하여
 우리 어찌
 그앞에서 뒤걸음치라
 당이 부어준 피로 심장을 끓이며
 당의 숨결로 숨쉬는 전사인 우리
 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고 기둥이 되어
 태풍의 이 물언덕 또다시 넘어
 영광의 그날로 달려가리니

요동치는 파도
 충성의 가슴으로 멈춰세우라 !
 신념의 철심 지심깊이 박으라 !
 억년 드눌지 앓을 성벽 쌓아올리라!
 대오앞에서도
 가슴에서도
 기발은 나뭇긴다
 -우리의 신념은 하나
 일편단심 당과 운명 힘께 하리 !

우리 식으로! 외 1 편

리영복

바다보다
 바다우가 더 끓어 좋구나
 물결보다
 우리 심장 더 높뛰어 흥겹구나

우리는 갑문건설자 !
 넘치는 청춘의 열정을
 발파의 포성으로 터치며
 버들 휘늘어진 유보도가 아니라
 바다우로 우리는 걷는다

-우리 식으로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기 오시여
 가슴마다 새겨주신 위대한 뜻
 이 하나의 맥박으로 높뛰기에
 바다를 막을 담력 가슴에 치솟고
 이 하나의 숨결로 숨쉬기에
 누구도 못한 일 우리는 말아나섰거니

마치 신념의 그 글발 한획을 쪽- 긋는듯
 산을 허물어 들판 싣고
 대형차들 힘차게 내닫고
 마치 그 글발의 또 한자를 새기는듯
 갑실건설장 기중기들

혼합들을 담아실고 빙- 원을 긋는다

-우리 식으로 !
 이 신념과 투지의 글발 새기는듯
 산같은 함형부재 물우에 떠가고
 편대를 무은 투석선들
 돌사태를 폭포처럼 쏟는다

뻗어가는 언제의 눈과 귀되어
 잠수공들 물밑을 밝혀가고
 돌격선에 선 용사인듯
 여기선 그 누구나
 청춘의 위훈을 떨쳐간다

아직은 누구도 해본적 없는 일
 걸음마다 기다린듯 난관이 맞받아오고
 자연의 횡포 사납게 기승부러도
 바다우로 걷는 걸음 멈춤을 모른다
 백두의 눈보라길에서
 투사들 걸음을 멈추지 않았듯이

아직은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일
 물우보다 물속에 할 일도 많아
 맞다드는 일마다 처음 하는 일이어도

내 쏜 화살마냥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간다
혁명의 길 언제 어디서나
쉽없이 새길만을 개척해온것처럼...

아, 우리 식
조선식 걸음으로
바다우를 걷는 우리의 뒤를 따라
산악같은 갑문이 솟아오르고

조국의 모습 더 아름답고 강대해지거니

당의 뜻에 발걸음 맞추어
우리 바다우에 일떠세우는
거창한 대언제!
이것은 바로
《우리 식으로!》
바다우에 새겨가는 불멸의 글발이다

꿈

꿈을 꾸다
한낮에도
꿈을 꾸다
일터에서도

발목이 빠지는 감탕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바로 이자리에
산악같이 일떠설 갑문
섬같은 배를
넙کم 안아올릴 크나큰 갑실을...

꿈같이 그려본다
저 파도 거친 물결우에
무지개인양 뻗을 철길과 차길
정다운 고동소리로 화답하며 달리는
긴 열차와 자동차 행렬들...

차창가에 웃음꽃 피우는
려행가는 신혼부부
간석지 건설장 청년을 찾아가는
처녀의 나뭇기는 머리수건...

지금은 건설자들 천막이
키낮게 들어앉은 산기슭에
구름을 허리에 휘감은
고층집들 숲처럼 솟아오르고
갈매기 날아드는 창가에
해당화 피여 방긋 웃으리

꿈을 꾸다
아침 저녁
일터에 오가면서도
사나운 얼음장 맞받아
돌격전을 벌리면서도

걷는 걸음
다그치는 일손
그것이 시각마다
그 꿈을 당겨오는 일이기에

꿈을 꾸고나도
사라지지 않는 꿈
꾸는 사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는
황홀한 꿈을...

나의 종대 외 1편

김시권

그리운 종대여
정다운 병사의 고향집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는
나의 마음을 받아준 종대여

인사를 보내노라
앓을수도 절을수도 없는
반백의 이 시인을 손잡아
병사로 이끌어준 고마운 종대여
병사시절의 그날과도 같이

푸른 군복을 갈아입고
아침 점검대렬에
구두뒤축을 모으며 내 마음 서나니

중대장의 호명을 받으며
시가의 총창을 메고
내가 들어설 그자리는
대오의 그 몇번째이나

락동강기슭에 전호를 파던
그때처럼 땀에 젖어도 보고
방선에 바위를 쌓던
그날처럼 어깨를 들이대고싶구나

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명령
한몸 바쳐 받드는 갑문건설전투장에
나를 세워준 그 믿음에

병사때 싸우다 남은 피 다 바치리니

가리라, 나의 중대와 함께
격량을 넘으며
불비도 헤치며
갑문건설의 그 돌격의 백열장으로

쓰러진들 어떠랴
나의 뉘, 나의 노래는 살아
충성의 메부리
갑문탐우에서 빛나리니

스물에 전장에 쓰러졌던 몸
신넛에 다시 전호에 세워준
그 영에 한생을 빛내리라
병사의 고향, 나의 중대여

전사와 위훈

위훈이여
나래치라
너는 전사의 자랑
너는 전사의 나래

한자육의 걸음
한방울의 땀
그속에 빛난다
전사의 위훈

쏟아지는 비줄기
날뛰는 파도
그속에 떨친다
전사의 위훈

너 없이야
무슨 전사의 삶이라
위훈이여
너는 전사의 자세

신념이 뿌리라면
위훈이여 너는
해빛을 향해 웃는
만발한 꽃

명예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위훈이여 너는
충성의 산마루

위훈은 위훈을 낳아
언제는 뻗어가고
갑문은 솟아오르고
조국은 길이 번영하거니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갑문의 성새우에 높이 모실
그 반석이다, 전사의 위훈이여 !

아, 물보라 외 1편

최치영

잠시도 잠들줄 모르는
사나운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와
거창한 대형함부재를 들때릴 때면
썩-쳐절썩 억만의 물방울로 부서져
마구 휘뿌려지는 차거운 얼음방울
전사의 가슴엔 물보라인가 꽃보라인가

찾았다 솟구쳤다
파도는 다시 밀려와 갈기를 날리며
날바다 막아가는 전사의 갈길을 막아
천만갈래 물보라도 가슴에 휘뿌려져도
전사는 꽃보라속에 서있는듯
기꺼이 웃으며 맞네

아무도 모르리
눈보라, 파도는 기승을 부리고
뜨거운 입김엔 성애가 날리어도
거창한 대형함부재를 이어가며
억만 얼음방울 휘뿌려지는 물보라속에
전사가 뜨겁게 간직하는 생각

아, 완공의 그날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걷고 걸으실 제방길 우에
오색 령룡한 꽃보라로 뿌려질 물보라
전사의 뜨거운 가슴 식히지 못하는
오늘의 물보라 래일의 꽃보라

먼 후날

이제 멀지않은 날
준공의 꽃보라 흘날릴 때
에돌아 칠백리길을 가던 기차
바다우 이십리 갑문우로 달릴 때면
그대들은 뗏뗏이 말하리라, 애들의 물음에
-우리가 건설하였다고

먼 후날에도
애들과 이 갑문우로 거닐 때면
바다속에 용접불꽃 날리며 헤쳐간
어제날 병사의 그 권리토
그대들은 부끄럼없이 말하리라
-애들아 너희 아버지들이 건설하였다고

세월은 흘러 흘러
저 괴도의 휴양각을 찾을 때면
딘고선 언제밀 남모르게 바친 병사의 량심
언제나 뗏뗏해 그때도 말하리라
-1980년대에 산
너희 할아버지들이 건설하였다고

오, 세월은 가고 또 가며
그대들 먼 지난 세기의 사람으로 불리워도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받들어
저 수천년 잠자던 바다밀
만년대계 기념비 건설에 바친 그대들의 위훈
후대들앞에 부끄럼없고 조국앞에 뗏뗏한
영원한 청춘으로 남아 남아...

봄 향 기

정해경

4월 초순의 계절로 치면 류달리 화창한 날씨였다. 산림개조작업소 예술소조가 중앙축전에 뽑혔다는 소식을 안고 작업소로 가는 청림이는 마음이 들썩해서 혼성림속을 걷고있었다.

《청림동무, 이번에 참 큰일을 했소. 아무래도 평양에 갔다와서는 문화회관에 내려와 틀고앉아 사업소예술소조를 좀 봐줘야 할것 같소. 당위원회하고도 토론하겠으니 그리 아오.》

사업소직맹위원장이 한 말이 다시 울리면서 가슴속의 이것저것들을 건드려놓아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하기야 일꾼들이 청림이의 예술적재능을 모른다고 할수 없을것이였다. 작년에 이 숲에 처음으로 생겨난 산림개조작업소는 이제 겨우 몇십정보의 림지를 조성했을뿐인데 청림이가 책임지고 지도한 예술소조는 도경연에서 당선되어 평양으로 가게 된것이였다. 이제 평양에 가서 공연만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숲속깊이에 있는 산림개조작업소에 대하여 알게 될것이고 청림이는 물론 영경이에게까지 새로운 무대가 열릴것이였다.

평양무대에 이르기까지에는 참으로 먼길을 걸어왔다. 개울가의 물버들을 꺾어 호드기를 만들어 불던 중학시절부터 청림이는 예술로 자신을 펼쳐 보고싶은 욕망을 키워왔다.

그 욕망은 사회에 진출하여 더욱 충만되어 다른 나무에 불길달리듯하였다. 그런데 그 뜻이 너무도 빨리 이루어지며 평양무대가 차례지게 된것이였다.

이번에 예술소조가 평양으로 가게 되는데는 《시와 노래》의 주인공역을 맡은 영경이의 노래가 큰 은을 낸것이였다.

군경연무대에서 영경이가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진정에 찬 열광적인 박수를 쳐주었던가, 공연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불려 기쁘게 해준 산림개조작업소의 처녀를 보겠다고 밖으로 따라나오기까지 했던것이였다.

청림이도 영경이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숲속에 이런 목소리를 가진 처녀가 있음을 신비롭게까지 생각했었다.

그것은 3년전 마가울에 있는 일이였다. 청림이는 구운작업소의 겨울철생산준비를 돕기 위하여 사업소의 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구운산관에 가서 벌목통로를 닦게 되였다.

숲이 사시절 무른것으로 하여 언제나 좋다고 하지만 마가울 아침 숲의 산속을 거닐어본 사람만이 그 참맛을 알수 있는것이다. 한움큼씩 쥐여뿌리는 듯 얼굴에 무덕무덕 마쳐오는 신선하고 향기로운 숲의 숨결, 푸른천에 문양을 놓듯 단풍을 피운 활엽수들, 발목을 덮는 갓 떨어진 각양의 락엽들, 어린 처녀애들의 목소리와도 같이 류창하고 또렷한 물소리, 숲속을 걷는 청림이는 예술적감흥에 취하여 곡상을 더듬고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숲속을 헤엄쳐오는 청아한 목소리가 청림이의 심장을 두드렸다. 처음 청림이는 그것이 자기가 무르익힌 곡상이 선물로 옮겨지는 자기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마음의 노래가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는 어찌 들으면 봄날의 숲의 설레임소리같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즐거운 물소리같기도 하고 못새들의 지저귀임과도 같이 이 숲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어 예술적조화를 이루는 신비로운 목소리였다.

청림이는 뒤문을 한껏 열고 마음을 도사려 노래소리 나는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잎을 만나마 지운 개암나무숲 둔덕에 세운 《제동막》앞에 애어린 처녀가 서있었다. 그가 바로 청림이의 녀를 불러온 노래의 주인공이였다.

그때 눈아래 굽이쳐 설레는 숲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던 영경이의 모습이 지금도 마음속에 찍어둔 사진처럼 또렷이 살아있었다.

생활에 대한 희망이 황황 불타는 씨원한 눈동자, 꼭 닫힌듯한 선이 또렷한 사시나무잎같은 입술, 휴양지에 다듬어세운 붓나무와 같이 산뜻하게 들린 곧고 흰 부드러운 목, 사람들에게 상쾌한 감정을 던져주는 청신한 몸매, 그러나 영경이에 대하여 말할 때 그에게서 뻔수 없는것은 노래였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숲속 개암나무밑에서 방금 뜯은 버섯의 향기같은것이 풍기는듯하였고 노란 조약돌우를 굴러내리는 계곡의 맑은 물파도 같이 신선한것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해주면서 숲세계에로 이끌어갔다.

그때 영경이의 노래는 청림이의 마음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영경이와 같은 주인공만 있으면 자신의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울것 같았다. 그래서 청림이는 그날저녁 까맣게 익은 따들쪽을 한바짝

따들고 영경이가 일하는 《제동막》을 찾아갔었다.

귀틀식으로 지은 작은 《제동막》 틈사리들에는 파란 모전같은 풀이끼가 장식품처럼 꽂혀있었는데 그것이 영경이의 노래의 색깔을 더 맑게 해주는것 같았다.

《영경동무, 동문 예술계로 발전할수 있는 천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있구만. 이 숲에 배겨있기는 아까운 목소리야. 우리 작업소엘 가지 않겠소. 난 동무같은 인재만 있으면 어떤 무대건 건주어볼 생각이 있소.》

청림이는 자기 나이에 비하여 아직 어린 처녀라 는것을 알면서도 진정의 말을 했다.

영경이의 눈은 빛났다. 마치 일에 땀히는 아침이 슬파도 같이 맑고 유순한 눈동자였다.

《그럼 여긴 어찌구요.》

이렇게 속삭이는 영경이의 입술엔 눈가에 핀 아름다운것이 옅아와 발췌 맑은 웃음이 피었다.

《전 중학교때 노래를 가지고 산판에 찾아오는것이 제일 기뻐어요. 벌목공아저씨들은 샘물을 떠다 준다 오미자를 따다준다 저희들의 노래를 귀중히 여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산판 저 산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어요. 이 숲엔 저희들이 노래를 안고 오르내리며 심은 나무들이 있는데 우린 산판에 올때마다 어린 나무들과 키를 대보곤했어요. 그런데 이젠 졌어요. 우리보다 곱절이나 커서 우릴 가지밑으로 내려다보구던요.》

영경이의 목소리는 음악을 감상하는것처럼 즐거웠다. 영경이는 잠시 여기서 말을 쉬였으나 여전히 그의 눈빛과 입술은 행복에 충만되어 다음 말을 고르고있었다.

《전 여기가 좋아요. 이 숲은 저와 함께 자란 <동무> 들이지요. 전 여길 떠날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영경이는 자그마한 수첩을 가슴우에 모두어쥐고있었다.

청림이는 그 수첩을 펼쳐보았다. 중학교때부터 가지고 오는 그의 노래수첩이었다. 그 수첩 한가운데 박힌 큼직한 글씨가 눈길을 잡았다.

《영경이, 이 산판의 숲종다리가 되여다오!》

이것은 필경 글씨처럼 마음도 시원한 어느 벌목공이 박아쓴 글밭일것이었다.

영경이는 그 부탁이 소중해서인지 아니면 가슴에 안고사는 노래가 귀중해서인지 그 수첩을 품에 안고사는것이였다.

청림이는 여직 그때의 영경이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있었다.

이랬던 영경이를 삼년이 지난 작년초가을에 산림개조작업소에서 만나게 된것이였다. 림산사업소에 새로 산림개조작업소가 생기면서 지원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청림이도 영경이도 여기로 지원해온것이

였다.

청림이와 인사를 나누던 날 영경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청림동지, 우리 산림개조공들의 노래가 평양에 갈수는 없을까요?》

영경이의 말은 예술에 대한 청림이의 욕망에 불을 질렀다. 청림이의 지도와 영경이의 노래가 드디어 빛을 내어 예술소조가 평양으로 가게 된것이였다.

참으로 살아온 28년이란 나날이 오늘을 기다려 달려온것만 같았다.

청림이의 이런 마음을 알아서인지 봄의 품에 안겨 첫숨을 쉬고있는 숲도 상냥한 미소를 던져주는것만 같았다. 어린아이들처럼 아직 멀리 나돌지 못하고 개암나무, 사시나무, 오리나무둘레에서 속살거리던 맑고 향긋하고 신선한 첫봄의 미묘한 향기가 청림이의 옷설에, 얼굴에, 눈에 매여달리며 가파나 흥떠있는 청림이의 마음을 취하게 하였다.

청림이는 자신이 쓴 시와 노래대본이 들어있는 삼면자크가방을 허공을 향하여 던지고 팔을 벌렸다.

《영경동무, 예술소조가 평양에 가게 됐소. 동무의 목소리가 은을 냈단말ियो.》

이렇게 웨친 청림이는 높이 뿔다 떨어지는 삼면자크가방이 마치 달려오는 영경이기라도 하듯 가슴에 덥석 받아안았다.

그리고는 작업림지쪽에 대고 소리쳤다.

《어- 어허- !》

림지에서 청림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영경이의 반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청-림-동-지 !》

×

예술소조가 평양에 가게 되었다는 청림이의 말은 순간에 온 숲에 퍼져나갔다.

《수고했어요. 청림동지, 우리 노래가 평양에 가게 될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영경이의 정겨운 눈가에는 기쁨이 고인 이슬이 반짝이고있었다.

《넌 주인공이라는게 평양에 갈 생각도 없이 노텔 불렀니? 난 노래련습을 시키는 청림동무의 눈동자를 보고도 <목표 평양, 영경이 앞으로 갔> 하는 구령소리를 들었는데...》

희극배우라 불리우는 살집이 좋은 처녀가 하는 말이었다.

영경이의 눈동자는 두덩이의 참나무숯처럼 불타고있었다.

청림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애써 완성한 작품과 목이 쉬도록 수고스럽게 연출을 하여 예술소조에 바친 청림이의 모든 노력에 대한 고마움이 영경이의 빛나는 눈가에 어려있기때문이었다.

(영경이, 너의 노래를 빛내어줄게 백리향처럼 향기로운 너의 목소리가 숲의 작은 선전실만이 아닌 넓은 무대에서 울리게 해줄게.)

청림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러싼 예술소조원들을 바라보았다.

《아니 우리 작업소 예술소조가 평양에 가게 되었다구?!》

작업소장아버이가 벌목지에서 내려오며 하는 말이었다.

《우리 영경이의 노래가 평양에 가게 되었단말이지!》

이렇게 말하며 작업소장이 우영일같이 큰 손을 청림이의 어깨에 얹을 때 청림이는 눈곱이 시큰해났다. 순간 청림이에게 작업소예술소조를 책임지우며 하던 작업소장의 말이 생각났다.

《우리 작업소에 노래가 들썩하게 해주게, 서해안에서 울리는 간석지개간의 노래가 만날 고성기통을 들었다놓구있지. 남포갑문건설장에서 울리는 우리 시대의 새노래가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때에 산림개조작업소가 생겨났으니 숲엔들 왜 노래가 없겠나. 노래를 작업소의 한개사업으로 생각하구 숲의 새노래를 만들어내라구. 우리한테 영경이가 있지 않나.》

노래와 시같은것은 흘러간 먼 날에 묻어두고 살 것 같던 작업소장아버이의 말은 청림이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그랬던 작업소장이 오늘 예술소조일을 두고 못내 기뻐해주는것이였다.

《청림동지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노래를 잘 불러야겠는데 ...》

영경이의 목소리는 숲에 흐르는 봄기운과도 같이 부드럽고 개울물소리와도 같이 정다웠다. 영경이의 이런 심정이 고마왔다.

작업이 끝나자 청림이는 마치 경사지에서 굴러내리는 통나무토막처럼 급하게 작업소선전실로 내리달렸다. 한것은 선전실 난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였다.

4월초순의 숲은 낮에는 봄빛과 속살거리지만 밤에는 맵찬 바람이 숲을 싸다니며 위험신호를 하고 있어 아직 난로가 그리웠던것이다.

청림이가 불을 지피는것은 이때문만이 아니였다. 언제나 얼굴이 빨갛게 익도록 난로앞에 서있곤하던 영경이 생각이 났던것이였다.

구새먹은 분비나무장대로 높이 해세운 선전실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날저녁 작업소의 행사를 알리는 말없는 신호이기도 하였고 사업소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외진 숲속에 있는 산림개조작업소 청년들의 마음을 띄워주는 하나의 자극제이기도 하였다.

선전실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색깔만 보고

도 그날저녁 행사를 알아맞추는 봄썩처럼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있는 영경이였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보다 아지랑이같은 연기가 더 세차게 솟구쳐오를 때는 영화가 있는 날이라는것이였다. 그것은 영화를 가까운 친척보다 더 기다린다는 아버이가 마른 봇나무 강대를 날라다 때기때문이라는것이며 강연회나 집회가 있을 때면 피나무꽃같은 흰 연기가 느낄스실 피어오르는데 이것은 선전실을 아늑하게 끌고루 덥히기 위하여 토장의 절두목을 대두고 때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청림이의 노력은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선전실굴뚝의 연기를 본 예술소조원들은 저마다 방금 꽃잎을 터치려고 꽃살이 한껏 부푼 정향나무가지를 꺾어들고 노래를 부르며 선전실로 찾아들고있었다. 작업소장까지 나와서 오늘저녁은 품을 놓고 영경이의 노래를 듣겠다고 하는것이여서 청림이는 연습을 서둘렀다. 그런데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니 영경이가 보이지 않았다.

《영경동무 어디 갔소?》

누구보다 먼저 무대에 나서 연습분위기를 돋구어야 할 영경이가 없는것이 허전하였다. 인차 내려오겠지 생각하고 시간을 끌며 발성런습을 했건만 영경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에선 성급한 청림이는 속이 끓어올라 참을수 없었다. 아무렴 영경이가 이럴수 있는가 하는 불만이 솟구쳐올랐다.

청림이는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어 선전실을 나서 개조림지로 향하였다. 토장을 벗어나 산입구로 올리달리던 청림이는 그만 행소리를 지르며 공중 제비로 나가넘어졌다. 꾸둑꾸둑 언땅을 잘못 짚었던 것이였다. 나무가지우에 말리워 걸어놓았던 버섯을 찌작찌작 씹던 청서 한마리가 눈이 울롱해서 나가넘어진 청림이를 숲의 침해자가 아닌가고 주시하고있었다.

청림이는 땀 침을 뱉으며 엉치를 툭툭 털었다.

《시작부터 말썽이군.》

자연 이런 말이 나왔다.

(도대체 이 동무가 말다르고 속다른 동무 아니야. 평양평양하더니 정작 가게 되니...) 청림이가 푸르락거리며 개조림지밑에 이르렀을 때는 햇손을 흔쳐들고 봄바람과 갈꺾질을 하던 가지들이 밤기운을 머금고 새침해서 쌀쌀한 뎡기를 던지고있었다.

개조림지에서 영경이의 노래가 울려왔다. 《시와 노래》에 나오는 노래를 청을 뿔아부르고있었다. 숲의 저녁대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도전체와도 같은 자연적특징을 가지고있어 영경이의 노래를 톡톡히 날라왔던것이였다.

《영경동무-!》

청림이는 버럭 큰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부름소

리라기보다 역정의 웨침이었다.

노래소리가 똑 그치였다. 앞산에서 뒤산에서 좌우골짜기에서 청림이의 목소리가 공명되어 다시 울려왔다. 네사람의 청림이가 마주 소리치듯이...

《청림동지-!》

개조림지에서 영경이의 정찬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와 함께 마른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 숲을 헤집는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더니 영경이가 호호 단감을 물총처럼 길게 내쏘며 청림이앞에 와 서는 것이었다. 그는 한쪽 어깨에 흙이 발린 배낭을 메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늦지 않았어요?》

영경이는 청림이가 다시 올라왔다는것을 감감 모르고있었다.

《글쎄, 아직 나무가지들이 보이긴 하누만.》

영경이는 청림이가 비꼬는 말을 진정으로 들었는지 어둡이 검은 보자기처럼 숲을 감싸고있어 하늘을 배경으로 나무가지들이 그 룬판만 알릴 따름이나 어딘가 숨어버린 해빛을 찾아보려는듯 숲을 휘돌러보며 입을 여는 것이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오늘 벌목한 림지를 다 정리하는건데 벌써 이렇게 날이 저물었군요.》

청림이는 다시 찾아 올라온 이 시각까지 예술소조를 잇고 림지에 마음을 두고있는 영경이가 자못 경망스럽게 생각되었다.

《저녁에 연습을 한다는걸 모르오? 선전실굴푹의 연기를 못봤나말이요.》

청림이가 이렇게 심기코인 말을 했어야 영경이는 청림이가 자기때문에 다시 올라왔다는것을 알고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다.

《림지정리를 해야 평양에 가기전에 식수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보니...》

《우리 산림개조작업소에 영경동무 한사람밖에 없소? 조림작업소에서 새로 생긴 우리 작업소의 분식수나무모는 예견 못했기때문에 가을식수계획에 반영했다구 우리 작업소장동지가 말하지 않았소. 모두 산림개조작업소의 예술소조가 평양에 간다구 떠드는데 주인공이 이러면 곤란하지 않소.》

청림이는 여기서 말을 끊고 성을 좀 삭인 다음 걸음을 떼며 말을 이었다.

《동문 여기 와서 나를 만나던 첫날 우리 노래가 평양에 갈수 없는가고 하지 않았댔소. 난 그 말에 고무를 받았소. 동물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것이 행운처럼 생각되었소. 그래 난 예술소조사업에 모든 걸 다 바쳤소. 그런데 동무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섭섭하구만. 동무야 주인공이 아니요.》

청림이는 섭섭한 마음의 반영이기라도 한듯 턱턱 신발뒤축으로 흙을 쳤다.

《다 알아요. 저도 그래서 노래를 더 잘 부르자고

마음먹어요.》

영경이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온순하였다.

《우리 예술소조의 성공여부가 동무한테 달려있소, 난 동무의 목소릴 믿소. 한번 숲의 노래를 펼쳐보잔말이요.》

청림이도 어지간히 마음이 수그러지고말았다. 선전실에 이른 청림이는 연습에 앞서 이제부터는 평양무대에 나섰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하며 기타를 베었다. 영경이는 여직 볼수 없었던 흥분에 잠겨 청림이의 기타반주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기타의 전주곡이 울리자 긴장해졌던 영경이의 얼굴에 애무의 빛이 어리는 것이었다. 예술소조원들이 무대로 나섰다.

은근한 기타의 선율을 타고 시와 제창에 이어 영경이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나무만 자라면 산림인가요

쓸모있는 숲이라야 산림이지요

잡관목 베어내고 경제림 가꾸는

우리는 나라의 산림개조공

아 우리의 청춘 오늘에 있어도

래일의 푸른 숲에...

고조되던 영경이의 노래가 후렴부분에 와서 차차 속어들더니 그만 마지막음절에 와서 똑 끊어지고 말았다.

예술소조원들의 놀란 눈빛이 영경이의 얼굴에 쏟아졌다. 작업소장의 눈길도 영경이한테 쏠려있었는데 험험 마른 기침을 하는것으로 보아 노래에 끌려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어찌된 일이요. 당장 떠나야겠는데 가사를 잊은게 아니요. 주인공이 가사를 잊으면 어떻게 하오.》

청림이는 심각한 주의를 주었다. 한참이나 무대 바닥에 시선을 떨구고있던 영경이가 생각깊이 머리를 들더니 무반주속에 노래를 잇는 것이었다.

래일의 푸른 숲에 마음두고 사네

그러나 영경이의 노래는 여직 숲에서 들어오던 그런 맑고 향기로운 소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저어하는듯한 무거운 목소리였다. 영경이의 목소리가 떨어지니 자연 영경이의 노래를 절정으로 하여 꾸러진 작품의 전반 형상이 떨어졌다.

청림이는 너무 요구성을 높여 영경이가 굳어진것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영경동무, 벌써 열면 어떻게 하오. 전에 동무는 구운작업소의 수백명앞에서도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았소. 산에서는 잘 부르는데 무대에 서면 다른 목소리가 되니 야단이구만... 물론 그럴수 있지. 중앙 무대에 나서기가 쉽겠소. 연습을 잘해서 목소리를 풀어야 하겠소.》

청림이의 말에 굳어졌던 영경이의 얼굴에 다소 생기가 도는것이였다.

《생각해보오. 동무의 목소리가 이제 방송으로 텔레비존으로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소. 어디서 숲종다리가 날아왔다구 환성을 올릴게란말이요. 모두 영경동무에 대한 기대가 크오. 새로 태어난 산림개조작업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번 목소릴 펼쳐보오.》

영경이를 고무하는 청림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는 올라가지 못하였다.

연습총화는 신랄하게 하였다. 청림이는 영경이의 가사를 잊은 무책임성과 연습시간을 어긴 현상

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하였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청림이의 말을 듣던 영경이가 조용히 입을 여는것 이였다.

《평양무대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자니 더 안되누만요. 전 아무래도 주인공자격이 없는가봐요.》

영경이의 이 말은 청림이를 아연하게 만들었다.

《영경동무, 우리 작업소에 동무만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소. 주인공역을 아무나 할수있는게 아니지 않소. 연습에 집중해주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영경이의 눈빛에서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빛나는것이 반짝이고있었다.

×

그날밤

청림이는 작업소장을 찾아갔다.

《소장동지, 아무래도 영경이한테 시간을 좀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까. 무대에 나서면 완전히 굳어지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청림이의 말을 심중히 듣고있던 작업소장은 놀란 빛을 띄우며 《그렇소?》 하고 반문하는것이였다.

《산판에서는 모두 영경이노래 영경이노래 하는데 무대에 나서면 다르단말이지?》

《지도를 받지 못하고 산판에서 막 불러온 노래니까 할수 있습니까. 역시 무대에 다르지 않습니까.》

《책임자의 의견이 그렇다면 선전실이 가까운 토장에 떼놓자구. 그러면 짹짹이 무대를 밟아볼수 있지 않겠나. 영경이의 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꼈게 없네.》

이렇게 청림이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인 작업소장은 전체 작업소성원들앞에서 예술소조사업이 산

림개조작업소의 필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강조해주는것이였다.

청림이는 작업소성원들이 자기에게 부러운 시선을 몽고있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영경이의 노래지도에 바쳐진 자신에 대한 말없는 인사이기도 하였고 노래로 작업소를 빛내여달라는 부탁갈기도 하였다.

청림이는 가슴이 뿌듯해났다. 이제 중앙공연이 잘되면 이들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산림개조 예술소조를 지도한 청림이를 찾게 될게고 어쩌면 이번 기회가 그의 희망을 실현하게 될 계기로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눈앞에 가로등 줄지어선 넓은 포장도로로 걷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피아노소리가 쏟아져나오는 어느 극장의 총대높은 출입구계단을 오르는 자신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림산마을 고등중학교의 이름있는 예술소조원이며 지휘자였던 그에게는 일찍부터 하나의 소원이 있었던것이다. 동창생들을 대학으로, 군대로, 건설장으로 보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아있었다. 물론 음악무용대학으로 갈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희망을 하루속히 실현시키려고 생각을 조여가는 그에게서 대학기간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월이었던가

그리하여 청림이는 자기의 예술성공의 총대를 이 숲으로부터 시작하리라 마음먹고 고향마을에 남은것이다. 이제 산림개조작업소 예술소조공연을 방영하는 텔레비존과 방송이 전국에 울려 퍼지면 것처럼 그를 위해 걱정하던 동창생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청림의 마음은 한량없이 뛰놀았다...

별목지에서는 온종일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예술소조원들만이 아닌 작업소 모든 성원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흥분은 넘치고있었다.

영경이와 한호실에 있는 희극배우라고 부르는 살집이 좋은 처녀는 영경이가 없으면 산판이 적적한게 남의 집에 온것 같을것이라면서 영경이를 어느 예술단에 떼올가봐 속이 한참만하다고 익살을 부렸다. 그러니 영경이를 지키는 의미에서 자기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바람에 청림이도 웃지 않을수 없었다.

청림이는 마음이 좋았다. 영경이의 노래를 두고 하는 말은 곧 자기를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영경이가 낮에 연습을 잘해야겠는데.)

청림이의 생각은 온 하루 선전실무대에 가있었다. 어느새 한입 두입 건너 저녁전에는 오늘저녁 선전실에서 예술소조공연이 있다는 새소식으로 번져졌다.

일을 끝내고 림지에서 내려오는 청림이는 영경이의 노래부터 들어보리라 마음먹고 토장을 찾았다. 그런데 토장공들은 영경이가 어디 불일이 있다면서 작업이 끝나기 바쁘게 객차를 타고 내려갔다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청림이는 피가 빠진 사람처럼 전신의 맥이 탁 풀렸다. 작업소가 다 구경을 하겠다고 선전실로 모일 터인데 속이 타는 일이었다.

청림이의 성난 추궁에 그들은 영경이가 객차를 잡아타면서 저녁련습에 늦지 않게 저녁객차에 꼭 올라오겠다는 것을 다짐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청림이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선전실로 갔다. 예술소조원들은 목소리를 다듬느라 음계를 따라 아아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벌써 사람들이 하나 둘 선전실로 찾아들고있었다. 골짜기에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숲의 밤은 언제나 골짜기 밑에서부터 검은 빛이 퍼지기 마련이어서 림지들의 나무상수리들에는 아직 저녁노을빛이 걸려있건만 작업소를 이루고있는 다섯채의 나무기와 지붕우에는 말없이 어둠이 깔리고있었다.

저녁객차소리가 찬 대기를 부시며 랑랑히 들려왔다. 청림이는 서둘러 련습준비를 시키고 객차를 마중하러 달려갔으나 영경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영경이가 이럴수 있는가.)

청림이는 복받치는 노여움보다도 가슴을 누르는 서러운 마음이 더했다.

(노래를 위해 바치는 나의 노력을 무엇으로 안단 말인가. 내세워주고 받들어주니 벌써 믿음을 저버리는 경망스러운 처녀로 되였단말인가.)

영경이의 속을 끝까지 들여다보는것 같았다.

선전실로 돌아온 청림이는 영경이의 대사를 자기가 쳐주기로 하고 련습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영경이가 생각이 머리에 싸고돌아 자기 순서도 영경이의 대사도 잊을 때가 있어 예술소조원들의 독촉을 받곤했다. 영경이를 찾는 구경꾼들의 목소리가 무대에까지 들리었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작업소장이 어제 그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이었다. 련습이 영경이의 노래대목에 이르러 청림이가 대신 노래를 준비하고있을 때 관람석에서 폭소가 터졌다. 안경을 코등에 건 회계원이 극중인물처럼 무대에 나타난것이다. 결국 련습이 중단되였다.

《전화가 왔어.》

청림이에게 손짓하며 하는 회계원의 말에 웃음이 고조되였다. 극중의 인물처럼 무대에 나타난 회계원의 말은 대사처럼 들린것이다.

청림이는 어이없었다. 오늘저녁에는 모든게 뒤를러가는게 신경만 곤두섰다. 청림이가 사무실로 가니 언제 나왔는지 작업소장이 송수화기를 들며 전

화확성장치스위치를 넣는 것이었다.

《내 개조소장입니다. 누구? 아, 조림소장동무구만. 우리 영경이가 떠났다고?》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말은 청림이를 긴장시켰다. 저쪽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똑똑히 송화기속에서 울려나왔다.

《아니 3년씩이나 공들여 키운 나무모인데 재밌는데 처녀 한사람만 보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을식수계획에 넣었던 모를 먼저 돌려주는데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대신에... 예술소조가 평양에 간다고 너무 높이 노는게 아닙니까?》

10여년이나 이상인 개조소장에게 하는 조림소장의 말은 모가난 공식적인 사업투가 아니라 마음이 떠서 하는 둥근 목소리였다.

개조소장은 다음 말을 더 들어보자는듯 《그래서?》 하며 송수화기를 귀에 더 눌러대는 것이었다.

《내 아예 딱 잡아떼려고 했는데 그 처녀가 평양에 간다는 산림개조공의 노래까지 부르며 이래도 못주겠는가고 하는바람에 지고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연모를 채취해서 다른 작업소에 해결해 주더라도 평양에 가는 노래를 보장해주자고 나서는데 소장인들 벌수 있습니까.》

《그래 주기로 했단말이지? 우리 영경이가 노래값을 톡톡히 받아냈는걸. 됐어.》

굵은 주름살이 건너간 작업소장의 눈갓이 들리더니 눈빛이 번쩍했다.

《글세 요구대로 종비나무모를 주긴 했는데 노래련습이 늦어진다고 한통구리는 그 처녀가 지고 떠나고 세통구리는 사무실에 있으니 이거 주고도 야단이 아닙니까. 나무모보초를 서게 됐으니말입니다.》

《야단은 무슨 똥판지같은 야단이요.》

작업소장은 흥이 나서 전화기를 놓는 것이었다.

《청림이, 영경이가 나무모를 풀었네. 예술소조가 큰일을 했어. 한해 여름 숲을 비여놓는가했더니 이젠 울봄에 식수를 하게 됐어. 우리 산림개조작업소의 출현을 온 나라에 노래로 선포할만하단 말이야.》

작업소장은 저으기 흥분하여 말했다.

《예술소조원들을 다 데리고 영경이 마중을 가져구.》

작업소장은 서둘러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여 노래련습이 중단되였고 청림이는 작업소장의 뒤를 따라나설수밖에 없었다. 영경이가 나무모를 지고 밤길을 떠났다는 말이 전해지자 선전실에 모였던 작업소청년들이 예술소조원들의 앞을 막아나서며 자기들이 갈터이니 련습을 하라고 앞서는 것이었다. 결국 온 작업소가 철길에 늘어서게 된 것이었다.

청림이는 영경이가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갈줄은 몰랐다. 저혼자 숲을 생각하는채 나서는 행동이 청림이를 무시하는것 같았고 또 말로써는 우리 노래가 평양에 갈수는 없는가고 했지만 요사이 행동을 보면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생각해보면 영경이는 종잡을수 없는 처녀였다.

불방망이를 해들고 앞서걸던 패들이 영경이를 만나 떠들어대고있었다.

《넌 암만 주인공역을 하면 했지 너무하구나. 우리한테 알리면 안된다던.》

희극배우라는 처녀의 활달한 목소리였다. 청림이가 가까이 갔을 때는 벌써 작업소장이 그의 어깨에서 나무모집을 받아지고있었다.

불빛에 비친 영경이의 얼굴에는 정향나무꽃망을 같은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미안해요. 저녁객차편에 올라오려 했는데 조림 소장동지가 어디 나무모를 쥐여지요. 그래서 노텔 다 불렀어요.》

청림이에게 하는 말이였다. 작업소장은 짐을 받아지려 하는 청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철길한가운데로 들어서는것이였다. 그는 영경이를 따라가 나무모를 다 메여오라는 말을 남기고 작업소로 향하는것이였다.

청림이는 조림작업소사무실까지 내려와 나무모들을 나누어지고 철길에 나섰다.

《무겁지요? 이렇게 청림동지 등에 나무모를 지우게 될줄은 몰랐어요. 이 나무모를 다 심으면 종비 나무림지 하나는 될터이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지고가자요.》

청림이를 앞세워놓고 하는 영경이의 말이였다. 영경이는 오늘저녁 연습을 어긴 자신을 이런 말로 감싸보려는것 같았다.

《영경동무, 동무때문에 연습이 죽었소. 노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게 아니요? 식수야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도 있고 조림작업소의 계획대로 가을에 할수도 있지만 우리 노래야 누가 대신할수 없지 않소. 우리 노래가 어디 동무 한사람의 노래요? 모처럼 수고한 동무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괴롭구만.》

청림이는 이렇게 말할수밖에 없었다.

영경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보매 청림이의 말이 가슴에 저린 모양이였다.

《〈숲농사〉도 밭농사처럼 봄에 심어 가을에 열매를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에 심어 다음 대에 가서야 우거진 숲을 보겠으니 그걸 생각하면 하루가 새로와져요.》

영경이의 말은 청림이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리였다.

《여기 오기전에 제가 일하던 작업소는 참 좋았어요. 매일 수백립방의 통나무를 찍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찍어보내는 기쁨보다 숲이 비는게 더 가슴 아팠어요. 언제 다시 심어 아릅이 벌게 키우겠는가고 생각하면 벌목공들을 붙잡고 제발 베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싶기까지 했어요. 저는 생각다 못해 새 림지를 가꾸는 산림개조작업소로 오고 말았어요.》

이 순간의 영경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마음을 쏘는 손녀들처럼 천진스러워보였다. 당장 떠날 노래런습만 아니라면 이런 영경이를 나무람하는 청림이는 필경 나쁜 사람일것이였다.

《나도 런습때문에 그러오. 이번이 동무가 예술계로 발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요. 난 평양에 갔다오면 아무래도 사업소에 내려가 예술소조를 지도하게 될것 같소. 그렇게 되면 영경동무를 어느 예술단에 소개하려고 하오. 동무의 그 천성적인 목소리가 이 숲에서만은 아깝거던.》

영경이는 말이 없었다. 다만 가쁜 숨소리가 밤결에 들릴뿐이였다. 언제나 뜻밖의 기쁨은 그것이 첫 순간에 충격으로 느껴지는 법이어서 이 순간 영경이는 마음속의 행복의 선물에 파묻혀 현란한 무대를 그려보고있을것이였다.

《그랬됐군요. 저를 생각해주어 고마와요.》

영경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멀리에서 들려오는듯 맥이 없었다. 그것이 청림이에게는 서운하였다.

나무모를 다 보관하고났을 때는 밤이 깊었으나 청림이는 런습을 죽일수 없었다. 선전실에서는 밤새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

4월의 나날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봄의 품에 더 깊이 안겨들고있었다.

개울가에는 흰 붓촉같은 버들개지꽃이 한창이어서 꿀벌이며 나비들이 찾아들어 흥성거리고있었다.

이제 며칠 안있어 예술소조원들은 숲의 새노래를 안고 떠나게 될것이고 평양에서는 4월의 예술축전의 막이 열릴것이였다. 예술소조에 대한 청림이의 생각은 절정에 이르렀다. 나무모를 구해온후 영경이의 노래가 좋아져 《시와 노래》의 형상이 속을라갔다. 이제는 평양무대까지 지금의 수준을 견지하는것이 문제여서 청림이는 런습의 강도를 더 높였다.

그런데 청림이가 영경이에 대한 런습의 요구성을 높일수록 그는 식수사업에 대하여 그만큼 신경을 쓰고있었다. 그러던중 예술소조가 떠나기 사흘을 앞두고 첫 식수가 시작되였다. 식수림지를 보고가야 노래를 잘 부를것 같다는 영경이의 호소가 작업소장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어 모두가 발벗고 나섰던것이였다. 작업소장은 예술소조를 식수에서 빼주었다.

《영경이가 나무모를 해결했길래 여름내 비워둘

번한 림지에 식수를 하게 되었소. 그것도 작년보다
썩 앞당겨말이요. 이것만으로도 예술소조의 큰 공
적이라고 말할수 있소. 이제 우리가 심을테니 어서
떠날 준비나 잘하오.》

식수조직을 하며 작업소장이 한 말이였다. 예술
소조를 위해주는 작업소장의 마음이 고마왔다. 청
림이는 첫 식수자들 환영을 잘해주려고 산판류행의
жат나무꽃다발도 만들고 식수노래도 준비하고 북통
도 팽팽하게 불구어놓았다. 그런데 일이 뒤틀려질
줄이야...

식수대렬 맨 앞장에서 북통을 메고 식수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하던 영경이가 그냥 식수림지까지
따라갈 기색이였다. 청림이는 속이 왈칵해났다. 영
경이가 돌아서겠지 생각했으나 그런 기색이 없이
식수대렬을 따라올라가는것을 보고서는 내려가자
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청림동지, 우리도 식수를 하자요. 예? 나무한
대 심어보지 못하고 갔다가 노랗 잘못부르면 그랜
난 몰라요.》

영경이가 이렇게 나오는데다 이번에는 희극배우
라는 처녀가 영경이의 노래가 없어야 어린나무가
접접해서 뿌리를 내리겠는가고 하며 영경이의 팔을
잡아끄는바람에 청림이로서도 어찌는수 없게 되었
다.

자연히 예술소조는 한개소대가 되어 식수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청림이, 벌목소대동무들이 영경이를 부르누만.
영경이의 점심밥까지 싸왔다는거야. 보내주게.》

식수를 시작하자마자 작업소장이 하는 말이였다.
청림이는 영경이의 일을 두고 속이 부걱부걱 끓어
올랐으나 보내는수밖에 없었다.

《가보요. 련습도 다 튼관인데.》

청림이는 이렇게 돌덩이 던지듯 하는 말로 영경
이를 밀어보냈다.

이윽고 벌목조 식수림지에서 영경이의 노래가 울
려왔다.

청춘이라 자신을 부르기전에
조국 위해 바친 마음 새기여보라
80년대 붉은 기발 우릴 부른다
푸른 가슴 활짝 열어 숲에 바치자
아 우리의 청춘 오늘에 있어도
래일의 푸른 숲에 마음두고 사네

박수소리, 재청을 부르는 웨침소리들이 가을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숲에 떨어들었다.

《에익.》

참다못해 청림이는 나무모다래끼를 풀어던지고
말았다. 영경이에 대한 불만이 잣송이처럼 덩이져

불끈불끈 치솟아올랐던것이다. 영경이는 자신에 대
한 희망도 자기를 예술계에 내세워주려는 청림이에
대한 의리도 없는 녀자같았다.

(할수 없지, 극장무대가 싫으면야...)

청림이는 이렇게 단정해버리고말았다.

영경이는 식수가 끝날무렵이 되어서야 희극배우
처녀와 함께 나타났다.

《하루품이 남을것 같던 나무모들을 다 심은 비
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시와 노래〉의 주인공
영경이가 나무모다래끼를 차고 이 숲에 나타났기
때문이야요. 영경이가 우릴 도와준만큼 우리도 도
와주자고 대표로 내가 왔어요.》

희극배우라는 처녀의 말이였다.

영경이는 어느새 처녀들속에 끼워 나무구멍이를
파고있었다. 영경이를 보기만 해도 련습시간을 빼
앗긴것이 쓰거워 외면해버리고말았다.

청림이는 예술소조원들이 나무모를 손에서 떼기
바쁘게

《내려가 선전실에 모이시오.》 하고 큰소리로 웨
쳤다. 그리고는 앞장서 선전실로 내려왔다. 난로문
이 열려져있었으나 불을 피울 마음이 없었다.

이날저녁 영경이의 노래는 놀랄만치 아름다와 경
림이는 저절로 마음이 풀려였다.

×

예술소조가 떠나는 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숲의
검은 밤이 골짜기밑에서 시작된다면 푸른 아침은
숲우에서 내려오고있었다.

서둘러 몸단장을 하고있는 사시나무, 봇나무, 오
리나무가지들에서 움이 트고 진이 오르는 소리가
사처에서 도닥도닥 들리는듯하였다.

이 좋은 첫새벽 영경이는 림철길 로반우를 걷고
있었다. 아마도 떠나는날 아침을 호실에서 맞을수
없는 모양이였다. 하기야 남자의 가슴이 이렇듯 부
풀진대 섬세한 처녀의 마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영경동무도 나왔구만.》

청림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영경이는 가지런한
흰이를 빗내이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것이였
다.

새벽의 찬바람이 스치고지나갔다. 봄의 도래를
알리는 자연의 소개자라고 할수 있는 봄향기가 물
씬 풍기였다.

《청림동지, 식수림지를 좀 보고오겠어요. 어린
나무뿌리들이 제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영경이를 보니 간편한 작업복차림에 배
낭을 메고있었다. 무엇때문에 이 아침에 배낭을 메
고 나선지는 알수 없으나 림철객차가 도착할 때 가
지는 아직 시간이 퍼그나 있었다. 청림이도 숲이 빛
어내는 공기를 가슴이 찌원하도록 마시고싶어 《가
기요. 나도 가겠소.》 하고 따라나섰다.

어제밤이 좋아서 땅거죽이 얇은 안개발을 날리며 아침숨을 쉬고있었다. 각양의 락업으로 두터워지고 검어진 땅의 살결이 발목을 물어주며 숲에만 이 독특한 시큼한 냄새를 물씬물씬 풍기었다.

《영경동무, 이번에 노래를 잘 불러주오. 나도 힘껏 돕겠소.》

이것은 청림이가 영경이의 래일의 무대를 넘두에 두고 한 말이였다.

영경이의 얼굴에 아침보다도 더 맑은 신선한 빛이 어 리여있었다.

《청림동지, 노래를 부를 때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 40년, 50년세월이 흘러 개조림지의 무성한 숲을 벌목하게 될 때면 80년대에 산 사람들을 생각하겠지요. 아마 그때 우리 대신 숲이 말해줄지도 몰라요. 나라의 첫 산림개조공들이 심고 가꾸었다고말이에요. 정말 숲이란 철없는 애들처럼 거짓말을 모르니까요.》

영경이는 무대에서 다음절을 위해 간주를 탈 때처럼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잇는것이였다.

《정작 숲의 노래를 부르려 평양으로 떠나자니 마음이 벌나군요. 어린나무들이 따라가겠다고 자꾸 소리치는것 같아서.》

영경이의 말은 사람들이 의사를 주고받는 대사라기보다 하나의 운율이 담긴 마음의 노래라고 해야 할것이였다.

《그러니 내가 따라오기 잘했구만. 동무가 온 숲을 돌아보느라 객차 떠나는 시간마저 잊을테니말이에요.》

《아니예요. 얼마나 가고싶던 평양이라고 그걸 잊겠어요. 우린 학교때 기차만 타면 평양으로 가는 노래를 불렀구 농촌지원을 가면서도 <렐차여 달려라 사랑하는 수도로> 하고 노래를 부르곤했어요. 그러던 평양으로 가는데 시간을 어길수가 있어요.》

청림이의 마음은 그들먹해올랐다. 이번 평양축전의 성과는 영경이가 이제 한 말만으로도 확연히 기대할수 있었다.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을것이고 그로 하여 산림개조공들의 노래가 만사람의 환영을 받게 될것이였다.

《청림동지, 이것보세요. 떠나자니 어제 본 이 흙이 마음에 뛰어들어 절 여기로 불렀어요.》

식수림지아래 산길에 이른 영경이가 배낭을 벌리며 하는 말이였다. 보니 프락포르가 나무를 달고 내려올 때 꺼문어내려온 흙이였다.

《또 이 흙때문에 평양에 가서 노래가사를 잊지 않겠소?》

청림이는 며칠전에 영경이가 노래가사를 잊었던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혹 그냥 떠났으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뭐 글썽

자꾸 이렇게 좋은 흙을 끌어내기만 하면 숲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올라간 다음 비라도 오면 이 부식토가 그저 씻겨가고말텐데 그렇게 되면 손해볼거야 숲밖에 없잖나요. 이런 흙이 우리가 심은 어린 나무모들의 뿌리를 감싸준다면 나무가 얼마나 빨리 자라겠어요.》

영경이는 나무모들이 마치 막내남동생이라도 되는듯이 말하는것이였다.

청림이는 그만 무엇에 강한 타격을 받은듯이 머리가 쟁해났고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영경이가 배낭에 퍼담고있는 흙이 희미하게 보일뿐이였다.

나무모... 식수... 흙배낭...

이 순간 청림이는 영경이가 부르는 노래에 대하여 새로운것을 발견하고있었다. 그는 숲의 한그루의 나무, 한줄의 흙이 되고싶은 마음을 지녔길래 숲의 노래를 그처럼 사랑하고있는것이였다.

《영경이가 왔구만.》

우렁우렁한 작업소장의 목소리였다.

《아무래도 우리 주인공이 식수림지하고 인사를 하자고 숲으로 갈것 같애 내가 먼저 돌아보고나서 알려준다는게 그만 내 걸음이 늦었구만. 나무모들이 다 제자리를 잡았어. 개조림지가 숨을 쉬기 시작했단말이야.》

작업소장의 이 말을 듣는 청림이는 눈뿌리가 달아오름을 어찌는수 없었다.

《음, 흘러내려온 흙이로구만. 글썽 며칠전부터 식수림지에 뿌려놓은 부식토가 보이길래 숲에 금다람이라도 생겼는가 했더니 영경이였구만. 그럴테지, 청림이가 주인공감을 잘 골랐구던.》

청림이는 이제야 며칠전에 이 숲에서 배낭을 메고 서있던 영경이 생각이 났다. 그때도 이런 흙때문에 런습시간마저 잊고있은것이였다.

청림이는 무작정 영경이의 손에서 흙배낭을 받아 메려 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만두세요. 경림동지야 이제 평양에 갔다오면 이 숲을 떠날 사람인데 어린나무와 정붙이고 살 사람이 메여야지요.》

영경이의 이 말은 청림이의 손발을 얼구어놓았다.

《저는 가끔 내가 이 숲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쩔번했을가 하는 생각을 하곤해요. 우리가 심고 가꾸는 숲, 지저귀는 산새들, 맑은 물,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한 림산사람들, 저는 어딜 가도 이 숲이 못건디게 그리워 여기로 마음을 달리곤했어요. 제가 숲의 새노래를 가지고 평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자꾸 숲속을 헤매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구만요. 청림동지가 애써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다 잊은것도 노래가사에 자꾸 나무그루가 뛰어들었기때문이에요. 이제 일없어요. 어린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 새로운 림지가 또 생겨났으니깐요. 지금까지 저는 오늘처럼 기쁘고 즐거운 적이 없었어요, 자꾸 노래를 부르고싶어져요. 어디 가든 숲을 잊지 말아주세요.》

흙배낭을 멘 영경이는 그것을 누가 빼앗기라도 할듯 식수림지로 달음치는 것이었다.

《노래가사에 나무그루가 뛰어들다니?!

영경이! 나는 너를 몰랐구나.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처녀였구나. 그래서 노래한절을 두고, 어린나무를 두고 너는 그리도 생각이 깊었구나. 숲을 안고 사는 너의 마음이 이렇진대 너의 노래가 아름다울 수밖에야, 아!》

청림이는 영경이를 놓칠세라 온몸의 정력을 눈길에 모았다.

《청림이, 참말로 영경인 주인공자격이 있는 처녀야. 숲에 바치는 마음이 저렇듯 깨끗하니 그의 노래가 향기로울수밖에야. 우리 영경이는 작은 가슴에 조국의 큰 숲을 안고사는 처녀지.》

이렇게 말한 작업소장은 배낭을 벗어 흙을 쏟는 영경이를 점도록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난 우리들이 개조림지에 나무를 다 심고 떠날 때도 저 80년대의 구호들을 이 숲에 달아두려네. 다음 대에 이 숲에서 나무를 베여내게 될 사람들이 우리 영경이같은 마음으로 숲을 가꾸게말이야. 그럼 조국의 숲은 영원히 푸를게 아닌가.》

청림이는 목이 메여오며 말을 할수가 없었다. 청림이는 이 숲에서 보낸 몇년이라는 세월속에 숲에 들어찬 나무들의 생김새와 각양의 잎새들이며 나무들이 풍기는 냄새와 지어 이 숲에 피는 갖가지 꽃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에 대하여 가까운 친구의 얼굴과 말소리를 기억하듯이 알고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청림이는 오늘야 비로소 이 숲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준 인간들의 참모습에 대하여 새삼스레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었다.

영경이는 실로 나무를 떠받들고선 흙과 같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수분과 같이 이 숲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처녀였다. 청림이는 아직도 자기가 그에 대하여, 아니 숲에 대하여 너무나도 아는 것이 적음을 절감하였다.

청림이는 뽕얇게 안개가 피여오른 눈길로 크나큰 숲을 가꾸어가는 한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이 푸른숲에 깊숙이 뿌리내리는것을 망연히 느꼈다.

청림이는 생각하였다. 만약 꽃피는 우리 조국을 봄이라 노래한다면 영경이는 그 봄에 피는 꽃의 향기라고 말해야 할 것이었다.

×

예술소조원들을 태운 《밀림》호 림철기관차가

숲을 떠나고있었다. 영경이를 부르는 목소리들, 청림이를 찾는 웨침소리들, 바래우는 손길, 떠나는 손길, 숲의 이름없는 작은 도중역은 절정을 이룬 흥분의 파도로 설레고있었다.

봄철의 산새들도 별로 즐거운지 나무가지의 이슬을 털며 이른아침부터 끝짜기에 목청을 쏜다.

예술축전의 성공을 바라는 숲의 마음이런가 은비 단테프처럼 철길우에 차분히 드리운 안개가 차창우에 꽂아놓은 잣나무꽃다발에 이슬로 맺힌다.

손을 저으며 따라서는 정다운 모습들이 차츰 멀어져간다. 침목을 딛고 철길우에 우뚝 서 장대목같이 높이 쳐든 큰 팔을 내리울줄 모르는 산림개조작업소 소장이며 영경이를 위해 따다말리웠다는 오미자를 안겨주며 노래를 잘 부르려던 영경이의 전 작업소장이며 《희극배우》 처녀며 산림개조공들이 숲의 운치를 한껏 돋군 한쪽의 조선화처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고있었다.

차창밖으로 상반신을 내민 영경이가 발돋움을 하며 불길처럼 빨간 나이론꽃수건을 휘젓는다. 《밀림》호 림철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끝짜기에 긴 여운을 남기며 앞으로 앞으로 기세를 울리고있었다.

이젠 바래우는 손길들이 이미 멀어져 끝짜기뒤에 가버렸으나 흰파도우를 헤엄치는 붉은 산새처럼 영경이의 빨간 수건이 안개바다우에 더 강렬히 나뭇긴다.

《잘 있어-!》

영경이는 지금 멀리 바라보이는 새 림지의 어린 나무들과 인사를 나누고있는 것이었다.

청림이는 이 시각 다치면 터질듯 무한해진 가슴을 안고 영경이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더듬고있었다.

어느덧 영경이의 노래가 울리었다. 그소리는 청림이가 처음 매혹되었던 그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다. 아니 그보다 더 다듬어진, 사람들의 심정을 아름답게 해주는 노래였다.

순간 오래동안 풀수 없었던 의문의 매듭이 스스로 풀려니가듯한 만족감이 가슴속을 뿌듯이 채워주었다.

(아,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예술, 그것은 정녕 어디에서 온것일까? 아름다운 목청의 울림인가? 세련된 몸매의 톨동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악기의 절주있는 선율인가? 아니,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저렇듯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는 인민들의 숭고한 감정의 폭발에서 온것이 아닌가.)

이제 멀지않은 래일 사람들은 텔레비존화면을 통하여 영경이의 저 노래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노래에 이끌리어 나날이 푸르려가는 조국의 숲속을 거닐어볼수 있으리라!

출 생 증 외 1 편

김형준

하루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안해는 나에게 보여주네
딸애의 출생증

주소는
보통강구역 보통강동
이름은 수복이
출생증 색깔도 물색

아, 물녘에 태어난 죄던가
홍수에 부모 잃은

내 어린시절 보통강은
실음과 눈물의 강이었건만

오늘은 물녘에서 사는것이
그지없는 행복이어서
집주소도 강의 이름
아기의 이름도 물의 이름

나는 감격에 울고...
안해는 기뻐 웃고...
아기는 단잠을 자는데
나의 눈에선 또 한줄기의 보통강이 흐르네

물은 인간의 창조물이였다

(평남판개유래비앞에서 부른 외국인의 노래)

머리를 들어 바라보아도
구름가에 밝게 웃는 붉은 해
머리숙여 바라보아도
물속에 잠겨 웃는 붉은 해

하늘이 내려앉은듯
끝간데없이 펼쳐진
산중의 바다 《연풍호》의 기슭에서
물을 기원하며 불모래속에 묻혀있는
나의 조상들의 넋을 깨워 푸른 물에 적서본다

...세기를 두고 대륙에 휘감긴
노예의 쇠사슬은 풀어헤쳐어도
광판하는 자연의 횡포앞에
운명의 고삐를 말긴채
나의 대륙은 자연의 노예였다

생명수 흐르던 강바닥엔
모래바람이 자갈을 굴리고
눈물마저 불이 되어
불을 태우는 더위앞에서
물은 피보다 더 귀한 생명의 젖줄기

비를 달라고 한줄기의 비를!

《물의 신》앞에 제물을 고이고
피가 물로 되기마저 바라며
피멍든 무릎을 꿇었어도
그마저도 갈증에 몸부림쳤노라

허나 내 오늘
여기서 툭툭히 보았노라
수문을 넘는 푸른 물 마시며
누리에 파도치는 황금이삭 황금벌...
높이 쌓은 제방아래
세세년년이 무릎을 꿇고앉은 만풍년의 모습을

오, 나의 대륙의 사막이여
기원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대의 용맹한 갈기를 휘여잡고
대륙을 갈아엎고 생명수를 부어줄
천만년을 기울여도 마르지 않을 푸른 호수를
내 심장에 안고가나니

물은 자연이 주는것이 아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들이 창조한
거창한 창조물!
물은 철쇄를 마는 인간의 손에
자기의 고삐를 스스로 말기려니

대륙을 적실 물은 어디서 흐르는가
누구든 나에게 묻는다면
내 거침없이 쉼이리라
지구의 동쪽나라 조선을!

그리고 후세에 전하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사랑의 지점을
나의 대륙에 물을 이끌어준 리정표로
세기의 갈증을 가져줄 사랑의 오아시스로!

올 때마다

권강일

마치도 내 처음 온듯
해빛에 싸인 수도의 거리를
기쁨에 넘쳐 걸어간다
환희에 넘쳐 바라본다

하도 높아 머리 젖히고 쳐다보는
버드나무거리 저 아득한 창문들은
전설처럼 빨리도 솟아오른 집
내 마음도 나래돌쳐오르는 집

좋아라
봄을 맞은 과원이 여기에 흘러온듯
두줄로 뻗은 가로수들이
온통 꽃구름에 뒤덮인거리
내 가슴에도 환희로이 꽃이 피는 거리

볼수록 맑은 하늘, 넘치는 빛발-
얼마나 좋은가
새로운 류행의 봄옷차림
그로 하여 더 고와진 처녀들을 보며
내 누이에게 이야기해줄
수도의 소식을 마음속에 새겨두는것도

들리면 그 어느 극장도 간이매점도
몰라보게 변한 모습으로
나를 더 반갑게 이끌어세우고
바라보면 새로 생긴 공원들도 흥성여~
전날에는 여기가 어떠했던가
생각 더듬어보는 즐거움이여

올 때마다 밝게 아름답게
단장하며 솟아오르는 평양
올 때마다 활기롭고 더 즐기차게
생활의 기쁨으로 설레는 평양

아, 그래서 오고 또 와도
언제나 처음인듯 새롭고
그래서 떠나서는 다시 그리워
내 마음 달려오던가 달려와 안기던가

인민을 위해 인간을 위해
온갖 아름답고 숭고한 모든것이
숨쉬며 고동치며 태어나고 솟아나는
평양은 심상
나는 그 심장에서
영양소를 받아안고 돌아가는 피방울

내 억만세포들이
여기서 더욱 맑아지고
깨끗한것으로 가득차
온몸은 생신한 힘과 열정으로 끓는다

아, 나의 노래 나의 자랑 평양!
나의 영광 나의 행복 평양!
여기서 내 한일 스스로 총화되고
새로운 각오가 말없이 다져져
큰 걸음 내딛는다
큰 자욱 내딛는다

형제의 나라 소련에서

홍석중

4. 걸출한 인간에게는 오직 세상에 래어난 날만이 있을뿐이다

《폭풍! 오래지 않아 터지리라, 폭풍이!... 폭풍 아, 더 힘차게 터져라!》

모름지기 우리의 독자들은 막싹 고리끼의 작품 《해연의 노래》에서 무시무시한 바다의 폭풍과 우뢰속을 헤가르며 웨치는 용감한 해연의 부르짖음을 잘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과 소련작가동맹의 창건자인 알렉세이 막시모위치 고리끼는 바로 자기 작품에 나오는 해연처럼 사회주의혁명의 위대한 폭풍속에서 투쟁의 기수로 가장 빛나는 길을 걸어온 걸출한 작가이다. 그렇기때문에 웅당하게도 소련의 벗들은 창건 선물을 맞는 자기들의 명절기념휘장에 막싹 고리끼의 초상을 새겨넣었으며 기념회의 초대장에는 《...막싹 고리끼에 의하여 창건된...》이라고 자랑스럽게 그의 이름을 밝힌것이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기간 고리끼의 저작박물관을 찾아보았다.

장편소설 《고난의 길》의 저자인 아, 폴스포이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옛거리에 짜리로씨야의 퇴역장군인 어느 백만장자가 지었다는 2층집이 있었다. 1932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고리끼를 위하여 소련정부가 특별히 골라서 제공한 집이라고 한다. 집 맞은편에는 아, 폴스포이가 살던 건물이 있고 옆에는 뿌쉬킨이 결혼피로연을 하였다고 전해지는 건물이 있다.

막싹 고리끼는 1932년부터 1936년 기간에 줄곧 이 집에서 살았다. 집은 크고 호화로웠으나 왜그런지 안에 들어서면 어수선하고 안정감이 없어보였다.

나의 말을 들은 해설원은 웃으면서 그 까닭을 설명해주었다. 이 집을 지은 백만장자는 변태적인 취미를 가진 인간이어서 집의 구조와 모든 장식이 파괴된 조화, 동적인 불안정속에 있기를 바랐다는 것이었다.

건축가는 그의 변태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주었다. 벽과 색유리의 장식들은 모두가 폭풍, 파피, 몸부림, 울부짖음의 상징적인 그림들로 이루어졌으며

지어는 2층으로 올라가는 대리석란간조차도 층계 위에 선 사람의 머리우까지 높이 뛰어오른 파도의 흰 갈기처럼 형상되어있었다. 순간이 지나면 그 파도가 머리위로 덮쳐워질듯 마음은 불안해지고 층계를 오르는 걸음은 조금해진다.

무위도식하는자들의 변태취침미가 결코 새삼스러운것은 아니였지만 마땅히 따뜻하고 아늑해야 할 보금자리를 마치 비뿌리고 바람부는 추운 늦가을 날 홀웃바람으로 뒤번지는 바다가에 나선듯한 음산한것으로 애써만들려는 악취미를 리해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해설원의 말에 의하면 고리끼는 정부의 배려를 고맙게 받아들이면서도 집의 물취미한 구조와 장식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집안을 되도록 아늑하게 만들려는 그의 노력의 자취가 엿보였다. 행뎡그레한 앞현관문을 닫아버렸으며 소위 동적인 인상을 주는 기괴한 장식의 호화로운 가구들을 많이 들어냈다.

고리끼는 이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 둘을 데리고 함께 살았다. 고리끼가 이곳에 자리를 잡자마자 이 집은 곧 소련문단의 중심지로 세계적인 문학의 객실로 변하였다. 온 나라와 세계 각곳에서 수많은 문인들이 이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때까지 고리끼와 서면으로 교우관계를 가지고있던 로만 톨랑도 이 집으로 찾아왔었다.

고리끼는 주로 아래층에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창작실, 서재, 응접실, 침실, 서기실 등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곳은 서재와 창작실이었다.

근 만여권의 장서를 가진 서재에서 고리끼의 다양한 지식의 폭과 독서의 깊이를 짐작해보는것은 흥미있는 일이었다. 흔히 우리들은 고리끼를 곡절 많은 그의 생활과 풍부한 체험이 만들어준 인간학의 수재로 알고있다. 그러한 규정의 인식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는 불문하고 그의 장서를 통해 명백하게 알수 있는것은 그가 말년에 이르기까지 한 순간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열렬한 독서가였으며

인내성있는 지식의 탐구자였다는 사실이다.

그의 창작실은 아주 검박하고 깨끗하게 꾸려져 있었다. 선택된 문방구는 실용적인것들뿐이었다. 절제있고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가의 일터라는것이 첫눈에 알렸다.

이 방에서 우리는 해설원의 재미있는 설명을 들었다. 고리끼는 아침 여덟시가 되면 어김없이 책상에 마주앉았다고 한다. 그는 하루 창작의 첫 시작을 시를 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창작된 시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았는데 물론 그중에는 훌륭한 시들이 있었다. 그런데 고리끼는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자리에서 불태워버리곤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집안사람이 그에게 그 까닭을 물은즉 그는 자기가 아침마다 시를 쓰는것은 창작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신적인 아침체조와 같은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해설원은 고리끼의 근면성에 대하여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고리끼는 다부작장편소설 《클림썸킨의 생애》를 집필하고있었다. 그는 긴장하게 일하였다. 정해진 휴식시간이 아니고는 절대로 책상앞에서 일어서는 법이 없었다.

고리끼는 소위 예술가적인 령감에 대하여 떠들면서 산만하게 창작하는 작가들을 엄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진정한 예술적인 령감이란 서퍽짜리 문필가들이 곧잘 흉내내듯이 방황이나 모대김의 그럴듯한 연기속에서 떠오르는것이 아니라 책상앞에 마주앉아 꾸준하게 쓰고 또 쓰는 근면한 로동속에서 얻어지는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책상우에는 금시 쓰다만듯한 흰 팔절지의 초고가 놓여있었다. 고리끼의 생생한 필적을 들여다보느라니 문득 그의 장편소설 《어머니》에 나오는 한녀성혁명가의 이런 대사가 떠오른다.

《...죽었다? 죽었다는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 래 그 동지에 대한 나의 존경이 죽었다단말이에요?... 그 동지에 대한 나의 사랑,...용감하고 성실한 인간으로 나의 머리속에 아로새겨져있던 그에 대한 나의 표상이 무너졌단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죽지 않을겁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인간을 두고 그가 죽었다는 말을 하는것은 너무 속단인것 같아요.

〈사람의 입은 죽어도 남긴 말은 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그리고 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말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누구보다 고리끼의 작품속에 담긴 말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귀중한것들이라는것을 꼭 부언해두어야 할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고리끼저택박물관을

나섰다.

마가울의 락업이 뒤덮인 쏘련작가동맹청사 앞정원에는 레브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청동상이 있다. 이따금 타자기의 단조로운 소리가 들려올뿐 주위에는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는데 원고를 펼쳐들고 앉아있는 톨스토이의 모습은 마치 그 정적속에서 깊은 사색을 더듬고있는듯했다.

홀어진 머리카락과 텅석부리 수염, 수수한 농민의 웃웃, 허술한 차림속에서 더욱 두드러져보이는 탁월한 예술가의 예리한 눈길... 무엇인가 정신적 창조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듯싶은 상징적인 모습이였다.

하긴 상징적이란 말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쏘련을 방문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이 기회에 그의 사적지를 찾아보고싶어하는 그 소원의 바탕을 무엇으로 설명할것이라.

우리는 다른 외국의 벼들과 함께 톨스토이의 저택박물관이 있는 야스나야폴랴나로 떠났다. 톨스토이의 옛 장원인 야스나야폴랴나는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250키로메터가량 떨어진 톨라주에 있었다. 울창한 숲과 가없이 넓은 들판을 뚫고 내뿜은 고속도로로 뺄스가 달렸다.

세시간은 실히 달린끝에 뺄스는 톨라시에 다달았다. 톨라시라면 짜리로씨야의 중흥에 크게 이바지한 로씨야 병기공업의 첫 발상지이다. 뽀또르1세에 의하여 비천한 대장쟁이로부터 일약 공작으로까지 출신한 톨라현의 데미도브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과 영화를 통하여 우리 독자들도 알고있을것이다. 력사가 깊은 도서라 무엇인가 색다른 풍경이 있을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지나가며 바라보니 류다른 특징을 머리속에 간직하기 어려운 평범한 지방 도시에 불과하였다. 혹시 쏘독전쟁의 가렬처절한 불길속에 채더미로 되여버린 옛도시를 전후에 재건한때문이 아닐가...

말이 났으니말이지만 톨라시는 쏘련의 서부전선군과 모스크바를 노리고 달려들던 히틀러의 구데리안땅크집단군이 공방전으로 일진일퇴를 벌린 최전연지대였다. 그러니 전화에 짓밟혔던 톨라시에서 색다른 옛풍경이 고적을 찾으려는 나의 기대가 부질없는것일수도 있는것이다.

톨라시를 지나자 뺄스는 곧 야스나야폴랴나로 통하는 수림길에 들어섰다.

아득히 높은 우듬지가 길쪽으로 휘여든 봇나무 숲속에 저택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철책의 대문이 있었다.

대문안에 들어서서 왼쪽으로는 큰 늪이 있고 오

른쪽으로는 비탈밀 진펄을 가로지른 낮은 통나무다리가 내려다보인다. 맑은 하늘우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해빛이 수려한 정원숲의 아지사이로 부채살처럼 비껴드는데 우수수 바람이 일 때면 날리는 단풍이 빨간꽃잎처럼 머리우에서 춤을 춘다. 후미진 늪가에는 하루살이떼가 엉켰고 누렇게 시든 풀대우에는 고추잡자리가 줄고있다. 물면우로 낮게 휘여든 늪은 버드나무우의 껍질벗겨진 흔적은 농군차림의 작가가 낚시대를 드리웠던 옛 자취가 아닌지...

이곳은 마치 옛이야기의 마술에 걸린 성안처럼 시간과 세월의 흐름을 잊고 백년동안 그모습 그대로 잠들어있는듯싶다. 철책으로 둘러싸인 이 장원속에는 우리가 톨스토이의 소설을 통해 친숙하게 알고있는 로씨야장원의 각이한 풍경이 함께 집약되어있었다. 어찌보면 볼썽스끼 로공작의 은둔처에 들어선것 같고 어찌보면 레윈의 사랑스러운 령지에 불쑥 발을 들여놓은것 같다. 그도 그럴것이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는 모두 이 장원의 맑은 해빛과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의 정기속에서 잉태되어 탄생된 대작들이기때 문이다.

정원길로 한동안은 실히 걸어들어가서야 톨스토이의 옛 저택이 나타났다. 작지 않은 2층집이었으나 상상하던만큼은 크지 못했다.

좁은 현관과 좁은 복도와 좁은 방,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구식가구들과 이방 저방에 빼곡하게 들어찬 2만5천여권의 장서, 톨스토이는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나 생애의 마지막까지 살았고 불면불휴의 창작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것이다.

집안의 곳곳에 톨스토이가 남긴 창작적 고심과 노력의 흔적이 완연하였다. 그의 장서속에는 일본서적들이 꽂혀있었다. 열다섯개나라의 말을 통달한 그가 팔십말년에 일본어를 배우려고 팔을 부르곤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지만 그것도 고평의 그 나이에 《부활》과 같은 대작을 쓴 작가라면 믿을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저택을 나와서 톨스토이의 묘가 있는 《푸른 지평이골짜기》로 향했다. 《푸른 지평이골짜기》란 생존시 톨스토이가 즐겨 걸군하던 산보의 올림길끝에 있는 길지 않은 계곡이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 골짜기에는 푸른 지평이가 파묻혀있는데 그 지평이를 찾아내는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하였다 한다. 어린시절 톨스토이는 형제들과 함께 그 지평이를 찾으려고 골짜기를 한없이 헤매고 다녔다. 결국 행복의 푸른 지평이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이 그 골짜기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였었다.

림종시에 톨스토이는 자기를 그 골짜기우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다. 그는 아무런 묘비도 없이 남의 눈에 띄우지 않는 한적한 숲속에 유년시절의 행복한 추억과 함께 누워있기를 원하였던것이다.

아름드리의 나무가 우거진 숲속으로 뻗은 올림길은 퍼그나 멀었다. 우리 일행의 앞에는 갓 공청에 가맹한 톨라시의 청소년들이 가고있었고 조금 떨어져서는 멀리 이웃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찾아왔다는 중년부부가 숨엄한 얼굴로 조용히 걷고있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떠엄떠엄 이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는데 그들속에는 옷차림이 유표한 서구라파의 관광객들도 섞여있었다.

드디어 길이 끝나고 둔덕의 막바지에 올라섰다. 밋밋한 골짜기가 퍼져내려가는 둔덕끝에 톨스토이의 무덤이 있었다. 그의 유언대로 묘비는 없었고 한치도 되나마나하게 흙으로 쌓아올린 초라한 제형봉분이 전부였다.

그렇지만 그의 무덤은 화려한 꽃들로 뒤덮여있었다. 찾는 사람마다 한송이씩 가져다놓는 꽃들은 미처 시들새없이 생신한 새꽃속에 파묻히고만다. 사철 향기 그윽한 꽃으로 봉분의 높이가 배로 커지는 이 소박한 무덤을 어찌 제왕들의 차디찬 대리석릉에다가 비길것이라.

우리들의 눈앞에서 톨라시의 새세대들이 무덤우에 꽃송이들을 뿌린다. 중년부부는 수백키로 멀리 집에서 가져온 흰 장미꽃을 놓는다. 덧쌓이는 꽃송이의 사이사이로 단풍잎들이 소리없이 내려앉는다.

우리는 한동안 무덤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삶이란 바로 이런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삶을 지닐만큼 가치있는 정신적재부를 인류에게 남긴 사람은 비록 티끌속에 묻혀도 화려한 꽃으로 소생하고 권력과 재부로 영원한 삶을 이으려는 속된자들은 비록 수백척높이의 피라미트를 쌓아올려도 종내는 사막의 황량한 모래속에 파묻히는 법이다.

《...결출한 인간에게는 오직 세상에 태어난 날만이 있을뿐입니다...》

이것은 고리끼의 장례식에서 어느작가가 한 영결사의 한구절이다. 이 말은 톨스토이에게도 해당된다. 그에게도 사망일은 없다. 근 팔십여년동안 스스로 찾아드는 사람들의 손길에 꽃으로 뒤덮이는 저 무덤이 그것을 훌륭히 증명해주고있다.

(다음호에 이음)

쪼박무이 꽃방석

한원군

방직공처녀들의 맑은 웃음소리 넘쳐나는 구내길을 걷던 나는 문득 숙보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쪼박무이 꽃방석 !》

숙보판에는 생필직장 재봉작업반원들이 버들잎같은 쪼박천으로 꽃방석을 만들고있다는 소식이 나붙었다.

(버들잎같은 쪼박천으로 꽃방석을 만들다니?!)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충격이 내 가슴에 와닿은 듯싶다. 내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생필직장 재봉작업반으로 옮겨졌다. 공장을 찾는 사람들속에서 구내의 한쪽 유측에 자리잡은 생필직장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이 공장, 하루에도수십만메터의 비단필이 폭포쳐내리는 수도의 대방직공업기지-평방 ! 실 뽑는 방적종합직장에 가도 보이느니 산갈은 실더미요, 천짜는 직포종합직장에 가도 보이느니 산갈은 천더미다. 그런가 하면 염색종합직장에 가면 어디에나 오색무늬 비단필이 바다처럼 펼쳐져 말그대로 비단바다이다.

이처럼 큰 방직공장에서 생필직장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거기에 또 재봉작업반이 있는지는 알수조차 없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큰 방직공장에서 버들잎같은 쪼박천은 그야말로 망망한 바다에 뜬 한갓 티검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쪼박천으로 훌륭한 꽃방석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푸수하고 인상좋은 작업반장의 안내를 받아 재봉작업반에 들어섰을 때였다. 마흔대여섯 된직 한 중년의 녀성 두명이 큼직한 마대를 들고 따라들어서는것이였다.

《이 동무들이 직포, 염색현장들에 나가서 이렇게 쪼박천들을 모아오군한답니다. 이것을 크기와 색깔로 골라서 방석도 만들고 누비포단도 만듭니다》

작업반장은 자랑스런 어조로 말하였다.

하긴 나도 공장의 여기저기에서 이런 쪼박천들을 수없이 봤었다.

그러나 천필통구리들에 대조되어서인지 언제 한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여기서서는 그것이 귀중한 제품원료로 된것이다. 정말

놀랍다. 20여명의 재봉공들이 하나같이 쪼박천들을 재봉바늘밑에 설새없이 들어밀며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문양섞인 꽃방석, 색깔고운 베개모, 애기들의 달린옷, 무이치마, 아동모자, 아동배낭, 화분받치개, 가구장식품, 바늘쌈지...

희한하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필요한것이 아닌가.

《우리 작업반에서 생산되는 50여종의 제품들은 시내 백화점들과 구역직매점들에 나가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작업반장이 한 말이다.

그도 그럴것이 내 눈에도 만든 제품들 모두가 탐탁하고 알뜰하고 쓸모있어보인다. 나는 일에 여념이 없는 재봉공들을 다시 쳐다보게 된다. 울긋불긋한 머리수건, 산뜻한 작업복... 어디서나 흔히 보게되는 평범한 녀성들이다.

하나 어버이수령님의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가위밥, 자투리, 쪼박천들을 자체로 수집하여 이처럼 훌륭한 생활필수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 이들이야말로 나라의 참된 살림꾼들이 아닌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숭엄한 교시는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두터운 신임과 믿음의 표시이며 한알의 쌀, 한그람의 기름, 한치의 천이라도 아껴쓰고 절약하여 사회의 물질적부를 더 많이 창조할것을 바라시는 절절한 호소이다.

나는 언젠가 농촌지원을 나갔다가 벼날가리 아슬한 탈곡장에서 한알두알 흩어진 벼알을 줏고있는 실농군의 참모습앞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한적이 있다.

날마다 살림이 늘어나고 날을 따라 행복이 커갈수록 알뜰하고 간진 마음만은 변함을 모르는것이 우리 인민의 생활기풍이다.

버들잎같은 작은 쪼박천들이 촘촘히 누벼져 아름답고 훌륭한 꽃방석이 되듯이 한알의 쌀, 한치의 천 이하도 허실없이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려고 이처럼 아글타글 애쓰는 참된 마음들로 무어진 조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번영하는것인가!

나는 조용히 재봉작업반을 나섰다.
 꽃리봉에 꽃신, 문양고운 덧옷을 입은 유치원 꼬
 마들이 옥- 밀려온다.
 《여기서 꽃배낭 만든다.》
 《우리 치마도 만들어.》
 《야! 저거 꽃방석이구나!》

짙고 까불며 재잘거리는 꽃같은 모습들. 그들을
 바라보는 내 가슴도 불타올랐다.
 은혜론 사랑 날을 따라 행복을 더해주는 이 땅우
 에 성실하고 알뜰한 마음으로 무어진 아름다운 충
 성의 꽃방석에 나도 한조각의 버들잎천으로 되고
 저...

하나의 모습

림공식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장대같은 비줄기
 행군의 먼길에 물장벽을 세우고

어깨에 젖은 장구류는
 천근만근이런가
 발목엔 자석이 달린듯
 걸음걸음 힘겨워

들 지나 산 넘어 가고갈수록
 순간 또 한순간
 나도 모르는사이
 발걸음이 떠질제

누구더냐
 어머니의 손길처럼 나의 등을 떠밀며
 마음의 끈을 늦추면 안된다고
 자, 부쩍 기운을 내라고
 귀전에 속삭여주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 가슴을 처
 문득 뒤를 돌아보니
 행군의 실참에 무릎을 맞대고
 허물없이 룡도 주고받은적 없어서인가
 아직은 왜서인지 서먹서먹한
 아, 새로 온 정치지도원

그래도
 나를 바라보는 믿음어린 시선
 정겹게 보내주는 밝은 미소
 내 못잊어 그리던 그 모습

떠나간 옛정치지도원이런듯

힘을 주는 그 목소리
 언제인가 내 첫 근무를 설 때
 나와 함께 긴긴 겨울밤을 전호에서 지새며
 병사는 조국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뜨겁게 속삭여주던
 옛정치지도원의 그 마음아닌가

지칠줄 모르는
 열정의 저 눈빛은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보람찬 위훈의 한길로 이끌어주던
 언제나 못잊는 그 눈빛이여라

떠나보낸 정치지도원
 새로 맞이한 정치지도원
 이들의 생김과 성격은
 서로 달라도

위대한 수령님 바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끄시는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이 몸을 곧바로 떠밀어주며
 당의 해발로 감싸주거니

그 마음들 하나같이 뜨겁고
 그 진정 하나같이 깊고깊어
 이 가슴에 안겨오누나
 새로왔어도 낯설지 않아
 떠나갔어도 잊혀지지 않아
 둘이면서도 정다운 하나의 모습으로-

소설은 왜 과녁을 잃고 빗나갔는가?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을 읽고-

강성만

얼마전 나는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한운작)을 다시한번 되새겨 읽게 되었다.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작품에 기울인 작가의 열정과 노력을 찾아볼수 있었으며 또 《80년대속도》로 달리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과 같이 숨쉬고 전진하려는 작가의 뜨거운 숨결도 느낄수 있었다.

당정책에 대한 민감성,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달리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리고 일부 성격묘사와 심리분석에서의 정확성. 생동성은 작품의 중요한 긍정점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소설을 읽고난뒤 나를 괴롭게 한것은 작가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과녁을 잃고 빗나갔다는 아쉬움과 작품에 대하여 작가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싶은 안타까움이였다.

내가 지금 이 붓을 들게 된것도 이 건잡을수 없는 충동에서 온것이다.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으로 되고있는것은 230만톤 대발파라는 작품의 기본사건속에 주인공의 성격들이 파묻히고 작가가 성격과 형상을 통하여 말하려는 종자와 기본사상이 독자들에게 뚜렷하게 안겨오지 않는 그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사상과 주제를 밝히는데서와 성격과 생활을 그리는데서 커다란 손실을 보고있다.

인간학인 문학작품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인공의 성격이 서게 되며 그것은 모든 작품들에서 종자와 사상의 담당자로 나타난다는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성격을 발전속에서 성장속에서 보여주는 소설문학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소설에서 매등장인물들은 모두 자기의 독특한 종자의 묵과 형상의 묵을 가지고 등장하며 그것으로써 작품의 총체적인 사상과 종자를 밝히는데 복종한다.

그러므로 소설에서는 기본주인공이든 부차적인물이든 그들의 성격은 생동한 형상으로 살아숨쉬어야 한다.

그러나 성격이 사건속에 파묻히고 복잡한 생산기술적인 서술속에서 형상의 빛을 뿌리지 못하게 될때 그 작품은 작가의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힘에 있어서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결함을 낳게 된다.

이러한것을 우리는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에서 보게 된다.

작품은 처음부터 230만톤 대발파라는 기본사건

을 강하게 심어놓고 이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못나가 하는 문제해명에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복잡한 기술실무적이고 생산적인 문제에 매여달림으로써 인간과 그 생활을 옳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인간학으로서의 소설작품의 본성을 옳게 살리지 못하고있다.

작품은 기본주인공 종혁이 어느 한 자그마한 탄광에서 지배인으로 사업하다가 당의 큰 신임을 받고 서부탄전에서 굴지인 어느 로천탄광지배인으로 배치되어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있다.

작품은 이 첫 장면에서부터 독자들을 230만톤 대발파라는 소설의 기본사건 해명에 주목을 돌리게 하고 이것이 당의 요구대로 탄광을 년산 1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와 세계의 발파력사에서 얼마나 커다란 기술경제적의의를 가지는것인가 하는데로 이야기를 끌고가고있다.

주인공 종혁이 탄광에서 만나는 첫사람인 창술과의 첫대화가 바로 230만톤대발파문제에 집중되고있으며 또한 기사장 오성민이 백대갱의 담당기사 명균을 소개하면서 말하는 첫 이야기도 역시 이 발파문제에 쏠려진다.

물론 이것은 소설들에서 흔히 첫 장면들이 성격과 사건을 제시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주며 정황을 명백하게 심어주는데 돌려진다고 생각할 때 일정한게 리해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첫 장면들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 그들을 주인공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로 이끄는것보다 복잡한 생산기술적문제에 골똘하게 만드는것은 작가가 독자들의 시선을 주인공들의 성격과 그들의 심리적변화에 집중시킬 대신 잡다한 생산공정들과 생산정황들, 수자들과 번호들 그리고 생산기자재의 움직임 등을 보여주는데 돌리고있기때문이다.

인간학적요구로 보더라도 여기서 작가의 창작적 사색은 웅당 자그마한 탄광에서 큰 탄광으로 조동되여온 주인공의 사상심리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여주어야 했을것이다. 그의 기쁨과 궁지, 그의 결의.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려는 그의 충성심이 그려져야 했을것이다.

또한 생산기술적문제들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관계들보다 우선 인간관계들이 잘 맺어져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이는 탄광의 규모나 크기, 작품의 기본사건인 230만톤대발

파의 생산적의의와 규모 등에 주목을 돌리고 여기에 많은 장면들을 배치다니니 작품은 파분하게 되지 않을수 없었다. 불과 몇폐지 안되는 1절에 라렬된 《2만도 놀라운데 230만톤대발파》, 《31호굴착기운전수》, 《3-4년만에》, 《두대의 자동차》, 《19호, 31호, 20호, 27호, 18호 등으로》 불리우는 굴착기, 《18호막장》 《백만톤짜리탄통》 《3천톤이상》의 탄통, 등 수자들을 들어보는것만으로도 이것을 능히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이 작품이 비록 일부 장면들에서 성격묘사의 견지에서나 생활을 탐구하는데서 좋은 화폭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웅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것은 중요하게 작가가 독자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형상을 그리지 못하고 잡다한 생산공정과 사건에만 매여달리였기때문이다.

작품은 소설의 거의 중심을 이루는 8절까지에서 명균에 의하여 설계되고 기사장 오성민에 의하여 부결된 230만톤대발파 설계도면을 생산에 받아 들여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야기를 집중시키었다면 그후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생산에 받아들인 설계가 실제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문제에 독자들의 주목을 이끌고있다. 설계는 기술집단에 의하여 과학성이 담보됨으로써 하는것으로 채택되며 그것은 또 창술, 영실, 옥회 등 광범한 대중들의 지원에 의하여 미구에 성공을 보게 되며 그리하여 230만톤의 대발파는 작품에서 지진계를 흔들어놓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작품에 수록된 이 기적적이고 장엄하며 영웅적인 사건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앞부분 몇장을 읽고나면 견인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문학작품의 견인력은 결코 그 어떤 기적적인 사변들이나 웅대한 사건들에 의하여 담보되는것이 아니다. 문학작품의 견인력은 성격과 형상의 매력에 있으며 성격과 형상에 의하여 피어난 종자의 철학적깊이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건의 웅장함과 장대함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긴장감을 일으키나 미학적감정으로서의 숭고한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소설에서 처음부터 주인공의 운명발전이 뻔드름하고 그에 대하여 깊은 기대와 사색을 하지 않게 되는것은 사건의 결속이 명백하고 인간들의 운명행로가 허두에서 이미 주지의 사실로 안겨오기때문이다. 《230만톤 대발파는 반드시 실현된것이며 영실과 명균의 사랑도 맺어지고 말것이다.》 라는 결속은 이미 이 작품의 몇절만을 읽게 되면 명백해진다.

이것은 이 작품으로 하여금 사상미학적인 견인력을 잃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은 종자를 밝히는데서와 독자들을 투쟁으로 부르는 의의있는 사상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있다.

소설은 당정책적견지에서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종자를 제시하고있으나 형상적으로 잘 가꾸지 못함으로써 깊은 사상을 독자들에게 안겨주지 못하고있다.

소설은 작품의 중심에 서있는 종혁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기사장 오성민과의 갈등관계를 통하여 《80년대속도》로 달리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의의깊은 당에 대한 굳은 신념문제. 마음의 기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하였다.

230만톤 대발파가 실패하는 날에는 나라에 큰 죄를 짓게 되는것으로 된다는 운탄직장 창고장 아바이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잠긴 지배인의 처가 측은한 마음을 안고 남편에게 진짜 대발파가 성공할수 있는가고 묻는 장면에서 주인공 종혁이 그에게 굳은 신념을 심어주는 다음의 대사는 이 작품의 종자를 시사해준다.

《오직 당만을 믿고 당에 충성다할 결심만 굳으면 무슨 일이든 꼭 성사하기 마련이요. 설사 실패한다고해도 어머니당은 자기 자식이 조국과 혁명을 위해 바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결코 나무람하지 않소.

이건 내 하나의 신념이 아니요.》

이것은 주인공의 이야기인 동시에 작품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사상이며 종자이다.

작가는 이 대사으로써 당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기적적인 사실앞에서 책임이 두려워 자기 하나의 생활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듯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심중한것》으로, 《나라를 위한것》으로 자처하는 요령주의자들. 보신주의자들, 비집분자들에게 된매를 안겨주려하였다.

여기에 바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달리는 우리 현실과 함께 전진하려는 작가의 창작적량심이 깃들어있었으며 당적립장이 있었다.

작품은 이 종자를 밝히는데서 기본주인공인 종혁이와 부정인물인 기사장 오성민의 성격을 갈등관계속에 대립시키고있다.

기사장 오성민은 결코 자신을 요령주의자로 보신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80년대속도》창조 이전시기까지만 하여도 나라에 많은 보탬을 준 일군이였으며 실제로 또 그렇게 사업하여 왔다.

그러나 그는 오늘에 와서는 자만하게 되었으며 230만톤 대발파앞에서 겁을 먹게 되었다. 그에게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만을 믿는 든든한 신념이 없었기에 동요하였으며 겁에 질려 자기 하나의 운명과 전도만을 생각하는 속물로. 비속한 인간으로 떨어지고말았던것이다.

책임때문에 대발파를 두려워했다는것이 이미 도저히 숨길수 없는 주지의 사실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앞에서 자기의 진면모를 가리우려고 발버둥치는 오성민의 형상은 작품에서 어느정도 생활적진실을 가지고 안겨오는데가 있다.

작가는 오성민의 성격발전의 논리를 통하여 그를 우리 현실에 있는 부정은 비록 우리 제도를 반대하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의 향락과 안일에서 출발한 낡은 사상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은 완강한 투쟁을 동반한다는 진리를 확증하려고 하였다. 작품은 오성민의 성격에 기본주인공인 종혁을 대조시키고 있다.

주인공은 대학을 졸업하고 15년 남짓한사이에 벌써 여러번 탄광을 옮겼으며 바쁜 대목마다에서 한몫을 맡아해왔다.

그에게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로지 당만을 믿고 당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이 있었으며 마음의 기둥이 있었다. 그는 이 량심, 이 기둥을 안고 일찌기 찾아볼수 없었던 230만톤 대발파의 설계를 대담하게 믿고 곳곳이 밀고 나가며 끝내는 성공으로 이끌어 당에 커다란 기쁨을 올리게 되는것이다.

당의 방침관철에서의 무조건성 그 어떤 흥정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는 비타협성,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헌신성, 이것은 탄광지배인으로서의 종혁의 중요한 성격적특징을 이루고있다.

이렇듯 작품은 종자를 기본주인공의 성격속에 심어주고 그들을 극적관계속에 대립시킴으로써 의의 있는 사상을 밝히려하였으며 또 일부 심리분석과 성격분석에서도 재미있는 기교를 보여주고있으나 파격을 놓치고 빗나간 리유는 어디 있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치열한 전투정황이나 복잡한 생산정형을 그리는 경우에도 화면에서는 대포소리나 기계소리보다도 사람의 목소리가 더 힘있게 울려나와야 한다.》

작품은 전반적인 형상체계에서 인간을 중심에 세운것이 아니라 사건발전을 중심에 세우고 인간의 운명과 작품의 사상주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보다도 생산적문제 즉 《설계가 과학성이 있는가 없는가》.

《생산과제와 대발파를 같이 밀고나갈수 있는가 없는가》, 《대발파가 제대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 등 복잡한 기술실무적문의에 매여달리고 이에 대해 독자들을 생각하게 만들다나니 작품이 말하려는 기본문제에 깊은 사색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작품이 종자를 흐리게 만들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목소리보다 230만톤 대발파소리가 더 우람차며 독자들을 투쟁으로 부르는 작가의 목소리보다도 기계소리가 더 크다. 그리하여 작가가 성격과 형상을 통하여 말하려는 주제와 사상은 이 요란한 기계소리에 파묻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게 된것이다.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적대립이 고도로 긴장한 상태에 오른 마지막 장면에 와서야 작가가 형상을 통하여 말하려던 이야기가 겨우 기계의 소음을 누르

고 독자들의 귀에 울릴 정도이니 작품이 독자들에게 뚜렷한 사상을 안겨주지 못하게 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작가자신도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자기작품에 종자가 뚜렷이 심어지지도, 밝혀지지도 못하고있다는것을 감득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이것을 수습하여야 할 구급대책이 필요하였던것이다. 작품은 이 대책을 작품의 전반에서 형상과 성격을 두드러지게 살리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종자와 관계되는 대사를 정황에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마지막 장면들에서 주인공들의 일부 중요한 대사들이 정황과 꼭 맞물리지 못하고 물우에 뜬 기름방울과 같이 동등 떠서 독자들에게 들려 오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억수로 내린 폭우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막장앞에서 오성민이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내뿜는 다음의 대사 역시 그런 실례의 하나로 된다.

《우리가 어디 이런 자연의 희롱을 예견이나 했습니까? 내가 이 골짜기에 와서 꼭 10년째 되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걸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섭다는것을 시사해주는 생동한 표상입니다.》

직장이 피해를 입은 엄혹한 현실앞에서 자연의 힘의 《강대성》을 레찬하는 오성민의 이 대사가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모두에게 명백한 일일것이다.

그러나 작가에게는 주어진 정황에는 관계없이 이 대사가 필요하였던것이다. 그에게는 노동자들의 힘보다도 자연의 힘, 기술의 힘을 신비화하는 오성민의 사상정신적취약성을 밝혀야 하였으며 또 그럼으로써만 대중의 힘을 믿는 종혁의 성격에 오성민을 대립시킬수 있었던것이다.

문학작품의 사상은 결코 작가의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구현되고 제시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상의 객관적인 논리를 벗어나고 형상의 옷을 입지 못한 인위적으로 강요된 대사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높은 사상을 말하는것이라 하여도 작품에서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문학작품의 사상은 작가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강요된 개념적인것이 아니라 형상의 객관적논리에 의하여 피어난 구체적이고 생동한것이다.

그 작품에 아무리 종자를 밝히고 사상을 안겨주는 혁명적인 대사들이 수없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상의 객관적논리에 의해서 피어난 생동하고 정서적인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요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삽입된것이라면 그것은 사상미학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며 물우에 뜬 기름방울과 다를 이 없다.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이 작품의 종자를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의의있는 사상을 깊이있게 독자들에게 안겨주지 못하는것은 전반적인 형상체계에서의 결합과 함께 특히 성격과 생활탐구에서의 결

함과 관련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전반적인 형상체계가 사람중심으로 가 아니라 사건중심으로 되고있다보니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고 다양하고 개성적인 생활을 탐구함에 있어서 스쳐지날수 없는 중요한 결합을 낳고 있다.

소설문학의 중심에는 그 언제나 인간군상이 서게 되며 따라서 소설발전의 전력사를 인간성격미의 발전사라고 일컫는것은 심본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는 기본주인공의 성격과 함께 특히 최명균 부기사장, 박덕수, 박정식 등의 성격들이 완전히 그려지지 못하고있다.

주체의 인간학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종자의 몫과 형상의 몫을 안고있어야 하며 그 모두가 제나름으로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해명하는데 참가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주체의 인간학에서 형상창조의 근본원칙으로 요구로 된다. 작품에 등장한 매인물들에게 형상의 몫이 뚜렷하지 못할 때 그 인간성격은 작품에서 아무런 사상미학적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빛을 뿌리지 못한다.

젊은 기사 최명균은 230만톤 대발파의 설계가로서 작품의 기본사건에서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서 웅당 중심적인 몫을 차지하여야 할 인간성격이다. 그러나 작가는 최명균의 성격형상을 소홀히 하고 최명균에게 웅당한 주체의 몫과 형상의 몫을 안겨주지 않음으로써 일관성이 없는 그리고 작품의 나중에 가서는 지배인의 뒤를 따라다니는 꼭두각시로 만들고있다.

최명균에게는 젊은 기사로서 마땅히 우리 제도와 우리 당에 대한 자기 나름의 고유한 생각과 신념이 있었을것이다. 그에게는 생동한 개성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자기 고유의 꿈도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작품은 웅당 최명균의 심장속에 깃들어있는 당에 대한 신념과 제도에 대한 생각, 생활에 대한 사랑을 밝혀냄으로써 그를 종자해명에 복종하도록 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작품은 최명균에 대한 이러한 성격분석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어떠한 형상과 주체의 몫을 안고있는지 바이 알수 없게 하고있다.

작품의 허두에서 최명균은 젊은 기사로서 사업에 대한 열정과 패기를 가진 인물성격으로 그려졌다. 그는 이 열정을 안고 280만톤 대발파설계를 구상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한다.

그러나 작가는 최명균기사에게 있는 이 패기와 열정을 작품의 종자와 밀착시키지 못하고있으며 당에 대한 신념의 문제, 마음의 기둥의 문제와 결합시키지 못하고있다.

특히 후반부에 와서 최명균은 지배인 종혁의 뒤만을 따라다니는, 작가의 창작적의도에 의하여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생명을 잃은 인물로 형상되고 말았다.

그에게는 뚜렷한 주제사상적과제와 형상의 몫이 없음으로 하여 일관한 행동을 할수 없었으며 결국에는 작가의 주관적의도에 의하여 등장하고 퇴장하는 허수아비로 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작가가 다만 어느 한 인물의 성격특징을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인물을 행동의 객관적론리에 관계없이 등장시킬 때 그 인물은 어차피 꼭두각시로 되지 않을수 없다.

홍수장면에서 하수도에 들어간 지배인을 찾는 명균의 형상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명균의 성격형상에서의 교훈은 작품에 등장한 매개인물들이 주제사상적과제와 형상의 몫을 뚜렷이 안고 작품의 종자를 밝히는데 적극 참가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상미학적의의를 가지지 못하며 나중에는 자신의 행동의 객관적론리를 잊어버리고 헤매이게 된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결합은 부기사장의 성격형상과 배덕갱의 갱장 박덕수의 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 부기사장은 기본주인공이 아니라 부차적주인공이다. 그러나 그가 작품에 등장하고있는이상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서 웅당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작품의 형상의 몫을 안아야 한다.

그러나 부기사장에게는 이런 주제사상적과제와 형상의 몫이 없다. 그는 작품에서 기사장이 없는 경우에 단지 그를 대신하기 위해서만 등장하였을뿐이다.

때문에 그는 독자들에게 아무런 성격미도 안겨주지 못하며 생활에 대한 새로운 리해도 주지 못한다. 그는 기사장 오성민이 출장을 떠났을 때 그 곳에 가서 설계도면에 수표를 받아온다. 그는 어느 정도 기사장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만 필요했을 따름이다.

성격미때문인가 아니라 인물의 수자때문에 존재하는 인물, 주제사상적과제 해명에 이바지하는것때문인가 아니라 단지 사건의 진행때문에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공간을 메꿔야 하기때문에 필요한 인물이 진짜 필요하겠는가, 바로 그런 인물인 부기사장이다.

오늘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소설문학은 하나의 부차적이고 삽화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작가의 고심 어린 탐구와 사색이 기울여질것을 요구하며 제 나름의 개성적인 성격적매력으로써 독자들을 공감시킬것을 제기한다.

배덕갱 갱장 박덕수의 성격형상에서도 역시 이러한 결합을 찾아볼수 있다.

최근 우리 소설들에서 갱장, 직장장, 작업반장등과 같은 오랜 로동계급의 성격형상들이 일부 류형과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빛을 잃고있는데 대하여서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다.

《탄전의 주인》에 그려진 갱장 박덕수의 성격형상도 역시 이런 결합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문제는 우리 작가들이 성격과 형상을 깊이 탐구

하지 않으며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탁상문학을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많은 작가들은 이런 인물성격들을 대할 때 이미 《파악된 성격》으로 치부하면서 응답한 창작적 열정과 탐구를 기울이지 않으며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혀 그의 생활과 성격을 꾸미고 있다.

박덕수는 탄광로동에서 잔뼈가 굳어진 오랜 로동계급출신의 갱장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에 고유한 당에 대한 사랑과 신념이 있을 것이다. 작가는 그에게 있는 이 고유한 그리고 생활적으로 형성된 당에 대한 신념을 탐구하고 형상적으로 부각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이러한 창작적 열정과 사색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것은 그에 대하여 지면을 많이 배당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대한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작품에 그려진 도서대출원 옥희는 삽화적인 인물성격으로서 그야말로 린색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인상을 남기며 생동하고 매력적이다.

문제는 박덕수의 성격형상에 대한 개성적 탐구가 없으며 그의 형상에 작가적 열정과 사색을 기울이지 않은 데 있다.

작품에 그려진 박덕수의 성격형상은 작가의 그에 대한 사상미학적 분석이 매우 일반적이며 개념적인 것임을 뚜렷히 확증하고 있다.

작가는 배덕갱 갱장이 일생을 로동속에서 지내온 사람으로서 공부를 많이 못하였다는 그 일반적이고 범속한 리해로부터 그를 뚜렷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성격으로, 자기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줄 모르는 우유부단한 인물성격으로만 그리고 있다.

그에게는 그에 고유한 생활이 없으며 견해와 주장이 없다.

그러나 현실생활은 우리의 갱장과 작업장들 가운데는 비록 일제때에 가난하여 공부를 못하였지만 해방후 우리 당의 품속에서 기술실무적으로나 리론적으로 준비된 능숙하고 세련된 일군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제때에 가난하여 공부를 못하였으며 해방후 로동을 계속하여 왔기에 뚜렷한 주장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견해를 체계화하여 표현할 줄 모른다고 일반적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며 경계하여야 한다.

더우기 오랜 로동계급출신의 전형으로 작품에 그려진 단 하나의 인물인 박덕수의 성격이 작가에 의하여 이렇게만 형성된 것은 우리 생활을 전형화하는 각도에서도 생각할 여지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작품은 생활묘사와 생활분석에서도 깊이가 없으며 유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함들을 보이고 있다.

작품에 그려진 많은 생활화폭들은 개성적이고 비반복적인 것이 되지 못하며 우리의 모든 작품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출장, 기술로

론회 10일 생산총화, 병원입원, 과학원방문 등이 모두가 우리 작품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것들과 아무런 구분점이 없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 현실 자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생활현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의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모든 작품에 꼭 그려져야 하는 법이 없으며 또 생활에 흔히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작품에서 꼭 전형적 의의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문학작품에서 전형적인 생활은 현실생활의 본질적이고 합법칙적인 것을 반영하며 또 구체적인 생활현상을 통하여 주인공의 본질적인 성격과 개성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 설정된 과학원방문은 순수 사건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아무런 형상적 의의와 사상미학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메마르고 뜻없는 것이었다면 작품에 묘사된 홍수장면은 반대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지와 우리 생활의 본질적인 사상미학적 특징을 밝히는 의의 있고 감명 깊은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에는 이런 의의 있는 생활보다도 미학적 의의가 없는 생활을 여러 장면들에서 펼쳐보임으로써 작품을 지루하게 하고 사색의 심도와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기본주인공의 개체생활과 인정적인 세계를 펼쳐보이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배인 리종혁과 그의 안해의 사랑과정을 묘사한 생활은 작품에서 성격을 부각하는데 일정한 사상미학적 의의를 가지었으나 반면에 주인공의 자식들에 대한 인정세계를 펼쳐보이는 생활화폭은 매우 일반적이고 따라서 생동한 형상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다.

우리 작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인정적인 세계를 펼쳐보임에 있어서 흔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나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10점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많이 묘사하는데 진정 이것만이 이들의 인정적인 세계를 밝히는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이겠는가.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다양하고 풍만한 것인가. 그러나 소설들에서 이런 《틀》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이미 많은 소설들에서 보아왔던 것으로 하여 아무런 뜨거움도 미학적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작가의 생활에 대한 깊은 탐구정신이 없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탄전의 주인》은 혁명동지들의 우정세계를 펼쳐보이는 데서도 일반적이고 류형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품의 기본주인공인 리종혁과 그의 전우 박정식과의 우정세계는 능히 깊은 정서속에서 의의 있게 보여줄 수 있었으나 작가가 깊은 탐구정신과 창작적 사색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작품에서 큰 사상미학적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되고 말았

다.

이 모든것은 소설창작에서 작가는 그 어느 때나 현실의 다양한 생활가운데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과 성격만을 선택하여 그려야 하며 종자와 관련이 없는 성격과 생활은 절대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종자와 관련이 없는 생활과 성격을 끌어들이는 작품이 밝히려는 사상은 필연코 모호해지고 따라서 작가의 형상적의도는 정확히 독자들에게 전달될수 없게 되는것이다.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의 창작경험은 소설창작에서 작품의 전반적인 형상체계를 사건중심으로가 아니라 인간중심으로 철저히 세워나가며 작가가 작품의 사상적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형상의 모든 요소들 즉 성격과 생활, 자연과 세부묘사 나아가서 대사 한마디, 일화 하나도 종자의 요구에 맞게 심사

숙고하여 처리하며 그려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소설문학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적 문제로 나서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시 사해주고있다.

작품은 이 중요한것을 놓침으로써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종자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높고 강렬한 사상을 힘있게 천명할수 없었다.

중편소설 《탄전의 주인》은 이 모든것으로 하여 옳바로 겨누었던 과녁을 놓치고 빗나가게 되었던것이다. 이 아쉬움은 작가 자신의 안타까움이었을 뿐아니라 이 작품을 읽는 독자로서의 나 자신의 안타까움이였다. 나는 이것을 작가에게 말하고싶었다.

우리는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앞으로 소설문학에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봉 화 산

김정호

봉화산

산은 높지 않아라

우리 어릴적 오르며 뛰놀던

고향의 산과 다름없건만

네 이름 조용히 부르면

뜨거운 생각 불러일으키는

아아한 산마루가 안겨오는듯

마음속에 숭엄한 산아

너

지원의 뜻

애국의 넋이 깃들어

거룩한 성산

이 나라의 운명

망국의 설움속에 숨겨갈 때

조선의 분노 민족의 정신이

소리치며 일어선곳

압제의 쇄사슬에 몸부림치는 강산

어두운 긴긴밤을 밝히며

조선국민회의 횃불이 타오른

빛의 첫 시작점

오늘도 먼 래일도

민족자주정신의 참뜻 깨우쳐주며

쫓아 빛을 뿌리는

성스러운 령봉이여

아, 산이 높아 명산이 되고

사람들 기억속에 오래남으라

간직한 민족의 력사와 불굴의 그 존엄

산의 절정이 되고 영광은 빛나거니

봉화산 봉화산이여

너는 김형직선생님의 위업을 전하는

숭엄한 메부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불멸의 기념비

더는 묻지 못했다 외 1편

김 수

내 더는 묻지 못했다
북방의 새 철길건설자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이야기
들을수록 뜨거움이 북받쳐

대대장도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말할수록 눈시울이 젖어와
우리는 묵묵히 건설장을 걸었다

침침한 산악을 뚫어 차굴 백수십리
충암절벽을 가르며 차길 수백리
그 굽어굽이 그 줄기줄기에
빛나는 위훈 불타는 노래...

걸음마다 가슴벅차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어떤 힘과 투지를 지녔기에
저 거창한 산악들을 무너뜨리며
이처럼 억척스레 내달는가

월미도 불타는 섬 불타는 바다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사수하여
그처럼 불굴한 영웅들의 숨결이
지금 저들의 가슴마다 뿜어내는게 아닌가

여기에선 위훈의 이야기도
묻기조차 무색하여진다
건설장은 그대로 영웅서사시를 펼쳤나니
더 물어 무엇하랴

서리발을 추켜들고 달려들던 눈바람도

여기에선 불바람으로 변하여진다
우리 당의 위력을 펼쳐가는 격전장
새 철길건설장은 불타는 전선

피끓는 청춘을 무엇에 바쳐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사는 청년들
건설의 나날 천년세월을 앞당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저 충성은 불타거니

나는 지금 본다
울부짖는 눈보라 맞받아
입김을 뿜으며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에서
5만의 대적을 막아섰던 월미도
그날에 영생의 군상으로 빛나오른 전사들을

나는 지금 듣는다
천만산악을 뒤흔드는 발파소리에서
원췌의 포성을 짓눌러 피타게 부르짖던
리대훈중대장의 그 웨침을

내 더는 묻지 못했다
저들은 이 북방의 침침한 산발들에
오늘에도 그리고 먼먼 후날에도

천만심장들을 뜨겁게 격동시킬
우리 시대의 청춘송가를 새겨가고있나니
말로는 다할수 없는 이야기
나는 지금 듣는다

우리는 오늘에 산다

우리 짝어가는 발자욱
눈에 묻혀 가뭇없고
우리 부르는 힘찬 노래
눈바람에 휘날려 저 설악에 부서진다

그 무수한 산악과 강물을 헤치는 길에
다만 두줄기 철길이 뻗어간다
그러면 어쩌랴
우리는 빙그레 웃는다

먼 후날 여기에 오고갈 사람들을 그려보며

우리는 청춘 여기에 산다
아아한 메부리에 심장을 맞대고
태고연한 산악을 가르며
북방의 새 철길을 놓는다

청청한 바위도 얼कु어 터뜨린다는
량림의 눈보라야
우리는 속도전의 열풍으로
너를 짓눌러 대자연을 정복한다

위대한 태양을 높이 우러러

30년대 준엄한 불언덕에서
 결사의 대오로 굳세게 뭉쳤던
 김혁 차광수... 그 이름들 뜨겁게 새기며
 우리는 오늘에 산다

침침한 산발아 다가서라
 우리의 투지 창공을 치뿔는다
 위대한 령도자를 심장으로 받들어
 역세게 못산다면 그 무슨 전사라

찬란한 미래를 불러
 여기에 세워주신 그 믿음안고
 80년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전사로
 우리는 곳곳이 섰다

우리 짝어가는 발자욱

눈보라에 가뭇없이 사라진들 어찌라
 우리 가는길을 따라
 그 모든 웃음과 노래를 싣고
 행복의 꽃수레는 달려오려니

우리 부르는 노래
 눈바람에 날려 사라진들 어찌라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찬란한 미래를 소리쳐 부르나니

아아, 연연히 뻗어간 새 철길우에
 첫 기적소리 높이 터쳐 당중앙창가로 울리어갈제
 천만산악이 화답하는 그 모든 음향과 환희
 가슴치는 걱정과 뜨거움을 안아보며
 우리는 오늘에 산다

금 지 외 1 편

김만영

바람도 시원해라
 달빛도 유정해라
 웃음소리 흐르는 정다운 퇴근길
 활개치며 걷는 나의 등뒤에
 문득 들린다 속삭이는 소리-
 《용해공동무다애 !》

돌아보고싶다 슬쩍 곁눈으로라도...
 어느 직장 처녀들인지
 푸른 넥타이 앞가슴에 날리며
 공장대학으로 가는 의젓한 내 모습
 그래도 아마
 쇠물내가 물씬 풍기는게지

아니면야 텔레비죤화면에 비친
 억실억실하다는 내 눈을 본게지
 보안경으로 로안을 들여다보며

물결인양 쇠장대로 쇠물을 휘젓던
 사나이의 결찬 일본새
 용해공의 그 성미를 본게지

그만두자 어디서 무엇을 보았든
 그제야 뭐라나
 청춘도 위훈도 쇠물에 두고
 나라의 맡아들로 살려는 이 마음
 용해공의 일숨씨를
 온 조국이 아는데야

에헤라 그냥 걷자
 처녀들의 애뜻한 저 목소리
 뉘인지 물어서 뭘하라
 이 몸에 폭 배인 쇠물내로 하여
 아무렴, 내야
 어디서나 용해공이지 !

철길건설자의 집

산기슭에 오붓이 자리잡은 집
 그 뉘의 알뜰한 일손이 푸른 창문을 달고

그 뉘의 정갈한 마음이 흰 벽칠을 했는가
 프락의 바위밑엔 샘물이 솟고

지붕엔 텔레비안테나가 높이 솟은 집

언제 여기에 세워졌는가고
언제 여기를 떠나게 되는가고
문지를 말자
북부철길건설자의 저 집을 두고

철길건설과 함께
선참으로 세워지고
철길개통과 함께
의례히 떠나는 집

새구간에 놓여지는 철길을 따라
너는 몇번이나 이렇게 세워졌던가
새 철길위에 기적소리 울려주고
몇번이나 남모르는 집터를 남기며 떠났던가
해주-하성의 푸르른 골짜기에도...
이천-세포의 양지바른 산등성이에도...

아, 당의 철길건설 화살표가 뻗은곳에
철길건설자들의 생활의 보금자리
언제나 선참으로 펼쳐지지 않았던가
로반공사도 시작하기전에
차굴의 첫 발파도 울리기전에

하기에 철길건설자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의 고향은 같지 않더라
그들은 아버지의 공민증에서만
출생지를 알고
지도에서 그곳을 익혀왔거니

험한 준령도 철길벼랑도

뚫고헤치는 발파소리에
푸른 창문이 가볍게 흔들리는
여기 들끓는 건설장의 집이여!
북부철길건설자의 소박한 집이여!

때로는 한여름 때아닌 소낙비에
흠뻑 젖은 합숙총각들의 작업복을
깨끗이 빨아 트랙에 널어놓고
때로는 한겨울 눈바람 불 때면
반가이 창문을 열고
건설자들을 아래목에 불렀거니
너는 또한 얼마나 친근한 집이던가

이제 첫기적소리에 산골이 울릴 때
이고장 사람들의 얼굴과 얼굴마다에
또다시 새고장에 기적소리 울리기 위해
또다시 기적소리 울리기 위해
수령님과 당중앙의 부르심따라
너는 또다시 여기를 떠나리니

아, 숨은 노력으로 한생을 바쳐가는
철길건설자가 사는 집이여! 너는
고충건물이 준비하게 일어난 거리
높은 창문의 집은 아니여도
트랙에 포도넝쿨 그늘을 던진
아담한 주택은 아니여도

너의 푸른 창문
너의 키낮은 추녀가
나에겐 더없이 사랑스러워라
너의 소박한 모습이
높이높이 쳐다만 보여라

그날의 궤도를 달리며 외 1 편

김성환

저기 차창너머
벼랑에 소나무 푸른 바다기슭이
그날의 차굴어귀가 아닌가
처절씩 파도소리 바위를 때리는 도래굽이가
그날의 철다리목이 아닌가

함포탄이 튀고
물길이 치솟던 준엄한 날의 추억
달리는 차바퀴에 감기는 바다가철길
이 구간을 달릴 때면
기적소리조차 그날을 불러내는듯싶다

잊을수 없어라
전기차의 경쾌한 동음 날아퍼지는
저 푸른 하늘에
철의 이 궤도우에
굽이쳐간 격전의 날들이여

밤에는 조명탄 걸어놓고
낮에는 직승기 띄워놓고
우박치듯 퍼붓는 포연탄우를 맞받아
내 군용렬차를 몰아달리던
이 차굴 이 철다리

저 푸른 신호기 흔드는 철길원은
 차굴에 날아든 시한탄을 안고 달리던
 허리 희숙한 그 아바인 아닌가
 끊어진 침목밑에 어깨를 들이밀며
 어서 달려가라고 소리치던 그 젊은인 아닌가

불구름 뭉개치던 철의 궤도우에
 불사조인양 나래치던
 멸적의 그 숨결 그 기상
 정시통과의 기적소리로 울리며
 내 달려간 전선길은 몇만리였던가
 내 몰아간 렬차들은 또 얼마였던가

아 조국을 받드는 값높은 삶을
 철길우에 엮고산 불굴의 모습들
 오늘도 나를 소리쳐부르며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흔들며
 위훈의 한길로 떠밀어주거니

차판마다 기쁨을 싣고 천리
 렬차마다 행복을 싣고 또 천리
 저 푸른 하늘에
 철의 이 궤도우에
 전기차의 경쾌한 동음 울려가도
 이 가슴엔 변함없는
 그날의 기적소리, 차바퀴소리...

저기 벼랑가의 소나무도
 그 기상안고 저리도 푸르구나
 바위를 들때리는 파도소리도
 그 숨결안고 저리도 기세차구나
 아, 그날의 철의 궤도여!

차창가에서

기쁨이 꽃같이 망울터치는
 달리는 행복의 집이다
 차창에 구르는 웃음소리조차
 차바퀴소리와 한데 어울려
 장단을 치는 즐거운 렬행길

나는 간다
 오랜만에 떠난 고향길
 북방 멀리
 못잊을 산촌을 찾아
 정다운 사람들을 찾아

차창밖
 줄창 따라서는 꽃밭길도
 내 어린시절 술래잡기하던
 민들레꽃 하얀 동구길인듯
 푸른 신호기 날리는 건늬길 감시원처녀는
 책가방 메워주며 학교길 바래주던 누이인듯

추억도 깊다
 산뜻한 위생복에 밝은 웃음 찰랑
 과일구럭 안겨주는 판매원의 저 얼굴
 어찌면 저리도 같을가

집 떠날 때면 배낭을 챙겨주던
 어머니의 마음과

서는 역 내릴 역
 살뜰히 알려주는 그 말씨도 차근차근
 하얀 물결레로 창턱도 알른알른
 끼맞춤 식당차로 이끄는 렬차원처녀
 덧이 살짝 웃음헤폰 동생같이 귀여워라

마주앉은 그 누구나
 구면인듯 한식술인듯
 고향길은 아직 멀어도
 못잊을 그 산촌 정다운 그 사람들
 마중와 이렇듯 함께 가는가
 그 어디 가나 그 누구나
 살뜰한 정 후더운 정에 웃음이 벅그는
 내 나라는 누구나 한가정

아, 기쁨이 한껏 망울터치는
 행복의 집이다
 렬차여, 즐거운 렬행길이어
 아름다운 마음들이 수놓아가는
 한없이 밝은 내 조국이다

언제나 그날에

박명섭

잘 여문 이삭의 물결
파도처럼 설레이고
고르로운 수확기의 동음소리
이 가슴속 기쁨의 물결 흔들어라

그날이 그리워
어버이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그 영상
못잊어 못잊어

아, 룡담벌 풍년든 대지여
겨우내 봄내 우리 바친 진정이
알알이 맺혀 설레이는
행복의 물결아

그 영상 못잊어
그날을 잊지 못해
세월이 흘러 흘러도
풍년이삭만 펼쳐안을
나의 마음 나의 대지여

노을비낀 새벽에 외 1 편

황승명

이른새벽
들에 나서니
서둘러 노을을 펼치며
일어서는 지평선

잠을 깬 애어린 벼포기들도
노을에 물들어
나를 반기며
서로 불러 속삭이는듯

하늘 땅이 어울린 저 노을속에
3대혁명소조원
내 기쁨이 어리고
내 희망이 나래치네

노을이 피어나는 저 들끝에
내가 떠나온 공장이 있어라
배당을 메고 가슴을 들먹이며
희망에 부풀던 이 들길

이 벌에 보낼 농기계를 만들며
뚫어번지던 불도가니
계절없이 타오르던 그 불노을을
내 여기에 펼쳐가는가

바라보면
온밤 물씨레를 함께 치며

가슴속 진정을 나누던
그 논머리에 타오르던 우등불이
저 하늘에 비끼여 붉게 타는듯

귀잡이 한치의 생땅을
해불로 밝히며
마음속의 빈구석을 준절히 깨우쳐가던
그 포전은 어디냐

아낌없이 이 벌에 땀을 흘리고
즐거운 노래도 함께 부르며
내 여기에 뿌리를 내리운것은
곡식만이 아니거니

간밤에도 나는
벼아지치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다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일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아, 산천을 보아도
들길을 걸어도
혁명전위로
나를 이 벌에 세워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가슴이 들먹이누나

언제나 저렇게 새날을 펼치며
 불타리라
 세 폭의 붉은기를
 노을처럼 펼쳐들고
 사람도 산천도
 한 빛으로 물들이며

건다가도 문득 걸음 멈추고
 눈시울 뜨거이 다시금 바라보니
 어버이 그 사랑 땅우에 넘쳐나고
 땅의 그 믿음 하늘끝에 닿아
 노을 비낀 공산주의 새 아침도
 눈앞에 펼쳐지네

불 빛

밤
 달도 별도 구름 속에 깊이 잠든 밤
 오리나무 둔덕에 불이 밝은 집

온 마을이
 행복의 요람속에 깊이 잠들었건만
 이 밤도
 3대혁명소조원동무는 잠들지 못하네

창가에 어린 두 그림자...
 해종일 논밭에서 함께 일하고도
 아직도 작업반장과
 못다 나눈 이야기...

무심히 스쳐지났다는
 귀잡이 한치의 생명을 두고도
 그 마음속의 빈구석을 찾으며
 마주보는 눈빛들

언제나 첫 이랑을 남먼저 타고가며
 수령님 뜻대로 농사를 짓자던
 간절한 그 목소리 뜨겁게 울리누나
 때로는 살뜰히
 때로는 준절한 타이름으로

배낭을 메고 이 마을에 들어설 때
 나그네처럼
 관리위원회 사무실도 몰라
 길을 묻더니

여기서 나서자란듯
 이고장의 매력과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일깨워주는 그 마디마디

찾아오는이도 많아라
 벌써 가슴속에 움트는 새싹을 안고
 반장은 웃으며 나서는데
 새 기술창안의 도면을 안고
 제집처럼 찾아드는 또 한사람

아, 새벽닭이 우는구나
 이제는 그만하고
 그만하고 돌아들 갔으면
 수령님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
 불을 끄고 잠시나마 잠들수 있도록

눈을 감으면 잠이 오라
 열, 백밤을 지새고도 반겨맞으며
 아침처럼 맑고
 노을처럼 피어나는 그 미소여

낮에는 들에서 곡식을 가꾸고
 밤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며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혁명전위들의 한없는 충성이
 저 창가에 어리여
 이 밤도 불타고있네
 불타고있네

아, 검덕아

문재건

세기의 푸른 대공에
보화의 메부리를 쌓아가는
열정의 땅
검덕이어 !

말하라
검덕이어
어찌하여 너는 그리도 감격에 끓고
환희에 넘쳐 설레이는것이나

80년대의 기슭에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보화의 산악으로 솟아
당의 크나큰 믿음으로 빛나는 땅아

검덕, 룡양, 허천을 짊으시며
아버이수령님 너를 불러주실 때
검덕이어
너는 얼마나 크나큰 걱정애 가슴들먹였던가

만탑산, 로은산, 백금산
아버이수령님 현지에 찾아오시여
함흥전원회의의 결정서에
너의 봉우리들을 하나하나 적어주실 때

뜨거운 충성으로 끓고
열정으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간데라를 추켜든 영웅광부들이
서둘러 인차에 오르는 땅

두발과 세발과를 터치고도 성차지 않아
또다시 착암기를 틀어잡는
그 역센 손길들이
끝없는 쇠돌의 흐름을 이어주는 막장

큰걸음 내짚을 오늘을 위해
당이 마련한 그 위력한 힘이
너의 기슭에 진군의 대오를 맞춰
힘찬 발구름 높이 올리나니

네 령마루를 내리지른
어마어마한 수직갱들과
끝없는 대형벨트콘베아가

막장에서 땅우로 뻗어올랐다

수령님 맞이했던
4월의 그 봄날에 살며
당중앙의 해발 막장에 빗발쳐온
영광의 그날을 행복으로 간직하고
검덕은 열정으로 끓고끓나니

그 사랑, 그 믿음 받아안은 마음
그대로 폭약이 되고 도폭선이 되어
산악을 뒤흔드는 대발파의 폭음으로
이 강산을 울리고

천길 막장마다
속도전의 열풍은 세차게 휘몰아쳐
뻗어간 전차선들에
푸른 번개가 날린다

통 큰 광부들의 성미를 닮아선가
우뢰치는 착암대차들
우람찬 굴착기들이
천년 암반을 떠밀어 옮기나니

가슴을 헤치라
검덕아
수억년 간직했던 너의 모든 보화를
이 땅우에 펼치라

네 봉우리마다
충성의 화불 세차게 지펴올려
150만톤 유색금속고지우에
승리의 붉은 노을 펼쳐가리니

《80년대속도》창조의 불바람속에서
세기에 빛날 봉우리들이
조국의 위용과 함께
찬란한 래일과 함께
위훈과 기적으로 솟아있으라

광부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신념이
그대로 산악으로 일떠선
아, 검덕아
온 나라가 바라보는 보화의 령마루여 !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하자

-중편소설 《높은곳으로》를 읽고-

김정웅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우리의 소설문학은 전면적개화기를 맞이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과 그들의 보람찬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낸 장중편소설들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고 풍만하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형상의 심오성은 작품의 사회적가치와 사상교양적기능, 미학적감화력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다.

소설작품에서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우리 소설문학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나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최근시기 창작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장중편소설들가운데는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들이 많은 반면에 형상이 빈곤하여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작품들도 더러 있다.

중편소설 《높은곳으로》(김용한)는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주체사상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을 정당하게 반영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강렬한 예술적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다. 이 중편소설은 전력생산을 더 높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타빈날개를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의 헌신적투쟁을 그리고 있다. 소설에서는 타빈날개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 과정을 통하여 각이한 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하였으며 우리 시대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자리에 머물러있어서는 안되며 더 높은곳으로 치달아오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의의깊은 사상을 제기하였다.

또한 작품에서는 사람들을 령담하게 대하여 보신주의와 요령주의에 사로잡혀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밀고나가지 않는 일군들의 결함을 비판하면서 지도 일군들은 생산과 함께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까지도

책임지고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소설이 제기하고있는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아 참으로 의의있는 문제이라고 말할수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깊이 있게 밝혀졌더라면 훌륭한 소설작품으로 되었을것이다.

중편소설 《높은곳으로》가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취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미학적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주되는 원인은 바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깊이있게 그려내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형상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하지 못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성격들을 의의있게 설정하여 생활에서처럼 인간문제가 깊이 얽혀서 심각하게 풀리도록 그려야 한다.》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설정하는것은 훌륭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렇다고 하여 작품에 의의있는 사회적문제가 설정되었다고 하여 예술적형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작품에 설정된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는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구현될 때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미학적감화력을 나타내게 된다.

작중인물들의 성격이 얼마나 깊이있게 진실하게 그려졌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형상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문학작품에서 형상창조의 문제가 언제나 인물들의 성격창조의 문제로 제기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중편소설 《높은곳으로》가 현실적으로 의의깊은 사회적문제를 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하지 못한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생활의 론리에 맞게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지 못하고 기정사실화하여 보여준데 기인한다.

성격을 기정사실화하여 보여주는것은 인간과 그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어긋난다. 주인공의 성격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은 생활의 흐름, 생활의 논리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산 인간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성격적 특질을 미리 주어진 것으로 설정하며 그것을 통채로 작품에 제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현실속에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줄 수 없으며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 수 없다.

중편소설 《높은 곳으로》의 주인공 최진혁 직장장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로동계급출신의 일꾼이다. 그는 전력생산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로동자들의 선두에 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성다하도록 진심으로 이끌어주는 주체형의 참다운 일꾼이다.

작가는 주인공 최진혁의 성격을 창조하면서 전력생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정치사상적 품모와 함께 인간에 대한 세심하고도 사려깊은 사랑의 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직장성원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며 사람들을 더 높은 혁신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러한 창작적의도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주인공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모와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현실 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려내지 못하였다.

작품에서 최진혁은 처음부터 완성된 일꾼으로, 전력증산을 위한 기술혁신운동의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유능한 일꾼으로 그려져 있다.

최진혁은 나이도 어리고 직장장으로 사업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그를 주체형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자질과 품모를 다 갖춘 일꾼으로 내세운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며 특히 작품의 첫부분에서 주인공의 성격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의 뒤가 뻔드름하게 내다보이고 있다.

시실상 소설은 처음 몇 페이지만 읽어보아도 주인공 최진혁이가 겉으로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하며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의리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쓰는 일꾼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독자들의 눈앞에 처음 등장하는 주인공 최진혁의 모습을 상기하여보자.

작가는 소설의 첫머리에서 주인공 최진혁이가 대

학입학시험준비를 하느라고 로동보호장갑을 제때에 타오지 못한 직장통계원 봉회를 추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최진혁은 통계원 처녀에게 근본을 잊었다느니 그러한 정신상태로서는 대학에 추천받을 수 없다느니 하면서 호된 욕설을 퍼부어 나 어린 처녀가 눈물을 쥐여 짜게 만든다.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타오지 못한 것은 물론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두고 추궁하는 것도 직장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놓고 나 어린 처녀를 인식적으로 모욕하며 더구나 대학에 추천하지 않겠다고 호통질하는 것은 직장장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으며 현실적 타당성도 없다. 작가는 최진혁의 사업에서의 강한 원칙성을 강조하려던 나머지 이 장면에서 그의 성격을 현실적 타당성이 없이 일면적으로 과장하여 그려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에서 최진혁의 성격이 진실하게 그려지지 못하였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을 통하여 작가가 보여주려고 한 기본문제가 다 서술되었다는 데 있다. 실지르 작가는 최진혁이가 봉회에게 호된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 최진혁의 내면세계와 그에 대한 주정토로를 통하여 사람들을 어루만지거나 《호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소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융화목과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때에 비판을 주어 교양개조해 나가며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문제까지도 책임지고 돌보아주고 그들을 보다 큰 혁신의 령마루에 이끄러주는 주인공의 웅심깊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설에서 최진혁이가 봉회를 추궁하는 장면만 읽게 되면 주인공의 성격에 대하여 알게 되며 나아가서 소설에서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이처럼 소설의 첫부분에서 주인공의 전형적 성격과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오는 사건들과 생활들은 단순히 이야기줄거리를 전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소설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진 기술과장 문학봉이가 타빈날개 개조안을 설계한 수진기사를 부에서 조직하는 사업에 동원시킨 사건이라든지 수진기사가 설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최진혁이가 평양으로 올라가는 사건 등이 독자들에게 별로 큰 예술적 감흥을 자아내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소설의 구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진혁과 혜심의 애정선이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도 바로 최

진혁의 성격을 처음부터 기정사실화한데 기인한다.

주인공의 성격적특질과 내면세계를 드러내보이지 못하는 사건이나 생활들은 그것이 아무리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졌다고 하여도 사람들에게 미학적공감과 예술적흥미를 자아내지 못한다. 이 작품이 여러가지 특색있는 사건들을 설정하고있으며 그것들을 기초로 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내고있지만 읽는 사람들에게 따분하고 지루한 감을 자아내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소설작품의 예술적흥미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사건들과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에 성격을 개성적으로 인상깊게 드러내보이는데서 생긴다. 생활의 흐름, 생활의 논리를 따라 변화발전하는 인간의 성격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안겨오며 따라서 그러한 성격은 예술적흥미를 자아내기 마련이다. 주인공의 성격을 생활의 다양한 계기들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것으로 그리지 않고 미리 주어진것으로 그리게 되면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앞일을 짐작하게 될뿐아니라 그가 겪게 될 생활과 그 운명까지도 내다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소설작품이 독자들에게 아무런 흥미도 자아내지 못하며 읽고싶은 욕망을 안겨주지 않는다.

중편소설 《높은곳으로》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성격이 기정사실화되고 진실하게 그려지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또한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풀어나가지 못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양적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게 될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를 깊이있게 그려내지 않고서는 인간성격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할수 없으며 뜻깊고 흥미있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인간관계를 옹계 설정하고 깊이있게 풀어나가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중편소설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설정되어있다. 주인공 최진혁과 문학봉, 최진혁과 혜심, 최진혁과 수진기사, 수진기사와 문학봉, 최진혁과 부래반장... 작품에는 이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회주의 현실에 부합되게 그리고 특색있게 설정되어있다. 그러나 작가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설정하였을뿐 그것을 극적으로 예리하게, 의의깊게 풀어나가지 못하였다. 결과 작품에 설정된 인간관계들이 인물들의

성격을 살리는데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다.

작품의 구성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직장장 최진혁과 기술과장 문학봉의 관계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주제사상적과업을 형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견지에서 보나 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뚜렷이 살리기 위한 견지에서 보나 이 두사람의 관계를 잘 그려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에서 문학봉은 최진혁의 선배로, 최진혁은 학봉이가 이전에 직장장으로 사업할 때 그밑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한적이 있는 사람으로 설정되어있다.

두사람은 사업상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을 뿐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남달리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인물은 타빈날개를 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에 부닥치자 서로 상반되는 립장과 태도를 나타낸다. 직장장 진혁은 타빈날개를 새롭게 개조할데 대한 수진기사의 설계안을 적극 지지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이와 반면에 그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해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서있는 기술과장 문학봉은 요령주의와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최진혁을 비롯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진행하는 타빈날개개조사업에 대하여 마뜩지 않게 여기며 그들의 전진운동을 저해한다.

이처럼 작품에 설정된 최진혁과 문학봉의 관계는 매우 심각하며 그자체내에 극적인 내용을 체현하고있다. 작품에서 이 인간관계가 깊이있게 추구되었더라면 이야기줄거리가 극적으로 박력있게 전개되었을것이며 그 피정을 통하여 주인공 최진혁의 성격도, 문학봉의 성격도 더욱 생동하게 깊이있게 그려졌을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타빈날개를 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대하는 최진혁과 문학봉의 서로 상반되는 립장과 태도, 서로의 의견대립과 충돌과정에 야기되는 그들의 심리적고충과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지 않았으며 두 인물의 관계를 별로 이렇다 할 굴곡도 없이 무난하게 끌고나갔다.

이것은 모름지기 자기가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호상관계를 반영한 예술적갈등의 성격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한데로부터 초래된것이라고 생각된다.

작품에 설정된 최진혁과 문학봉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적근로자들사이의 관계이며 따라서 그들사이에는 적대적모순이나 불상용적인 갈등이 있을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두 인물의 호상관계를 아무런 마찰이나 투쟁도 없는 안온한

관계로 그려야 할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실지로 작품에서 두 인물은 심각하고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여있다.

주인공 진혁이와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문학봉의 성격은 어떠한가? 문학봉은 기술도 있고 사업경험도 많으며 능숙한 수완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는 로동현장에서 리탈하여 오랜 기간 사무실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보수주의와 소극성, 보신주의와 요령주의에 물젖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려고 하지 않으며 사업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자리지킴이나 하는것을 상책으로 여기는 일꾼이다.

문학봉이와 같은 일꾼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에 적지 않게 남아있으면 《80년대속도》로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은 이러한 일꾼들과의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동반하고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볼 때 소설에서는 마땅히 문학봉의 낡은 사상관점과 그릇된 사업작풍을 반대하는 투쟁을 심각하게 그려내야 할것이다. 작품에서 이 투쟁의 직접적담당자로 되어야 할 인물은 주인공 최진혁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문학봉의 낡은 사상관점과 그릇된 태도를 반대하는 최진혁의 적극적인 투쟁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그의 긍정적성격을 문학봉과의 날카로운 대립과 투쟁속에서 그려내지 않았다.

지어 작품에서는 타빈날개를 개조하는 사업을 앞두고 학봉이가 그 직접적인 담당자인 수진기사를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 때에도 또한 학봉이가 책임이 두려워 수표도 하지 않고 설계도면을 로동자들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에도 진혁이를 학봉이와 정면으로 맞서 투쟁하는 인물로 그럴 대신 《점잖게》 처신하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자기의 선배이며 상급인 문학봉을 존경하는 최진혁의 고상한 도덕적품성과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빈날개개조를 실현해나가는 그의 웅심 깊고 강의한 성격적특질을 보여주려는 의도밑에 작가는 주인공이 문학봉과 충돌하거나 대결하는 장면 같은것을 설정하지 않는것이 타당한것이라고 간주하였을는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끊임없이 전진하며 계속 혁신하려는 지향과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는 사람들은 혁신과 전진을 저애하는 현상들과 투쟁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투쟁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작품에서 긍정적인물의 전형적성격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하는 문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작품에서 주인공 최진혁과 문학봉의 대립과 충돌

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인물성격을 형상화하지 않은 결과 인물들의 성격이 생활적진실성을 가지고 그려지지 못하였다.

레컨대 문학봉의 성격을 놓고보더라도 타빈날개를 개조하는 과정에 최진혁과의 대립관계를 통하여 그의 부정적성격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것으로 그려지지 않고 그저 그가 지난 시기에는 일을 잘하였는데 보수주의와 소극성, 요령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는 일꾼이라는 식으로 설명되어있다. 이런데로부터 독자들은 로동계급출신의 기술일꾼으로서 지난날에는 성실하게 일하던 문학봉이가 어떻게 되어 그렇게 락후해졌는지, 어찌하여 그가 타빈날개를 개조하는 사업을 그렇게도 강건너 불보듯하며 흑심한 요령주의와 보신주의, 인간에 대한 뺨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것이다.

인간의 모든 성격적특질이 다 그러하듯이 낡은 사상 잔재나 그릇된 사업작풍도 기성의 형태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이것은 엄연한 생활의 론리이며 성격의 론리이다. 이 성격의 론리, 생활의 론리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떠나서 성격을 기정사실화하여 보여주게 되면 작품에서 인물성격을 추상화하는데로 떨어지게 된다. 작품에서 추상성은 형상을 무덤으로 이끌어간다.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추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지 못하고 성격을 기정사실화한 결함은 작품에서 최진혁과 혜심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작품에서는 최진혁과 혜심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꽃피우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건전하고 아름다운 애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또한 작가는 혜심의 시점을 통하여 주인공 최진혁의 개성적인 성격적특징, 겉으로는 딱딱하고 원칙하나밖에 모르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직장성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의 생활과 운명까지도 책임지는 고상한 품모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작가의 이러한 형상적의도는 매우 좋은것이며 또한 작품에서 그것이 일정하게 실현된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그려진 진혁과 혜심의 애정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두사람의 애정관계를 생활의 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문학작품에서 애정관계를 묘사하는 목적은 그 자

체를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인공들의 전형적성격,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데 있다. 작품에서 이러한 목적을 옹계 실현하려면 청춘남녀들이 사랑을 맺는 계기를 의의깊게 그려야 한다.

중편소설에서는 최진혁이와 혜심이가 애정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의의깊게 그려지지 못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발전소기술지도원으로 배치되어온 혜심은 첫날부터 직장장 최진혁을 사랑의 대상으로 관찰하며 평가한다. 진혁이와 이전부터 별로 이렇다할 인연을 가지고있는것도 아닌데 혜심은 정희의 부추김을 받아 직장장을 자기의 리상에 맞는 청년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관점에서 대한다.

이러한 혜심이였기에 최진혁이가 통계원 처녀 봉희에게 욕설을 퍼붓는것을 목격하자 자기가 리상하던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실망하며 진혁의 과격한 성격과 거치른 작품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갓 배치되어 온 처녀기사가 직장장을 면전에서 추궁하는것도 진실하지 못하거나와 그가 진혁을 자기의 배우자로 될수 있겠는가 될수 없겠는가고 저울질 하면서 평가하는것은 심겁기 그지없다. 이것은 작품에서 아름답고 리지적인 녀성으로 내세운 혜심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며 그의 성격형상에 심한 손상을 주고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혜심이가 처음부터 진지하지 못하고 경박한 녀성으로 느껴지는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작품에서는 또한 주인공 최진혁이가 혜심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도 타당성있게 주어지지 못하였다.

주인공 진혁이가 자기에 대하여 고깝게 여기며 팽정하게 대하던 혜심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생활적으로 설득력있게 밝혀져있지 않기때문에 그가 수진기사에게 설계문건을 전달하려고 급히 평양으로 올라가면서 혜심에게 자기 집에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혜심이 진혁이네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도 주인공들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져있지 못하고 기정사실화되어있기때문에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작품은 사람들에게 예술적감흥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다.

중편소설 《높은곳으로》가 형상이 심오하지 못

하고 독자들의 예술적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또한 인상에 남는 세부들이 많지 못하고 생동한 묘사가 부족한것과도 관련된다.

작품에서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려면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내는것과 함께 생활세부들을 잘 그려야 하며 묘사를 잘하여야 한다.

인상에 남는 세부들이 없고 생동한 묘사가 없이는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중편소설 《높은곳으로》는 우리 나라 북부산간지대에 자리잡고있는 화력발전소를 무대로 하고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산간지대의 특유한 자연풍경과 화력발전소의 위용, 전력생산자들의 생활과 생활정서를 비교적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특히 작품에서는 발전소에서 잔뼈가 굵어진 오랜 로동자인 부대작업반장의 개성적인 성격, 로동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지만 기술수준이 어딘탓으로 하여 그지 겪게 되는 심리적고충을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곤하여 생동하게 그려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소설에는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뚜렷이 살리며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인상 깊고 흥미있는 세부묘사가 부족하며 많은 경우 작가의 설명과 지루한 서술이 묘사를 대신하고있다.

인상에 남는 세부들이 적고 예술적묘사가 빈약한 데로부터 얼마 길지도 않는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지며 따분한 감을 주는것이다.

우에서 필자는 중편소설 《높은곳으로》가 형상의 깊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는 원인을 몇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소설의 창작경험은 비록 작가가 현실속에서 사회적의의가 큰 문제를 작품에 내세웠다 하더라도 작중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깊이있게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하게 되면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요구는 날로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작가들앞에 예술적형상이 심오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작가들은 이 시대의 요구, 인민들의 미학적지향을 깊이 인식하고 창조와 변혁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시대의 혁명적현실과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화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과 재능을 다 기울여야 할것이다.

바 다

신문호

노을속에 갈매기 날아도는 백사장에서
만선 안고 돌아온 어로공총각에게
포구의 처녀는 속삭이네

-기슭의 천만 파도 금모래 일어
억만년 설레이는 바다
순간도 쉽지는 근면성이 맘에 들어
나는 바다를 사랑해요

-한밤의 어둠속에서도 노을을 불러
번개의 섬광속에 노도치는 바다
무한대한 그 열정이 맘에 들어

나는 바다를 사랑해요

-해와 별 빛나는 하늘을 담고
가없이 드넓게 펼쳐진 바다
이 가슴속 희망처럼 푸르러
나는 바다를 사랑해요

아, 남몰래 기다리던 그 총각을 옆에 두고
처녀는 어이하여 바다만을 사랑한다고 할가
하긴, 그 총각의 가슴속에 그 모든 바다가 있어
처녀는 사랑한다네, 갈매기가 바다를 떠날수 없
듯이 ...

풍자시

거꾸로 선 아메리카 외 1 편

김 송

거꾸로 섰구나 아메리카는
국가의 정치도 사회의 도덕도
모든것이 순서가 바뀌고
모든것이 다리를 쳐들고
온통 거꾸로 섰구나

거꾸로 선 철학우에 서있는 미국
종교철학의 마지막 무덤인 아메리카
너는 땅위에 서있는것이 아니라
허망한 《절대정신》에
예수의 하늘에 기초를 두고
허공중에 거꾸로 매달려있도다

오직 추악한것만이
《진리》로 인정되는
뒤집혀진 미국사회
한줌도 못되는 재벌이
수억만 인민들을 지배하고
국가도 사회도 쥐고 흔든다

미국의 탄광들과 대농장들에선
한놈의 주인을 위해
수천수만의 흑인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개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개를 위해 《봉사》하노라

도적이 오히려 매를 드는 세상
신성한 법정에서 마저
검은 법의를 떨쳐입은 판사들
까마귀는 희다하고
백로를 검다 하며
악을 징계하는것 아니라
선을 극형에 처하고
파쑈가 공공연히 날치며
자유와 민주를 교살하거니

보라
모든것이 반대로 되고
모든것이 거꾸로 서서 다니는
저 미친 아메리카를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국회의원 《각하》들도
흰 칠피구두를 신은
긴 다리를 거꾸로 쳐들고
손으로 해피망측하게 걸어다닌다
마치 곡마단의 열빠진 못난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푸른 하늘을 향해
신성한 머리를 쳐들고
력사의 길을 따라
힘있게 발구름해나지고있을 때

치욕의 아메리카여
오직 너의 죄많은 족속들만은
거꾸로 서서 거꾸로 보며
거꾸로만 정치를 하나니

오, 아메리카의 한복판에 세워진
《자유의 녀신》의 동상이여!
네 밑에 사는 《국민》들
언제나 자유를 몰랐고

철쇄에 묶인 몸 되어
원망에 차 네 밑을 지나야 했으니

자유도 진리도
모든것을 팔라에 팔아버리고도
이스트강기슭에 태연히 서있는
위선에 찬 《자유의 녀신》이여
부끄러워하라, 수치를 알라
거꾸로 선 아메리카앞에서
매춘부처럼 얼굴을 붉히라!

발작하는 워싱턴

아메리카가 웃는다
워싱턴이 발작한다
《순정》을 품은 너인의 미소속에
철쇄와 마약을 숨기고
치어든 감람수의 잎사귀에
인디안의 뼈를 깎던 비수를 감추고
히스테릭한 너털웃음을 친다

《리성》을 부르짖으며
흰 분칠한 낫짖을
서방에 돌려대고도 히죽
동방에 돌려대고도 히죽
더러운 추파를 던진다

차디찬 세계의 랭소에
빛이라 혼자 송얼거리기도 하면서
자꾸만 웃는다 시시덕거리며
마치 길가는 사람들을 보고
실없이 웃는 미치광이와도 같이...

사람들은 말하더라
우는 미치광이는 혹시 고칠수 있어도
뻔뻔스럽게 혼자 웃는 미치광이는
고칠수 없다고

하거늘 미치광이병에 걸린
워싱턴이여 대답하라
너의 그 무서운 광증의 역사는
그 언제부터였더냐

피비린 팔라의 구데기
침략의 소굴을 떠이고
모르간, 록펠러, 듀폰
돈자루우에 서있는
강도의 나라 아메리카여

처음으로 꼴롬부스에 의해

아메리카대륙이 발견된것이 죄었던가
평화로운 원주민들 살던 땅에
무서운 살륙의 역사가 시작되었나니

흉포한 앵글로색슨식인종들
《인디안의 고기가
칠면조보다 더 맛있다》면서
원주민들의 간을 씹으며
두눈알이 뒤집혀서 너털대던 그때로부터
미쳐 날뛰기 시작했거니

닥치는대로 죽이고 략탈하며
대서양기슭의 땅을 피로 목욕시켜
미국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첫날부터
인디안의 머리가죽
사람의 가죽을 사들이라
《국법》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살인과 강탈에 미친
아메리카의 첫 지랄병이었다

노예의 사냥, 해적의 상선으로
살져온 저주로운 아메리카
너는 우라늄과 금강석으로 빛나던
아프리카대지를
별집처럼 빨아가고 불질러 놓고도
미친듯 웃어댔더라

오늘도 아메리카는
미쳐서 웃는다
중성자탄만 가지면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은 도시들에
무혈전쟁으로 웃으며 들어설수 있다고,
웃으면서 온 세계를
다 가질수 있게 되었다고
미친듯 너털거린다
새로운 죄악을 부르며...
새로운 재난을 부르며...

기쁨이 피어나는곳

-평양시 동대원구역 직매점을 찾아서-

리 석

우리와 만나 이야기하고있는 구역인민위원회 리 부위원장은 웬만하여 자기 구역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난해 어느 한 출판사 기자가 시에서 진행한 봉사부문 일군회의에서 이 구역이 평가받은 일이 있으므로 취재하러 왔다가 아직 당에서 바라는 길에서 첫걸음을 땀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는바람에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위원장에게 《구두쇠》라는 별호까지 붙었다고 한다.

보기만해도 그렇게 느껴지는 인상이다. 갈수록 생김 얼굴, 있는듯없는듯한 눈썹 그리고 도드라진 코마루와 앵두알모양으로 생긴 입, 특징적인 인상이다.

우리도 그와 마주앉기 방금전까지만도 그러한 생각으로 은근히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생각이였다.

우리가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을 잘함으로써 구역직매점이 언제 나와봐도 흥성거리고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는 경향을 알고싶어서 왔다고 하자 부위원장은 말이 없다가 입가에 알릴듯말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가 자랑할만한 일을 해놓았을 때만이 상대방에게 드러내보이는 웃음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찾아왔단말입니까?》

생각외로 그는 우리의 요구에 수긍해나섰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구역직매점을 돌아보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나 역시 그의 요구에 따랐다.

살수차가 아스팔트길에 물보라를 뿌리며 지나가고 무궤도전차들이 분주히 오고간다.

고층건물들이 날을 따라 들쭉날쭉 키돋움하며 일떠서 거리를 새롭게 단장한다.

날을 따라 쭉어만가는 청년거리.

아지자르기를 하여 모양고운 모습을 드러낸 가로수들이 선선한 바람에 푸르싱싱하게 키다툼하며 설레인다.

리부위원장을 따라 구역직매점에 도착한 우리는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별로 생산된 생활필수품들을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 조화를 이루게 진렬해놓은 제품들, 보기만해도 직매점을 찾은 손님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동대원금속건구공장, 교육도서인쇄공장, 평양축정계기공장, 대동강건설사업소, 구역공업품상점 가내작업반...생산단위들이 수없이 많다.

벽거울, 삼면거울, 녀성들의 가방거울, 책상거울이며 생활수첩, 일기장, 노래수첩, 단어장들, 가위밥과 자투리로 만든 어린이들의 옷들과 문양고운 베개모들과 초물제품들...

실로 진렬된 제품 어느것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것이란 없다.

이 매대에 가서면 저 매대로 발길을 선뜻 옮겨놓을수 없는 풍성한 매대다.

하기에 그 누구든 한매대에서 상품을 한가지라도 사들지 않고서는 쉬이 발걸음을 옮겨놓지 못한다.

상품을 사는 손님들이건 팔아주는 판매원들이건 그들의 얼굴에서는 노상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있다.

지금껏 결에서 우리의 거동만 보아오면서 아무 말도 없던 리부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막 매대앞에 이르자 직매점 지배인 남영희를 소개하였다.

우리는 소개인사도 받을사이없이 《직매점이 흥성거리서 기쁘겠습니다.》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정말 요구하는 상품을 사들고 기뻐하는 손님들의 얼굴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도 기운이 막 솟구칩니다.》

이럴 때면 봉사일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

수십년동안 봉사부문에서 일하여온 그는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새로 만들어 달아놓은 은빛 창문으로는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들어와 상점안을 더더욱 밝게 비쳤다.

우리에게 지배인을 소개시키고는 말이 없던 리부위원장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기하신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은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면서 구역적으로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전투를 벌이기전까지만도 수백종의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들어와서 수천종으로, 그 생산을 몇배로 끌어올렸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구역안의 일꾼들과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 동, 인민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당의 호소에 떨쳐나서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 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나가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8월 3일 평양시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구역들에서 생산한 제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으며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생필직장과 생필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이 대대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인민들에게 팔아주는 직매점들이 전국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섰다.

중앙공업, 공장, 기업소가 그리 많지 못하고 대부분 지방산업공장들과 건설기업소들밖에 없는 구역실정에서 초시기 구역에서는 이제는 생활필수품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더 늘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꾼들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구역 일꾼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 사업에 군중을 발동하고 그들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 나가 로동자들과 인민반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도 하고 일손도 도와주면서 그들의 창발적열의를 불러 일으켰다.

동대원금속건구공장에 내려간 어느 한 일군은 로동자들과 함께 일주일간이나 무릎을 마주하고 당의 의도를 깊이 심어주었다.

그러자 로동자들은 이런 제품을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저런 제품을 꼭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불끈불끈 일어섰다.

그들은 자체로 소형압연기, 수동프레스, 도금설비를 비롯하여 20여대의 크고작은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생활필수품 가지수를 대뜸 몇배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탁인호동무를 비롯한 가공직장 로동자들은 지난

시기 파철로 처리하던 띠철을 가지고 침대를 비롯하여 8종의 소비품을 만들었고 늪창문직장로동자들은 파유리를 가지고 삼면경대, 손거울, 원형거울, 벽거울, 가방거울 등 거울만도 한달에 여러종씩 생산하여 구역직매점에 보내주고있다.

동신 1동과 2동에 나간 한 일군은 인민반마다 찾아다니면서 년로보장자들과 마주앉아 원료원천들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자투리와 가위밥으로 아름다운 베개모며 꽃방석 그리고 초물제품들을 저마다 만들어냈다.

구역일꾼들은 비등된 이러한 기세에 발맞추어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가지고 품평회와 전시회를 조직하였다.

품평회와 전시회에 와 본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와서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으며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었다.

...

(소비품생산으로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키니 가지수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많아질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 직매점이 흥성거릴수밖에...)

아무런 미사려구도 없이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이 구역일꾼들의 숨은 노력에 대하여 깊이 알수 있게 되었다.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아글타글 애쓰는 숨은 노력가들,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일하는 거기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우리 당을 받들어가는 이런 충복들이 있기에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은 날에날마다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는것이라.

인민의 기쁨이 거리와 거리, 마을과 마을, 온 강산에 그대로 행복의 꽃으로 활짝 핀 우리 조국,

날마다 더해지는 고마운 사랑에 의리로 보답할 불타는 한마음 안고 물결쳐가는 뜨거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아, 당이여

그대는 우리의 기쁨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는 그 사랑 뜨겁네

노래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이다.

직매점 문을 나서는 우리의 마음은 하냥 즐겁기만 하였다.

7월의 창창한 저 푸른 하늘처럼.

소나무는 서있다

김창희

한자국 또 한자국… 박세일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평행봉이며 철봉대며 높다랗게 세운 등반봉이며… 그모두를 한손으로 쓰다듬으며 그렇게 걷고 있다. 다른 한 손에는 두개의 봉투가 쥐여져있다. 방금 우편통신원이 주고간 편지이다. 하나는 후임 교원을 2~3일내에 보내겠으니 인계준비를 하라는 군인민위원회 교육부의 공문이고 전쟁이 일어나자 선참으로 군대에 나간, 본교의 5학년생이었던 엄청송의 부대에서 그의 아버지인 엄장쇠한 데 보낸 편지이다. 두 편지가 다 가슴가득히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소식이어서 이처럼 운동장을 거니는 박세일이었다.

이젠 떠날 때가 되었어…분교일도 자리가 잡히고 엄아바이의 한도 한돌기 풀렸으니…

그랬다. 박세일은 마음의 빛이 없이 떠날수 있게 되었다.

박세일은 군에 몇명 안되는 수학교원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래서 군 교육부에서는 몇번씩이나 그를 읍중학교에 소환하려고 했다. 또한 그의 많은 친지들이 그것을 권고했다. 박세일 역시 학생이라야 고작 20여명 남짓한 버들골분교가 아니라 읍중학교와 같이 큰 학교에서 자기의 수학적재능을 펼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는 떠날수 없었다. 자식들의 공부에 그처럼 열성을 다하는 버들골마을사람들과 더우기는 엄아바이의 지성에 등을 돌려둘수 없었다. 그의 두 남매의 까막눈을 퇴위주고 창창한 앞날을 열어주기전에는 엄아바이를 따라 넘어온 고개길을 결코 되돌아갈수 없었다.

해방된 그해 가을 자그마한 인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박세일은 해방이 되면서 학생이 배로 늘어난 읍중학교에 소환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날 교육부로 가게 된 박세일은 문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베짖는이를 입고 교육부의 계단에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눈길이 쏠린 것이었다.

마디가 늘어나고 터실터실한 손등, 가죽등거리를 입은 구뭇한 리, 별에 탄 커다란 발,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짚신… 그는 수북한 눈섭을 내리깔고 담배만 풀썩풀썩 태우고있었다. 그의 옆에는 참나무로 만든 지게가 놓여있고 점심밥이 들어있을 도

시락이 배천에 싸여 지게다리에 매달려있었다.

웬 사람일까… 그의 행색이 못내 궁금하여 교육부의 시학에게 물으니 읍에서 80리나 떨어진 버들골에서 선생을 데리러 왔다고 하며 아침부터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그의 모습이 더욱 측은하였고 스스로 동정이 갔다. 그런데 그는 오후에도 그렇게 앉아있었다. 도시락이 아침의 그 자리에 매달려있는걸보니 점심도 들지 않은것 같았다. 그의 발앞에 담배재만이 수북이 깔려있었다. 뿌연 담배연기가 그의 머리우를 어루쓸며 감돌뿐… 그는 저녁까지도 그렇게 앉아있었다.

《아바이, 가서 기다리라는데 왜 이렇게 앉아있습니까?교원이 부족하여 큰 학교에도 보내주지 못하는데 참…》

몇번씩이나 그를 설복하던 교육부의 젊은 시학이 종당에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러자 그는 흠칫 놀라며 눈길을 들었다. 실망과 허전함이 한가득 어린 어질고 순박한 그 눈빛… 자식의 글을 깨우치고 싶어하는 부모의 절절한 소망이 어려있는 눈빛이었다. 박세일은 그 눈빛을 피하여 고개를 외로 돌릴수 없었다.

그는 이끌렸다… 큰 학교의 교단에 서고싶은 유혹이, 그리고 안해와 두 아이가 기다리는 읍거리의 단란한 가정의 발길을 휘감았지만… 강렬한 그 눈길에 이끌려 망설임없이 그를 따라나섰다. 그의 지게다리우에 트렁크를 올려놓고 짚신자욱을 따라 버들골에 들어서서야 박세일은 그에게 까막눈인 열다섯살의 청송이와 열두살의 분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였구나! … 해종일 교육부의 계단을 뜨지 못한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엄아바이는 분교를 짓는 일의 앞장에 섰고 학교일도 자기가 꼭 돌봐야 한다며 말아나섰다. 그때부터 엄아바이는 학교의 안팎일에 몸을 푹 잠그고 묵묵히 지성을 다 했다.

못다한 부모의 도리…책가방 한번 떼어보지 못한 까막눈의 자식들을 시퍼런 눈을 뜨고 보아야 했으니 부모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한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랴… 하기에 못다한 부모의 도리를 다하려는것이 그의 삶의 전부인것 같았다. 그 삶의 뜻을 박세일 역시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분교에 자기의 정열을 고스란히 쏟았다.

그 나날에 더벅머리 청송이는 점차 이목구비가 환히 트이여갔고 분이도 까막눈의 때를 벗어나 꽃망울 터치듯 방실방실 피어났다.

어느덧 청송이는 본교의 졸업학년이 되었다. 박세일은 청송이의 가슴속에 교원이 될 꿈을 키워주었다. 청송이는 그 꿈을 기어이 꽃피워 버들골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되겠다고 하였다.

까막눈이던것이 이젠 눈을 떠서 사람구실을 할 생각을 한다고 목메어 하면서 엄아바이는 꿈에 취한듯 저 혼자 흐뭇하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그렁하여 청송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면서 진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엄아바이는 선생 공부하러 가는 청송이에 게 어찌 보자기를 돌려보내겠느냐고 하면서 가방을 짓기 시작했다. 해방전에 베천도 없어 그것 하나로 옷몸을 가리던 가죽등거리를 몸을 들어 다스리고 마름하여 돛바늘로 한뼘두뼘 기워갔다.

그러나 가방은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전쟁의 포성으로 돛바늘은 실이 꺾인채 중도에서 벗어버렸다. ...

박세일은 정문옆에 서있는 소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두그루의 소나무, 운치를 돋구며 키높이 자라 오른 소나무와 그옆에 가지런히 심어진 애솔포기는 바람결에 가지를 흔들며 가벼이 설레이었다.

박세일은 풍성한 아지를 펼치고 서있는 키높은 소나무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본교의 개학을 기념하여 엄아바이가 학생들과 함께 심은 소나무였다.

청송이라는 이름도 그날에 지었지. ...

《선생님, 우리 부엌쇠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부엌에서 날다 하여 열다섯에 나는 오늘까지 부엌쇠라고 불리웠는데 이젠 학생다운 이름을 달아주고 싶습니다.》

소나무를 심으며 엄아바이가 이렇게 청을 했다.

《아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박세일은 그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수학적 사색밖에 모르던 그였지만 가슴부푸는 흥분속에 이름을 고르었다.

《아버님, 이렇게 소나무를 심으니 생각되는게 있습니다.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라는 의미에서 청송이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청송...거 마음에 드웁다. 고맙수다.》...

부엌쇠...청송...푸른 소나무... 박세일은 조용히 뇌이며 애솔포기 앞으로 다가갔다. 청송이가 전선으로 떠나는날에 엄아바이가 그와 함께 심은 소나무였다. 잔돌로 테둘 두른 그루주위는 새빨간 진흙 그대로였다. 아직 풀 한대 돋지 않았다. 그럴수밖에... 청송이가 군대에 나간후 이제 석달이 지난것

이었다.

청송이는 올해 본교의 졸업반이었지만 20살의 청년이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학생은 청송이밖에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군사동원부로 달려갔다. 박세일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러나 청송이만 입대하고 박세일은 40이 넘는 나이도 그렇지만 교원이라고 하여 등을 떠밀리웠다.

그 혼자 다시 고개를 넘어 버들골에 들어선 그때 엄아바이는 청송이를 데리고 심은 소나무옆에 앉아 묵묵히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처럼 소나무에 물을 주었고 그옆에 앉아 담배를 태웠다. 그때마다 그의 발앞에는 담배재가 수북이 깔리고 연기는 소나무잎사이로 뭉글뭉글 서려오르곤했다.

기둥처럼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었고 그가 교단에 설 날을 그려보며 꿈에 취해살던 엄아바이였다. 그러니 허전해오는 심정을 어쩔수 없으리라. 박세일은 그의 정상에 마음이 쓰이였다. 그 어떤 말도 그에게 위안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박세일은 알고있었다. 분이를... 그렇다. 분이를 교원으로 키워 이루지 못한 그의 소망을 성취시켜주는것만이 그의 기쁨으로, 의지로 될것이였다.

《아버님, 분이를 교원으로 키우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애가 선생이 될수 있겠소다?... 우리 분이두 이젠 사람구실을 할수 있겠다니 정말 기쁘오다. 이게 다 선생님이 이 산골에 와서 까막눈을 띄워준 덕이 아니겠수다. 우리 애들이 글을 깨치구 사람구실을 할수 있게 되었다니 나한테 인제 무슨 한이 더 있겠수다. 선생님, 정말 고맙수다...》

엄아바이는 와락 다가들어 박세일의 손을 감싸쥐며 눈물이 그렁하여 말했다. 분이를 선생으로 내세우고싶은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랴싶어 박세일도 눈물이 났다.

엄아바이는 그날부터 다시 가방을 마저 짓기 시작했다. 분이에게 들려주려는것이였다. 등잔불 심지를 돋구어가며 한뼘두뼘 기워갔다. 열일곱살로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가 바라내대로 버들골본교의 교단을 지켜갈 결심을 굳게 다진 분이는 박세일의 개별지도를 받으며 밤새워 공부했다.

이러한때 군교육부에서 박세일을 불렀다. 전쟁으로 하여 교원들이 조절 이동되다보니 읍중학교에 수학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젠 본교일도 자리가 잡혔으니 옮겨야 하겠다는것이였다. 박세일은 그에 응했다. 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였다. 읍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자기가 담당하여 중학교과정은 물론 사범전문학교도 보낼수 있겠으니 엄아바이 소원 성취를 마지막까지 도

와줄수 있는것이였다.

박세일은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늘 마음이 쏠리던 그곳으로 가게 되어 흥분하였고 가벼운 마음으로 분교를 떠날수 있게 되어 기뻐다.

그런데 또 이렇게 소환장과 함께 기다리던 청송이의 소식까지 온것이였다.

박세일은 흐뭇한 눈길로 학교를 둘러보았다.

한개의 교실에 교원실이 잇달린 자그마한 교사에도, 넓다란 운동장에도 석양의 정적이 깃들었다. 수업이 끝나자 분이가 전선에 보낼 장갑을 만들자고 호소하여 모두 마을로 내려갔다. 엄마바이도 그들과 함께 갔다. 청송이가 공을 세우기전에는 편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며 대견해하던 엄마바이였지만 우편통신원이 오는 시각을 기다려 매일 동구앞을 지켜서는것이였다.

이제 편지를 받으면... 분이도 그렇지만 엄마바이가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선생님 !》

박세일은 갑자기 들려오는 부름소리에 정신을 차리며 몸을 돌렸다. 장갑통구리를 손에 든 분이가 학교옆길로 달려오고있었다. 엄마바이가 그의 뒤를 따라왔다.

박세일은 편지를 든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흠칫 벗어나던 분이가 이어 한달음에 달려왔다. 편지를 받아들고 걸봉투를 훑어보던 분이가 목메여 소리쳤다.

《아버지, 오빠네 부대에서 편지가 왔어요 !》

《뭐 ? 어디... 어디 좀 보자...》

분이에게서 편지를 받아드는 엄마바이 손이 후들 후들 떨렸다.

《원... 이제사, 너석두...》

엄마바이는 가슴을 두드려 두드리며 편지를 뜯었다. 성인학교에서 글을 배워 신문까지 읽는 엄마바이는 속지를 꺼내어 펼치며 눈길을 쏘프렸다. 글줄을 따라 눈길을 옮기던 엄마바이가 갑자기 돌처럼 굳어지며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곁에서 편지를 들여다보던 분이가 오빠 ! ...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며 얼굴을 싸쥐었다. 장갑통구리가 길우에 떨어지며 흐트러졌다. 쓰러질것만같은 엄마바이를 부축하며 편지를 열핏 스쳐보던 박세일은 눈앞이 아찔하여 몸을 허둥거렸다.

통지서...그것은 엄청송의 전사통지서였다.

X

《소장선생님, 그럼 분이를 부탁합니다.》

《걱정 말고 분이를 매일 보내주요. 나는 박선생의 그 마음에 깊이 감동했소. 소환장을 받고도 분이를 교단에 세울 때까지 분교에 있겠다고 하니 정말...박선생의 마음으로 분이를 키우지요. 우리 함

께 노력하여 아들을 나라에 바친 엄마바이에게 딸을 훌륭한 교원으로 키워 내세워줍시다.》

나이지속한 교원양성소 소장은 이렇게 말하며 박세일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박세일은 후더운 마음으로 양성소를 나섰다. 분이의 교원양성소 입학통지서를 품에 간수하며 그는 걸음을 다그쳤다. 이제 교육부에 들려 새로나온 교재들을 타가지고 곧장 버들골로 떠나야 했다.

옛그제 군으로 올라올 때에는 그날로 되돌아설 잡도리를 했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젠 분이를 하루빨리 교원으로 키워 엄마바이에게 기쁨과 마음의 의지를 주어야 했고 그렇게 분이를 교단에 세울 때까지 박세일은 그의 걸을 떠날수 없었다. 소환장을 되돌려보내야 했다. 그러느라니 시간이 지체되였다.

드디어 입학통지서를 받아쥐고 막혔던 숨을 내쉬고보니 어느결에 사흘이 지난것이였다.

엄마바이에게 한시빨리 통지서를 안겨주고 이제 몇달이 지나면 분이가 어엿한 교원이되여 분교의 교단에 서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싶었다.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그 시각부터 말 한마디 없이 담배만 태우던 그였다.

박세일의 걸음은 저절로 빨라졌다. 군인민위원회 정문을 걸쳐 교육부로 바삐 걸어가던 박세일은 누구인가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에 눈길이 뜨아해졌다. 그러던 그는 흠칫 놀라며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계단에 앉아 수북한 눈섭을 내리깔고 담배를 태우는 엄마바이 ! ... 그의 옆에는 지게가 세워져있고 그 다리에는 깨긋한 무명천에 싸인 도시락과 함께 그가 지은 가족가방이 걸려있었다.

《아버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세일은 그를 보니 너무도 반갑고 또 그 모습에 무중 가슴이 저려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 ... 이렇게 만나는걸...》

엄마바이는 눈을 슴벅거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앉아있습니까?》

《죄가 잠겨서 기다리느라고...》

자물쇠가 잠긴 교육부의 문을 바라보던 엄마바이는 어주운 목소리로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새 선생님을 모셔가려구요...》

박세일은 그의 말에 놀라며 물었다.

《새 선생이라니요?》

소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선생님, 정말 미안하우다... 옛그제 통지서가 온 날 선생님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됐소만 제앞의 일에 눈이 막혀 있다보니 한마디 묻지도 못했소

다. 선생님이 떠난 그날저녁에야 분이가 그 편지를 보았수다. 어찌나 섭섭하던지…》

엄아바이는 눈을 습벅거리며 목멘 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는 버들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엄아바이는 황급히 팔을 내저으며 박세일의 말을 막았다.

《읍학교에서 선생님을 데려가려 한다는걸 알면서도 선생님을 보내고싶지 않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지금까지 등을 떠밀지 못했수다. 큰일할 선생님을…이젠 마음놓고 떠나시우다.》

엄아바이는 이렇게 말하며 지계다리에서 가방을 벗겨 박세일에게 안겨주었다.

《선생님의 수고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그제 우리의 성의이니 이것을…》

《아버님, 이젠 안됩니다! 이 가방은 청송이를 대신하여 분교에 뿌리내릴 선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버님 이 가방은 분이가 받아야 합니다.》

박세일은 통지서를 꺼내어 엄아바이에게 내주었다. 영문을 모르며 통지서를 덤덤히 받아들고 보던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통지서를 소중히 감싸쥐며 물었다.

《선생님, 이걸 내게 주시우다.》

《간수하십시오. 래일 분이가 떠날 때 주면 됩니다.》

엄아바이는 통지서를 차곡차곡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분이는 버들골에 없수다.》

《예 ?》

분이가 없다니 ?… 엄아바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접은 통지서를 이윽히 여겨보며 나무등걸처럼 터실터실한 손바닥으로 쓰다듬던 그는 옷섶을 헤치더니 안에서 종이에 싸것을 꺼내었다. 미농지에 정히 싸것이였다. 엄아바이는 미농지를 천천히 벗겼다. 드디어 안에 있는것이 드러난 순간 박세일은 눈섭이 가늘게 떨리며 몸이 굳어졌다. 그것은… 청송이의 전사통지서였다. 엄아바이는 그 전사통지서우에 분이의 입학통지서를 겹쳐놓고 다시 미농지를 한 겹두겹 싸기 시작했다. 그것을 옷섶안에 깊숙이 넣고는 부시력, 부시력… 담배를 맡았다.

그는 부시를 췌다.부시돌이 몇번이나 밧나갔다.

박세일은 불안하였다. 분이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닌가… 그의 마음은 불심지처럼 타들었다. 엄아바이는 담배를 반나마 태우고나서야 입을 뻗었다.

《분이를 군대에 내보냈수다… 오래비 뭇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서 학교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오늘 떠나갔수다…》

《?! …》

박세일은 멍해지고말았다. 귀속에서는 그저 바람 소리만이 났다.

분이가 군대에 나갔다!… 이 한마디만이 그의 귀가에서 메아리쳤다. 방금까지 충충히 고여오르던 기쁨과 안도감이 한순간에 발끝으로 새여버린듯 허전하였다. 그는 눈길을 떨구었다. 지계가 눈에 뜨이였다. 그러자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본듯 흠칫 놀라기까지 했다.

그때와 꼭 같구나. … 참나무로 만든 지계, 손때에 닳은 작시미 지계다리에 걸려있는 도시락… 처음 만나던 그날 눈에 시계 안겨오던 그대로가 아닌가, 그때에는 까막눈 자식들때문에 그렇게 놓여있었다. 그런데 오늘 또 교육부의 문앞을 그렇게 지켜서있다. 이젠 청송이도 분이도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인가…

《선생님, 우리 걱정을 마시고 선생님 일을 보시우. 난 여기서 기다리겠수다. 우리 애들이 모두 동구밖에까지 나와 애타게 기다릴텐데…》

엄아바이는 이렇게 말하며 교육부의 문에 걸려있는 자물쇠를 바라보았다. 그늘어린 그의 얼굴이 차츰차츰 맑아져갔다.

아, 저 눈빛…그를 멍하니 지켜보던 박세일은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거센 충격이 가슴을 쳤다. 이름할수 없는 뜨거움이 온몸에 찌릿찌릿 퍼져갔다.

자물쇠를 바라보는 엄아바이의 눈길… 그것은 해방된 그해 박세일이 이글거 버들골고개를 넘었던, 부모의 절절한 소망이 어려있던 그 눈빛이 아닌가 ! …

…

이틀날아침… 분교에 출근하던 박세일의 걸음은 정문옆의 소나무앞에서 멎었다. 애솔포기 두그루… 엄아바이가 청송이와 그리고 옛그제 분이를 데리고 심은 두그루의 애솔포기는 거목처럼 솟아 오른 소나무옆에 어깨나란히 서있었다.

한손에 엄아바이의 가죽가방을 든 박세일은 세그루의 소나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점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췌아… 웅근소리를 내며 바람이 소나무의 우듬지를 흔들었다.

마가울의 찬바람에 한여름의 록음이 모두 락엽으로 췌건만 청청한 그 모습 변함없는 소나무…버들골 땅속깊이 억센 뿌리를 내리며 그 푸르름 영원할 세그루의 소나무는 아지들을 휘저으며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내 손에 넘겨다오

예술영화 《월미도》를 보고

리수원

영옥아 넘겨다오

내 손에 넘겨다오

두손에 꼭 감아쥔 그 통신선

숨저도 아니 놓은 그 통신선

이젠 놓아도 된단다

이젠 넘겨도 된단다

포성이 멎은지 오래기에

불구름 사라진지 오래기에

그날의 너의 통신선 이울테니

오늘의 나의 통신선 지킬테니

그날처럼 내곁에 와 노래불러주렴

그날처럼 두손 모아 노래불러주렴

네 노래에 신념의 나래 들고

네 노래에 충성의 불길 타올라

내 심장에 안으리 월미도의 3일간을

내 몸에 품으리 삶의 순간순간으로

영옥아 내 손에 넘겨다오

또다시 결사의 순간 다가온다면

내 너처럼 놓지 않으리

숨저도 두손에 쥔 나의 통신선!